



# 2018 EBS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

## 나무아카데미

문제에 대한 질문은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을 이용해 주세요.

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포할 시, 저작권법에 의하여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학습  
(고전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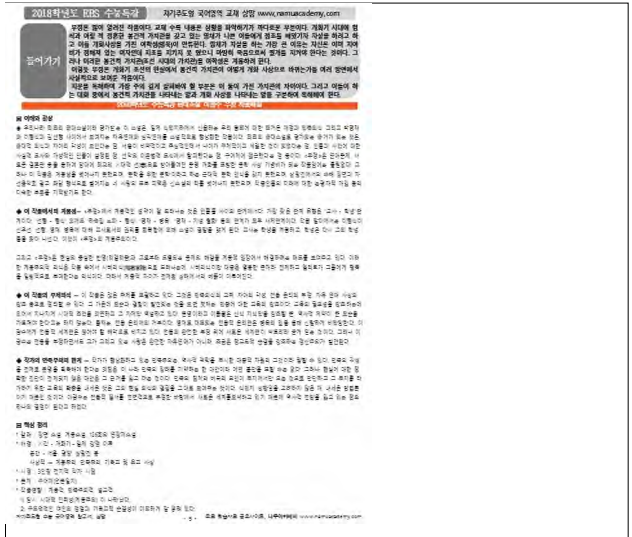


# 이 참고서의 구성과 특징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

총론

- 이 참고서는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 해설과 문제를 방대하게 구성하였다. (고전산문 편, 380여 페이지)
- 들어가기와 핵심정리 등 해설을 입체화하여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였다.
- 언제든지 모르는 사항을 홈페이지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를 통하여 질문할 수 있다.



##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교재 시리즈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운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해설서 (산문문학)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현대시)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운문문학-고전시가)
-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산문문학)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의 특징 I | | 해설을 자세하게 첨부하여 작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게 하였다.



나무아카데미 2018 수능특강 문학 변형문제집의 특징 II | | 방대한 문제 수를 통해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다.

# 이 참고서의 차례

## 2018 ebs 수능특강 변형문제집 (고전산문)

---

### 적용학습

1) 지하국 대적 퇴치	5
2) 김천	21
3) 국선생전	27
4) 만복사저포기	49
5) 유광역전	77
6) 곽해룡전	94
7) 조용전	107
8) 용문전	124
9) 낙성비룡	140
10) 금방울전	156
11) 사씨남정기	188
12) 화산중봉기	224
13) 어룡전	253
14) 흥보가	265
15) 황새결승	313
16) 심청전	328

# 적용학습

## 출제요소

본문과 관련해 이야기의 전기적 요소(비현실적 요소- 무사가 수박으로 변하거나 아귀의 존재, 벌세계의 존재 등)를 숙지한다. 설화의 일반적 특징을 숙지한다.

##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지하국 대적 퇴치 작품해설

## ▣ 이해와 감상

설화는 소설의 모태가 되는 이야기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인물이, 어떤 일을, 어떻게 펼쳐 갔으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에 중점을 두어 감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민담의 주인공은 보통 사람과는 달리 신통한 능력을 지녔으며, 어려움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패배하지 않는다. 이 민담의 창작 주체들은 이를 통해 인간에 대한 신뢰와, 어떠한 고난이나 적대적인 요소와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낙관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장수와 아귀의 대결이라는 구도는,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에서 언제나 인간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민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자연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비록 꾸며진 이야기지만 인간의 승리로 끝나는 구도에서 대리 성취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이다.

## ▣ 핵심 정리

■ 갈래 : 설화

■ 작가, 연대 : 미상

■ 성격: 전기적, 교훈적, 경세적

■ 주제

- 무신의 성취와 결혼
- 고난극복을 통해 지상국의 승리
- 위기 극복 노력과 과업의 성취
-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반성

■ 구성 : 영웅 설화의 구조

- 기 - 공주의 피납과 무신의 지원
- 승 - 산신령의 도움
- 전 - 아귀의 퇴치
- 결 - 하인들의 배신과 극복

■ 의의

- 전 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한 유형이고, 설화의 소설화 과정을 보여 준다.
- 전기(傳奇)소설의 대표적인 소재가 됨.

## ★ 변신의 의미

이처럼 다른 것으로 변하는 이야기는 민담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런 방법이 동원된다. 이 점에서 '무신'이라는 인물도 보통보다는 우월한 인물임이 확인된다. 여기서 반동인물인 아귀는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은 아귀 귀신이 특별한 능력을 가졌음을 나타내고 있다.

## ★ 사건 해결을 위한 복선

공주들은 구출되기를 바라는 구출대상자이다. 그러나 여기서 스스로 노력도 하고 또 구출하는 일을 돕기도 한다. 구출대상자가 조력자가 되어 주인공을 도운다는 점이 다른 이야기에 비해 특이하다.

## ★ 사건의 해결

초월적 힘을 가진 반동 인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물리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비늘은 특별한 힘의 원천으로서 서양의 '삼손과 데릴라' 이야기에 나오는 '삼손의 머리카락'과 같은 요소이다. 재는 사물(死物)의 상징으로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졌다.

### ★ '지하국의 도적' 설화에 나타난 인간의 유형

이 설화에는 긍정적 인물로 무신과 공주, 임금님, 산신령이 있고, 부정적 인물로는 아귀 귀신과 하인들이 있다. 긍정적 인물은 밝음의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이며 부정적 인물은 어둠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어둠을 지향하는 인물들의 근거지는 땅 속의 깊은 곳에 있다. 이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는 이상한 바위의 조그마한 구멍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어둠의 세계와 밝음의 세계는 이 구멍을 경계로 구분되어 각각의 질서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둠의 세계 속에 존재하는 아귀 귀신은 이 구멍을 통하여 밝음의 세계로 나와 나쁜 짓을 저지름으로써 기존의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데 이러한 밝음과 어둠의 양면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통적 속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긴장과 이완의 양면성을 공유하는 것처럼 인간은 밝음을 지향하는 측면과 어둠을 지향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것이다. 밝음의 측면은 이성적 판단과 긍정적 사고를 하게 하지만, 어둠의 측면은 대상을 감성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한다. 따라서, 어둠의 측면은 주변의 환경이나 스스로의 절제에 의하여 억압되고 축소를 강요당하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스로의 절제를 잃었을 때, 이 어둠의 측면은 밝음의 세계로 튀어 나와 파괴와 부정이 횡행하게 된다.

###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유형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고전 소설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설화가 소설의 앞선 문학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줄거리는 기타 여러 고전소설에서 비슷한 형태로 자주 등장한다.

'김원전(金圓傳)', '최치원전', '홍길동전', '금령전'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주인공이 도적을 물리치고 여인을 구하여 같이 결혼한다는 이야기의 기본 골격은 같고 덧붙여지는 이야기만 약간씩 다를 뿐이다.

'김원전' 같은 작품은 이 설화를 확대 시켜 놓았다고 할 만하고, '최치원전'과 '홍길동전' 같은 작품은 이 설화를 부분적으로 차용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는 설화가 소설의 형태를 갖추기 위한 단계적 과정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 ★ 이 설화가 지닌 민담으로서의 성격

우리의 민담에는 지상과 대립되는 지하국이 나타나는 것이 많다. 지하국의 대적(大賊)이 지상의 중요한 것을 약탈하여 지하국에 숨겨 놓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이 지하의 대적을 퇴치하고 그것을 되찾아 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작품 역시 이러한 기본 모티프에 충실한 작품이다.

한편, 흥미성의 추구라는 측면에서도 보편성을 보여 준다. 이 민담은 신화나 설화의 신성성과 진실성에 구애받지 않고 흥미 위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신화와 전설 속의 신이(神異)한 인물에 비해 보통의 능력을 지닌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여 고난을 극복하고 혼인이라는 행복한 상황에 이르는 희극적이고 낙천적인 결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작품은 우리 민족의 소박한 삶의 정신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 ★ 지하대적퇴치설화 개요

신이담에 속하는 설화의 하나. (괴물(혹은 독수리)에게 납치되어간 세 미녀)(금돼지(혹은 미륵돼지)의 자손 최치원) 등으로도 알려져있다. 이 설화 유형은 우리 민간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것 중의 하나로, 그 대체적인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인이 괴물에게 납치당함.
- ② 여인의 부모는 재산과 딸을 현상으로 용사를 구함.
- ③ 용사등장
- ④ 용사 혼자(혹은 부하와 함께) 여인을 찾아 출발,
- ⑤ 괴물의 거처를 알게 됨
- ⑥ 지하로 이르는 좁은 문 발견
- ⑦ (뱃줄을 내려 부하들을 차례로 내려 보내려 하였으나 모두 중도에 기권)
- ⑧ 우물가 나무위에 숨어 있다가 물 길러 나온 여인의 물동이에 나뭇잎을 뿌려 구원왔음을 알림,
- ⑨ 여인의 도움으로 괴물의 집 문을 무사히 통과.
- ⑩ 여인이 용사의 힘을 시험하려고 바위를 들어보게 하였으나 용사는 들지 못함,
- ⑪ 여인은 용사에게 '힘 내는 물'을 먹임.
- ⑫ 드디어 괴물 죽임
- ⑬ 납치되었던 사람을 구원.
- ⑭ 부하들이 무사를 지하에 남겨둔 채 여인을 가로채어 가버림,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⑤ 신령의 도움을 받아 용사는 지상으로 오름,

16 (부하들을 모두 처벌하고) 여인과 혼인.

이상과 같은 내용을 지닌 '지하국대적퇴치설화'는 우리나라 전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다.

아르네-통슨에 의하면, 이 설화의 유형으로는 AT 300(용퇴치사), AT 301 (곰 아들), AT 303(두형제)와 같은 것이 유명한데, 랑케에 의하면, 유형 300은 368유화, 유형 303은 770유화가 채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3유형중 우리나라의 자료들은 유형 301과 매우 비슷하다. 유형 301은 (납치당한 세 명의 공주)로도 알려져 있어 명칭부터가 우릿 설화와의 관련성을 짐작하게 해준다 (우리나라의 예에 서는 흔히 세 명의 원님 딸 혹은 부잣집 딸이 납치된다). 사실 이본에 따라 조금씩 세부적인 차이점은 가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비슷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자료들은 유형 301의 전파임이 틀림없다.

### ■ 줄거리

옛날 지하국에 사는 아귀(餓鬼)라는 도적이 지상 세계에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잡아갔다. 한 무사가 공주를 구출하겠다고 자진해 나섰다. 그러자 왕은 공주를 구하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지하국의 입구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지하국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다. 입구에 다다른 무사는 부하들을 지상에 남겨두고 광주리를 타고 지하국에 이르렀다. 세 공주 중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가 무사를 만난다. 무사는 수박으로 변하여 아귀의 집으로 들어갔다.

세 공주는 아귀에게 독주를 권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고, 그의 힘의 근원이 되는 옆구리의 비늘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다. 무사는 세 공주를 지상으로 올려 보냈으나 부하들이 무사는 울리지 않고 그대로 공으로 돌아갔다. 지하국에 남은 무사는 처음 나타났던 산신의 도움으로 말을 타고 무사히 지상으로 나온다.

한편, 궁궐에서는 부하들이 공주를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들이 구한 양 거짓말을 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공주들도 자신들이 살아오게 된 기쁨에 무사에 관한 일을 잊고 있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무사가 나타나 자초지종을 고하자 왕은 크게 노하여 부하들을 죽이고 막내딸과 무사를 결혼시켰다.

### ▶구절 풀이

- \* 아귀귀신 : 율법을 어기는 악업을 저질러 아귀도(餓鬼道)에 떨어진 귀신. 몸이 앙상하게 마르고 목구멍이 바늘구멍 같아서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늘 굶주린다고 했다.
- \* 국록(國祿) : 나라에서 관원에게 주는 녹봉(祿俸)
- \* 어떤 때 아귀 귀신이 - 납치하여 갔다 : 아귀 귀신이 공주를 납치해 간 것은 우리 삶에 던져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삶 앞에 던져진 문제는 해결되어야 하므로 이 이야기는 그 해결의 과정을 보여줄 것이 기대된다. 여기 등장하는 아귀 귀신은 보통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옛날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 광주리 : 광주리 이야기는 지하국이 우리 삶의 공간과는 다른 층위에 있음을 말해 주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인공 스스로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는 행위를 통해 그의 비범함을 드러내기위한 삽화라는 점이다.
- \* 지하국 : 지하국을 신비한 세계로 설정한 것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심의 발로로 볼 수 있다.
- \* 그 사람은 조금 내려 가자 - 무신 자신이 내려가기로 하였다. : 세 사람이 차례로 내려갔지만 실패한 다음 무신 자신이 내려간다. 여기서 세 사람이 내려 가는 일의 '셋'이라는 수효는 별 의미가 없다. 모두 실패하지만 주인공은 해낸다는 뜻이 담겨 있다. 따라서, 과정은 압축적으로 야기되고 만다.
- \* 아귀 귀신은 마침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다.: 설화에서는 이처럼 '마침', '뜻밖에도' 등의 표현이 흔히 사용된다. 이 이야기에서 아귀귀신'이 이 때 마침 몸이 불편한 것도 그러한 예이다. 이는 인과적 필연성보다는 우연성의 요소가 강한 설화의 특징을 반영한다. 설화는 플롯 전개의 필연성보다 문제가 해결되는 데서 재미를 느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성에 의한 전개와 해결도 흔히 이루어진다.
- \* 임금님은 하인들을 - 결혼하게 하였다 :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해결하고 있다. 무신과 막내 공주의 결혼은 아귀 귀신을 물리친 결과로서 이 이야기 전체의 중심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하인들을 죽인 것은 위선적인 악의 요소를 제거한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요소를 완벽하게 해결함으로써 권선징악이라는 주제가 구체적으로 드러 난다.



옛날 한 사람의 한량(閑良)이 과거를 보려고 서울로 향하였다. 중도에서 그는 어떤 큰 부자가 어떤 대적(大賊)에게 딸을 잃어버리고 비탄(悲嘆)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딸을 찾아 오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과 딸을 주리라.’ 하는 방(榜)을 팔도에 붙였다는 것이었다. 한량은 그 여자를 구하여 보리라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그 도적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방향도 없이 찾아다니던 중, 어느 날 그는 노중(路中)에서 세 사람의 초립동(草笠童)을 만나서, 그들과 결의(結義兄弟)를 하였다.

네 사람의 한량은 도적의 집을 찾으러 출발하였다. 도중에서 그들은 다리 부러진 한 마리의 까치를 만났다 그들은 까치의 다리를 형겅으로 매어 주었다. 그 까치는 독수리에게 집과 알을 잃어버리고—독수리는 종종 까치의 집을 빼앗는 일이 있다—다리가 지 부러진 것이었다.

까치는 무사들에게 향하여

“당신들은 아마 대적의 집을 찾으시겠지요. 여기서 저 쪽에 보이는 산을 넘어가면, 거기에는 큰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에는 흰 조개 껍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어 내고 보면, 조개 껍질 밑에 바늘귀만한 구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곳이 바로 대적이 사는 곳입니다.” 하였다.

그들은 까치와 작별하고 그 산을 넘어 바위를 발견하여 그 밑에 있는 흰 조개 껍질을 들어 보았다. 정말 거기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그 구멍은 파내려갈수록 커져, 그 밑바닥에는 넓은 별계가 보였다. 그러나 그 구멍은 매우 깊었으므로 쉽게 내려갈 수 없었다. 그들은 풀과 칩을 구하여 길다란 줄을 만들었다. <중략>

“너희들은 아직 나이 어려서 안 되겠다. 내가 내려가서 도적을 죽이고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 때에도 줄을 흔들 터이니 너희들은 줄을 당겨 올려야 할 것이다.”

그는 구멍이 끝나는 곳까지 내려갔다. 넓은 지하국에 훌륭한 집도 많이 있었다. 그는 대적의 집인 듯한, 그 나라에서는 가장 큰 집 옆에 있는 우물가에 선 버드나무 위에 몸을 감추고 대적의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조금 있으니, 한 예쁜 여자가 물을 길고자 우물까지 왔다. 그 여자는 물동이에 가득 물을 길어 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였다.

그 때에 ㉠한량은 버들잎을 한줌 훑어서 물동이 위에 뿌렸다.

“아이고 몹쓸 바람이구나!”

하면서 여자는 길었던 물을 버리고 다시 물을 길었다. 여자가 다시 물동이를 들고 하였을 때에, 한량은 또다시 버들잎을 떨어뜨렸다.

“바람도 알긋어라.”

하면서 여자는 다시 물을 길었다. 세 번만에 여자는 나무 위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을 발견하고 놀라면서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들어왔습니까?”

한량은 그가 온 이유를 말하였다. 여자는 다시 놀라면서,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대적은 무서운 장수이므로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 오십시오.”

하고 한량을 컴컴한 도장 속에 감추고 커다란 철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량 앞에 놓으면서,

“당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들어 보십시오.”

하였다. 그는 겨우 그 철판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는 도저히 대적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도적의 집에 있는 동삼수(童蔘水)를 매일 몇 병씩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 동삼수를 날마다 먹었다. 그래서 필경은 대철퇴(大鐵槌) 돌을 양 손에 쥐고 자유로이 사용하게 되었다. 어떤 날 여자는 큰 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대적이 쓰는 것입니다. 대적은 지금 잠자는 중입니다. 그 놈은 한번 자기 시작하면 석달 열흘씩 자고, 도적질을 시작하여도 석달 열흘 동안 하며, 먹기는 석달 열흘 동안씩 먹습니다. 지금은 자기 시작 한 뒤로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 칼로 그 놈의 목을 베십시오.”

하였다. 한량은 좋아라고 여자를 따라 대적의 침실로 들어갔다. 대적은 무서운 눈을 뜬 채 자고 있었다. 한량은 도적의 목을 힘껏 쳤다. 도적의 목은 끊어진 채 뛰어서 천장에 붙었다가 도로 목에 붙고자 하였다. 여자는 예비하여 두었던 매운 재를 끊어진 목의 절단부에 뿌렸다. 그러니까 목은 다시 붙지 못하고 대적은 마침내 죽어 버렸다. <중략>

네 사람의 한량은 네 여인을 구해 가지고, 그들의 부모들에게 데려다 주었다. 여자의 양친들은 한없이 좋아하며 그들의 딸을 각각 한량들에게 주고, 그 위에 그들의 재산을 많이 나누어 주었다. 큰 부잣집 딸을 제일 형 되는 한량이 얻은 것은 물론이다.

- 작자 미상,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1.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한량'은 본래 천상 세계의 혈통을 이어받은 영웅적 인물이다.
- ②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액자 소설의 형태를 띤다.
- ③ 지상 세계는 불멸의 존재가, 지하 세계는 유한한 존재가 사는 세계이다.
- ④ 흥미를 높이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지하국'이라는 공간을 설정하였다.
- ⑤ '지하국의 대적'을 퇴치하는 모티프는 <홍길동전> 등 많은 작품에서 차용되고 있으므로 역사적으로 실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2. <보기>는 그리스 신화의 <페르세우스의 영웅담>이다. 위 글과 <보기>의 글, 두 작품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페르세우스는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는 아름다운 처녀를 보았다. 그녀는 거대한 바닷뱀에게 제물로 바쳐져서 거기에 버려진 안드로메다였다. 페르세우스는 그녀가 한눈에 맘에 들었다. 그래서 아가씨 곁에서 괴물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드디어 뱀이 나타나 가련한 여인을 한 입에 삼키려 들었다. 그러나 페르세우스는 그 목을 단칼에 베어 버리고 안드로메다를 양친 곁으로 데리고 돌아가 결혼을 신청했다. 안드로메다의 부모는 이를 쾌히 승낙하였다.

- ① 두 작품 모두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 아름다운 여성을 사악한 대상의 제물로 바친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 ② 여러 나라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전해 오는 것은 동서양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았다는 것을 암시해.
- ③ 영웅이 등장하여 악을 퇴치하는 것은 강력한 대중적 영향력을 지닌 영웅을 바라는 사람들의 심리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어.
- ④ 두 작품의 차이는, '한량'은 대적을 주변 인물의 도움으로 퇴치 하지만 '페르세우스'는 바닷뱀을 개인의 능력으로 퇴치한다는 것이지.
- ⑤ 두 작품의 공통되는 기본 골격은 여자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영웅이 등장하여 악을 퇴치하고 그녀와 결혼한다는 것이지.

5.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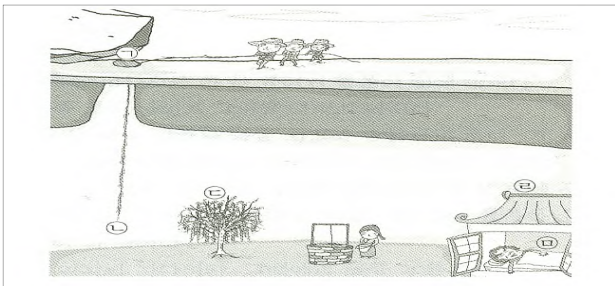
- ① 한량이 여자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 ② 한량이 아름다운 여자를 희롱하기 위한 것이다.
- ③ 과연 자기가 찾는 여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 ④ 물둥이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여자를 놀라지 않게 하면서 자기를 인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3. 위 작품을 토대로 하여 영화 대본을 쓴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남자 주인공은 물러설 줄 모르는 강인한 성격을 지닌 인물로, 여자 주인공은 연약하고 섬세한 인물로 그려야겠어.
- ② 결말의 처리는 한량이 도적과의 힘의 차이를 극복하고 악전고투 끝에 싸움에서 극적으로 이기는 것으로 해야겠어.
- ③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구출하는 방법은 두 사람 사이의 믿음을 바탕으로 힘을 합쳐 싸우는 것으로 해야겠어.
- ④ 여자 주인공이 겪게 되는 고난의 종류는 우연히 악한 존재의 눈에 띄어 잡혀 가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해야겠어.
- ⑤ 여자 주인공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는 돈과 싸움을 좋아하고 잔인하며 사람의 생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로 설정해야겠어.

4. 위 작품을 영화로 제작하면서 야외 세트를 <보기>와 같이 구성하였다. '한량'의 시각을 따라가며 카메라를 배치하고자 할 때, 적절한 순서는?

< 보 기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옛날 어느 곳에 한 평민이 아들을 낳았는데, 태어나자마자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어 날아다니고 힘도 센 장수였다. 부모는 이 장수가 크면 장차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 것이라고 생각해서 돌로 눌러 죽였다. 아기장수가 죽을 때 유언으로 콩 닳섬과 팥 닳섬을 같이 묻어 달라고 하였다. 얼마 뒤 관군이 아기장수를 잡으러 왔다가 부모의 실토로 무덤에 가 보니 콩은 말이 되고 팥은 군사가 되어 막 일어나려 하고 있었다. 그런 뒤 아기장수를 태울 용마가 나와서 주인을 찾아 울며 해매다가 용소에 빠져 죽었다. 지금도 그 아기장수나 용마의 흔적이 남아 있다.

- <아기장수 설화>

[나] 옛날에 어떤 ㉠부자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스님이 와서 동냥을 달라고 하자, 장자는 외양간을 치고 있다가 쌀 대신 쇠똥을 바람에 넣어 주었는데 그냥 받아갔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장자의 며느리가 몰래 쌀을 퍼다가 바람에 담아 주었다. 그러자 종이 "㉢당신이 살려면 지금 나를 따라오되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는 주의를 주었다. 며느리는 ㉣아기를 업고 집을 떠나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참고 돌아보지 않았으나 갑자기 커다란 소리가 들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보았다. 며느리는 자기가 살던 집이 못이 되었으므로 놀라 그 자리에서 돌이 되었다. 지금도 그 ㉤부자의 집터가 변한 못과 바위가 남아 있다.

- <장자못 전설>

[다] 옛날 지하국에 사는 아귀(餓鬼)라는 도적이 지상 세계에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잡아갔다. 한 무사가 공주를 구출하겠다고 자진해 나섰다. 그러자 왕은 공주를 구하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몇 사람의 부하를 데리고 지하국의 입구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꿈에 산신이 나타나서 지하국의 입구를 가르쳐 주었다. 입구에 다다른 무사는 부하들을 지상에 남겨 두고 광주리를 타고 지하국에 이르렀다. 세 공주 중 하나가 물을 길러 왔다가 무사를 만난다. 무사는 수박으로 변하여 아귀의 집으로 들어갔다. 세 공주는 아귀에게 독주를 권하여 아귀를 잠들게 하고, 무사는 그 힘의 근원이 되는 옆구리의 비늘 두 개를 제거하고 그 목을 잘라서 죽였다. 무사는 세 공주를 지상으로 올려 보냈으나 부하들이 무사는 올리지 않고 그대로 궁으로 돌아갔다. 지하국에 남은 무사는 처음 나타났던 산신의 도움으로 말을 타고 무사히 지상으로 나온다. 한편, 궁궐에서는 부하들이 공주를 데리고 왕 앞에 나아가 자기들이 구한 양 거짓말을 하여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었다. 고주들도 자신들이 살아오게 된 기쁨에 무사에 관한 일을 잊고 있었다. 잔치가 베풀어지고 있는데 무사가 나타나 자초지종을 고하자 왕은 크게 노하여 부하들을 죽이고 막내딸과 무사를 결혼시켰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라] 강원도 어떤 산중에서 활을 잘 쓰는 젊은이가 두 마리의 꿩이 뱀에게 잡히어 고생하는 것을 보았다. 뱀은 곧 꿩을 잡아먹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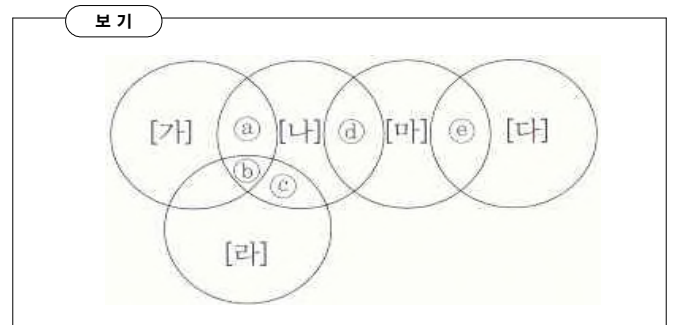
으려고 했다. 젊은이는 활을 쏘아서 뱀을 죽이고 꿩을 구해 주었다. 해가 저서 젊은이는 산중의 작은 절에 들렀다. 예쁜 여자가 안내했다. 밤이 깊어서 잠을 깨니 큰 뱀이 젊은이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처녀가 그 뱀인 것이다. 그 뱀은 "나는 아까 길가에서 너의 화살에 맞아 죽은 뱀의 아내"라고 말하며 원수를 갚으려고 한다. 그 때 절의 종소리가 두 번 울려 왔다. 그러자 뱀은 도망을 갔다. 날이 새자 절에 가 보니 두 마리의 꿩이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 있었다. 그는 그 곳에 치악사라는 절을 세우고 스님이 되었다.

- <은혜 갚은 꿩>

[마] 어떤 늙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뱀이었다. 그 아들은 점차 나이를 먹어 가면서 김 정승의 딸과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김 정승의 딸들에게 의사를 물어 보자 첫째와 둘째 딸은 뱀이어서 싫다고 했다. 그러나 셋째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르겠다고 했다. 그래서 뱀 신랑과 결혼을 했다. 혼인하던 날 신랑은 허물을 벗고 잘 생긴 선비가 되었다. 어느 날 남편이 길을 떠나면서 아내에게 자신의 허물을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하였다. 만약 없애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단단히 일렀다. 이 비밀을 알아챈 두 언니는 몰래 그 허물을 훔쳐다 태워 버려서 남편은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아내는 남편을 찾아 바위 속의 세계로 들어갔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이미 딴 부인이 있었다. 남편은 몇 가지 문제를 내어 통과하는 사람을 진짜 아내로 삼겠다고 하였는데 찾아가 김 정승의 딸이 시험에 통과하였다.

- <뱀 신랑 설화>

6. [가]~[마]의 관련성을 <보기>와 같이 표현해 보았다. ㉠~㉤에 들어갈 말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농경사회
- ② ㉡ - 구체적인 증거물
- ③ ㉢ - 보은(報恩)
- ④ ㉣ - 금기(禁忌)
- ⑤ ㉤ - 통과 의례(通過儀禮)

7. [가]의 '부모'의 행위에 대한 청자의 반응 중 이 이야기의 사회적 맥락을 가장 잘 고려한 것은?

- ①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말도 못 듣고 살았군.
- ② 왕후장상(王侯將相)에 씨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 ③ 당랑거철(螳螂拒轍)의 기미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 ④ 식자우환(識字憂患)이라는 말이 이래서 생길 수밖에.
- ⑤ 맥수지탄(麥秀之嘆)도 예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라니.

8. [나]의 ㉠~㉣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 차이점에 의미를 부여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지역 : ㉠이 '시아버지'로 되어 있는데 '부자'라고 하면, 부(富)가 대체로 부정적으로 인식될 개연성을 고려한 측면도 있을 거야.
- ② B 지역 : ㉡을 '머리가 하얀 노인'으로 설정하였는데 두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민간 신앙이나 종교가 서로 다른 데서 오는 것이라 보아도 될 것 같아.
- ③ C 지역 : ㉢ 대신 '아무 날 아무 시에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 집을 떠나 뒷산으로 올라가되'로 다른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 것은 C 지역에 자연 재해가 잦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 ④ D 지역 : ㉣이 특이하게 '베를을 이고'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마을에서는 아무래도 삼이 많이 나서 그것을 주업으로 삼았던 것이 아닐까 추정돼.
- ⑤ E 지역 : ㉣이 아니라 '아기를 업은 어머니의 형상을 닮은 바위'가 증거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야기의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대한 시각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아.

9. [다]를 토대로 삼아 현대적인 서사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사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라]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그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하국은 현재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어려우니 라)에서처럼 일반적인 삶의 공간과 거리감을 둔 다른 장소로 함.
- ② 아귀가 공주를 납치해 간 상황이 너무 막연하니 뱀이 젊은이를 해치려 한 것처럼 원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꾸밈.
- ③ 산신의 출현이 너무 우연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길을 가다가 다른 동물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보답으로 도움을 얻는 것으로 함.
- ④ 무사가 아귀의 힘의 원천이 되는 비늘 두 개를 제거하는 과정이나 결과가 너무 밋밋하니 절에서 들려오는 종소리처럼 외부적인 요소가 개입하는 것으로 함.
- ⑤ 무사의 부하들이 무사를 배반하는 원인이 석연치 않으므로, 무사가 돌아오는 도중에 라)에서 여인으로 변신한 뱀 같은 존재에게 유혹을 당하여 중도에 머물게 되는 것으로 함.

10. <보기>는 [마]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에 대한 비평의 일부이다. <보기>를 참조할 때 두 텍스트의 상관성을 말해 주는 요소들을 잘못 연결한 것은?

**보기**

'시집가는 날'에서 맹진사의 딸 갑분이와 김 판서의 아들 김미언의 결혼은 세 차례에 걸쳐 반전(反轉)된다. 첫 번째 반전은 김미언의 숙부가 나타나 신랑될 사람이 다리가 불구라는 소문을 퍼뜨림으로서 맹진사가 갑분이 대신에 몸종 입분이를 신부로 위장하는 대목이다. 두 번째 반전은 입분이와 결혼하기로 한 삼돌이가 거세게 반발하며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하자 갑분이를 삼돌이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해 버리는 대목이다. 세 번째 반전은 정작 혼례식에 나타난 신랑이 건강한 풍채와 학식 및 인격을 갖춘 선비임이 드러나 서둘러 갑분이를 데려오게 하지만 혼례는 입분이를 신부로 하여 치러진다는 대목이다.

[마] 설화	'시집가는 날'
① 아버지(김정승)	김 판서
② 뱀	불구
③ 두 딸	갑분이
④ 셋째 딸	입분이
⑤ 허물을 버림	삼돌이의 협박

옛날 지하국에 아귀가 살고 있었다. 그 아귀는 종종 세상에 나와 세상을 요란케 하고 예쁜 여자를 도적질 해 가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아귀가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납치해 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해 아귀를 잡아 오도록 묘책을 강구하였으나 대책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간 지나서 어떤 무사가 그 일을 맡겠다고 자청하였다.

“임금님, 저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에게 아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 오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세 공주를 구해 오면 그중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였다.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아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그는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아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무사가 어느 산모퉁이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깜박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아귀의 소굴은 저쪽 너머 산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별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아귀의 세계인 것이다.”

무사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하나 짜도록 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누가 먼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아귀의 동정을 살피고 오겠는가?”

라고 물었으나 한 사람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만일 도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줄을 흔들어라. 그러면 줄을 끌어 올리겠다.”

라고 하였다. 한 부하는 무서워서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자마자 줄을 흔들었다. 또 어떤 부하는 거의 밑바닥까지 가서 줄을 흔들었다. 무사는 할 수 없이 자신이 내려가기로 했다. 그는 부하들과 달리 구멍의 끝까지 무난히 내려갔다.

구멍의 끝까지 내려가 보니 눈앞에 넓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중에 제일 큰 집이 아귀의 집이었다. 그는 아귀의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아귀의 집 우물결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조금 있으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오고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공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다. 공주는 물을 버리고 다시 길었다. 그는 다시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세 번 만에 공주는 머리를 저으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아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A “아귀의 집은 사나운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귀의 집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무사는 대답하기를,

“제가 젊었을 때 약간의 술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수박으로 변해 있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열 발자국 정도 물러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세 번 공중제비를 하더니 즉시 수박이 되었다. 공주는 그것을 치맛자락에 싸서 거침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찬장에 얹어 놓았다. 문지기는 공주의 치맛자락을 조사했지만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빈틈없는 아귀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하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크게 노하며 공주들을 불러 세워 꾸짖었다.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연한 얼굴로,

“그릴 리가 있습니까?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가 봅시다.”

라고 시치미를 떼었다. 아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

공주들은 독한 술을 빚어 놓고 아귀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공주들은 독한 술과 세 마리 돼지를 준비해 연회를 베풀었다.

“주인님의 병환이 나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시지요.”

공주들이 전에 없이 애교를 부리며 술을 권하자, 아귀는 마음이 흐뭇하여 걸러 놓은 독한 술을 모두 마셨다. 공주들이 아귀를 무릎에 눕혀 머리의 이까지 잡아 주었기 때문에 아귀는 이제 공주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 그러고는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라고 말했다.

㉠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아귀는 취한 상태에서 공주들의 칭찬을 듣자 의심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나라고 죽지 않겠는가. 나의 겨드랑이 밑에 비늘이 두 개씩 있는데, 그것을 떼어 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지. 하지만 이것을 뽀뽀 이 세상에 있을까? 하하하.”

아귀는 꺾꺾 웃다가 쓰러져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이때 한 공주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아귀가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도(粧刀)를 뽑아 들었다. 순간 칼이 ‘징징’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공주는 재빨리 아귀의 좌우 겨드랑이에서 녀 장의 비늘을 베어 냈다. 그러자 아귀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위로 솟아 찬장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며 몸에 붙으려 했다. 하지만 다른 공주가 준비해 둔 재를 목이 떨어진 곳에 뿌렸더니 아귀의 머리는 끝내 몸에 붙지 않고 땅에 나동그라졌고, 결국 아귀는 죽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① 무사는 공간 I에서 공간 II로 가기 위한 계책을 준비했다.
- ② 무사는 공간 II로 가기 위해 공간 I에서 형체를 바꾸었다.
- ③ ㉞는 출입문에 해당하며 아귀 부하들의 감시가 엄중하다.
- ④ 공간 II에서 여러 여인들은 아귀에게 꾸며 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공간 II는 독립된 하나의 작은 왕국으로 볼 수 있다.

12. [A]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주와 무사는 서로 공격하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 ② 공주와 무사는 각자의 신분을 밝히며 말을 시작하고 있다.
- ③ 공주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언급하며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무사는 자신의 목적을 알리며 공주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다.
- ⑤ 김원은 상황의 불가피성을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13. ㉞의 상황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자 성어는?

- ① 이이제이(以夷制夷)
- ② 차도살인(借刀殺人)
- ③ 주도면밀(周到綿密)
- ④ 수주대토(守株待兔)
- ⑤ 구밀복검(口蜜腹劍)

14.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시각에서 그리고 있다.
- ② 현재와 과거 장면이 빈번하게 교차되고 있다.
- ③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인공의 미래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천상의 남두성이었다가 옥황상제에게 죄를 얻은 김원은 좌승상 김규와 유씨 부인 사이에서 등근원(圓)으로 태어나고, 10년 만에 허물을 벗는다. 철마산에서 무예를 수련하던 김원은 아홉 개의 머리를 지닌 괴물 아귀를 만나서 싸우게 되나 아귀는 어디론가 사라진다. 세 공주가 아귀에게 납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김원은 공주들을 구할 것은 자청하고, 황제는 김원을 원수로 임명하고 5만 군사를 내어 준다. 김원은 아귀가 사는 지혈(地穴)에 이르

자 혼자서 침동우리를 타고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며칠 만에 아귀의 궁전 앞에 도착한 김원은 시냇가에서 빨래하던 여인을 만난다.

“비인(鄙人)은 대명 황제 딸이운데 팔자가 기박하여 흉악한 아귀에게 잡혀 들어와 이런 흉한 욕을 받으니, 벌써 죽고자 하였으나 모진 목숨이 천행으로 살았다가 부모를 다시 뵈옵고 그 날 죽어도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인하여 슬퍼함을 마지 아니하거늘, 그제야 공주인 줄을 알고 땅에 엎드려 아뢰기를,

“신은 대명국 도원수 김원이옵더니, 황명을 받자와 아귀를 잡아 죽이고 공주 세 분을 모시려고 이곳에 이르렀사오니, 저놈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피시어 대사를 성공하게 하소서.”

공주 이 말을 듣고 일변 놀라고 일변 기뻐하며 정신을 수습하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대답하기를,

“진실로 이 갑을진대 하늘의 해를 다시 보려니와 ㉞장군의 재주가 어떠한지 모르나 저놈의 조화가 무궁하니 어찌 제어하리오?”

원수 말하기를,

“아무케나 변신을 할 것이니 놀라지 마시고 소장의 변신한 것을 은밀하게 가져다가 그놈의 진위를 살피게 수건에 싸서 들여 가소서.”

하고 즉시 몸을 흔들여 변하여 작은 주먹만한 수박으로 변신하였다. 공주가 행여 수문장졸이 알까 두려워서 넋지시 수건에 싸 옆에 끼고 대아문에 다다르니, 수문장이 군사를 불러 분부하되,

“⑥대장군 분부에 아무 시녀라도 중문 출입에 몸을 뒤져보라 하여 계시니 명대로 출입을 자세히 살피라.”

하니, 문졸(門卒)이 일시에 달려들어 몸을 뒤지려 하였다.

㉞공주가 그릇을 땅에 놓고 붉은 치마를 떨치고 가로되,

“빨래하러 나온 시녀가 무엇이 몸에 있으리라 하느냐?”

수문장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고 들어가라 하거늘, 공주가 그제야 그릇을 옆에 끼고 안으로 들어가 아귀가 자는 협실에 놓았다. 원수가 그제서야 본 모습을 내어 문틈으로 엿보니, 아귀가 손에 비수를 들고 머리를 동이고 신음하는 소리가 우레 같고 아홉 입으로 숨쉬는 바람에 방문이 여닫히니 철마산에서 보던 것보다 더 웅장하였다. 이놈이 비록 흉악하나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며 귀신도 아니므로 또한 신낭(腎囊)<sup>1)</sup>이 없어 음양(陰陽)을 몰랐다. 상하 여인을 도적하여 시녀를 삼아 좌우와 거처에 위풍만 보이려 하고 곁에 두고 부리니, 여인이 삼천여 명이요, 나졸이 수십만으로서 되어 위엄이 제후의 나라보다 더하였다. 좌우의 궁전을 돌아보니 서편 마굿간에 준마 천여 필이 매여 있고, 동편 곳집에 금은 보화가 무수히 쌓였으니 천하에 이름없는 은근한 치국의 기틀이었다.

원수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되,

‘이놈을 세상에 머물러 두면 천하에 큰 근심이 되리라.’

백계(百計)를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달아 공주께 아뢰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안주를 장만하여 계교를 베풀리이다.”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어휘 풀이] 1) 신낭(腎囊) - 고환.

세 공주 여러 여자를 데리고 약속을 정한 후에, 십여 일이 지나매 원수가 여러 여자를 청하여 여차여차하게 계교를 갖추고 기다리라고 하였다.

이때 아귀가 칼에 상한 대가리가 거의 나오니, 모든 시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 병이 잠깐 나았으니 4, 5일 후 세상에 나가 남두성을 잡아 죽여 내 분한을 풀리라.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마음을 위로하라.”

여자 등이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각각 호주(胡酒)와 성찬(盛饌)을 가지고 권하기를,

“대왕의 상처가 나오시면 첩 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이 차도를 얻사오면 남두성 잡기야 무슨 근심하리오? 주찬을 대령하였사오니 다 드셔서 첩등의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아귀가 이 말을 듣고 술을 가져오라 하거늘, 여러 여자가 일시에 한 그릇씩 드리니, 아홉 입으로 권하는 대로 먹으니 그수를 알 수 없었다. 술이 반쯤 취하며 여러 여자가 거짓으로 위로하여 말하기를,

“장군은 잠깐 잠을 청하여 아픔을 잊으소서.”

아귀가 여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잠을 자려 하였다.

막내 공주가 아귀 곁에 앉아 말하기를,

“보검을 놓고 잠을 자소서, 취중에 보검을 한 번 휘둘러서 치면 잔명이 죄없이 상할까 하나이다.”

아귀가 말하기를,

“장수가 잠을 자나 칼을 어찌 손에서 놓으리오마는 혹 실수함이 있을까 하노니, 그 말이 고이하지 않으니 받아 머리맡에 세워 두라.”

하고 칼을 주었다.

공주가 칼을 놓고 아귀가 잠들기를 기다렸다. 아귀가 깊이 잠들었거늘, 비수를 가지고 협실로 나와 원수에게 잠들었음을 이르고 함께 후원에 이르러 큰 기둥을 가리키고 말하기를,

“원수의 칼로 저 기둥을 쳐 보소서.”

원수가 즉시 비수를 들어 기둥을 치니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공주가 크게 놀라서 말하기를,

“만일 그 칼을 찼더라면 성사도 못하고 도리어 큰 화가 미칠 뻔하였습니다.”

아귀가 쓰던 비수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 듯하였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공주와 함께 아귀가 자는 방에 이르러 문을 가만히 열고 들어가 공주에게 말하기를,

㉠“매운 재를 준비하였다가 아귀의 아홉 머리를 다 베어 내치거든 즉시 재를 온몸에 뿌리소서.”

약속을 정하고 비수를 메고,

“아귀야!”

하고 큰 소리로 불렀다 아귀가 잠을 미처 깨지 못하여 기지개 켜 때 자세히 보니 온몸에 비늘이 돋혀 있었다. 아귀가 잠을 깨지 못함을 보고 칼을 들어 아홉 머리를 치니 아귀의 아홉 머리가 일시에 떨어졌다. 여러 여자가 일시에 재를 끼치니 아귀인들 어찌하리오? 머리 없는 등신이 일어나며 대들보를 받으니 대들보가 부러졌다. 아귀가 한 식경이나 난동을 부리다가 거꾸러지거늘, 공주 등이 아귀가 죽었음을 보고 분분하게 치하하였다.

15. <보기>는 위 글의 근원 설화의 일부이다. <보기>를 위 글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달라진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무신은 도적의 집 밖 우물 곁에 있는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다가 막내 공주와 만나 자신이 세 공주를 구출하러 왔음을 밝혔다. 막내 공주가 사나운 문지기가 있어 도적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자, 무신은 수박으로 변하여 도적의 집으로 들어갔다.

마침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던 도적은 사람 냄새가 난다며 야단을 쳤으나 막내 공주는 태연하게 도적을 속였다. 막내 공주는 언니들에게 자초지종을 알린 후 독한 술을 만들며 도적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도적의 병이 낫자 공주들은 술을 권하며 도적의 양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버리면 도적이 죽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도적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무신은 수박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해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칼로 베어 냈다. 그러자 갑자기 도적의 머리가 떨어져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목에 붙으려고 하였고, 이 때 공주들이 재빨리 매운 재를 가져와 목에 뿌리자 다시 붙지 못하고 도적은 죽었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중에서

- ① 괴물이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심하는 장면은 뻘다.
- ② 주인공이 괴물의 머리를 직접 베는 것으로 고친다.
- ③ 공주들이 괴물의 약점을 확인하는 과정은 삭제한다.
- ④ 괴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 공주들이 기여하는 부분은 없앤다.
- ⑤ 괴물이 공격을 당한 후 저항하는 강도를 좀 더 강하게 그려낸다.

16. 뒷글이 <보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옛날 어느 곳에 한 여자가 괴물에게 납치당하자, 여자의 부모가 딸과의 결혼을 조건으로 용사를 구한다. 어떤 용사가 나타나 부하들과 함께 괴물이 있는 지하국으로 내려간다. 용사는 잡혀간 여자의 도움을 받아 괴물을 죽이고 납치된 사람들을 구하여 지상으로 올려 보낸다. 그러나 부하들은 용사를 지하에 버려둔 채 여자를 데리고 가 버린다. 용사는 신령의 도움으로 지상으로 나와 부하들을 처벌하고 여자와 혼인한다.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의 줄거리

- ① 주인공이 여자의 도움을 받는다는 설정은 그대로 수용하였군.
- ② 사건을 현실성 있게 전개함으로써 전기성(傳奇性)을 배제하였군.
- ③ 주인공의 국적과 신분을 제시함으로써 이야기에 구체성을 부여하였군.
- ④ 주인공이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다는 기본적인 서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하였군.
- ⑤ 작품의 배경으로 '지상'과 '지하'라는 두 공간을 설정한다는 기본 골격을 그대로 받아들였군.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임금님, 저의 집은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생명을 바쳐 그 은혜를 갚고자 합니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하여 오겠습니다.”

임금님은 이를 허락하고, 세 공주를 구하면 그 중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였다. 무신은 여러 하인을 데리고 아귀 귀신의 소굴을 찾아 출발하였다.

그러나 천하를 돌아다녔으나 귀신의 소굴이 어느 곳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하루는 어느 산모퉁이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깜빡 잠이 들었다. 꿈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네가 찾는 아귀 귀신의 소굴이 산의 저 쪽 산중에 있다. 그 산에 이상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들어내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있을 것이다.”

노인은 말을 마치자 사라졌다.

무신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꿈속의 노인이 말한 산까지 갔다. 거기에는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다. 무신은 하인들에게 튼튼한 새끼를 꼬게 하고, ㉠광주리 하나를 얹게 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누가 이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아귀 귀신의 동정을 살피고 오겠는가?”

하고 물었으나, 한 사람도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중략)

할 수 없이 무신 자신이 내려가기로 하였다. 그는 구멍의 끝까지 내려갔다.

그의 눈앞에 넓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제일 큰 집의 우물 곁에 있는 버드나무 위에 올라가 동정을 살폈다. 조금 있으니 어여쁜 아가씨가 물동이를 이고 그 집에서 나왔다. 그 아가씨는 막내 공주였다. 공주가 물을 길자, 무신은 나뭇잎을 한 줍 훑어서 물동이 위에 떨어뜨렸다. 공주는 물을 버리고 다시 길었다. 그는 다시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세 번만에 공주는 머리를 저으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 짹짹 놀라며 말하였다.

“당신은 윗세상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도적의 굴에 내려왔습니까?”

무신은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일을 얘기하였다. 그러자 공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귀신의 집 문에는 사나운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 도적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신은 공주의 귀에 대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저는 다른 물건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수박으로 변할 테니, 이렇게 이렇게 하여 주십시오.”

무신이 열 걸음쯤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수박으로 변하였다. 공주는 그것을 치맛자락에 싸서 문을 지나갔다. 문지기는 공주의 치맛자락을 조사하였으나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귀 귀신은

“사람냄새가 나니 웬일인가?”

하고 공주에게 야단을 치며 물었다. 공주는 태연하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하고 속였다. ㉡아귀 귀신은 마침 몸이 불편하여 누워 있었다.

공주들은 독한 술을 만들면서 도적의 병이 낫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에 공주들은 술을 거르고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벌였다.

“이제 병환이 나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시지요.”

공주들이 갖은 아양을 부리며 술을 권하자 도적은 마음이 흐뭇하여 걸러 놓은 술을 모두 마셨다. 그리고 공주들의 소원을 들어 주겠다고 하였다. 공주들은 속으로 기뻐하면서 도적이 더욱 우쭐대도록 칭찬하면서 말하였다.

“저희에게는 대감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감님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도 죽는 수가 있습니까?”

도적은 취한 상태에서 공주들의 칭찬을 듣자 의심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내 양 옆구리에는 비늘이 두 개씩 있는데, 그것을 떼어 버리면 죽지. 그러나 그것을 뽕 놔서 세상에 없지. 하하하하.....”

도적은 곁걸 옷다가 쓰러져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수박에서 다시 사람으로 변한 무신은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칼로 베어 냈다. 그러자 도적의 머리는 떨어져 천장으로 올라가다가 다시 목에 붙으려고 하였다. 공주들이 재빨리 매운재를 목에 뿌리자, 다시 붙지 못하였다.

공주들과 무신은 수일 만에 구멍 있는 곳까지 왔다. 광주리는 약속대로 있었다. ‘공주님들부터 구해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한 무신은 공주를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광주리에 태워서 줄을 흔들었다. 위에서 기다리던 하인들은 좋아라고 줄을 당겨 올렸다. 세 사람의 공주를 구해 올린 하인들은 최후의 광주리를 내려 보내 주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광주리 대신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다.

하인들은 공주를 데리고 임금님에게 갔다. 임금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하인들을 칭찬하였다.

무신은 떨어지는 바위를 피하여 죽음은 면하였으나, 구멍을 빠져 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 때 노인이 나타나 말 한 필을 주며 타라고 하였다. 무신이 말을 타자,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땅 위로 올라왔다.

공주들은 오랜만에 만난 부모와 이야기를 하느라 무신의 일을 잊고 있었다. 임금님은 약속대로 하인의 우두머리와 막내 공주를 혼인시키려고 큰 잔치를 열었다. 그 때, 무신이 들어와 임금님에게 지나온 일을 말하였다. 임금님은 하인들을 죽이고, 막내 공주와 무신을 결혼하게 하였다.

- 작자 미상,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17. 이 글에 대한 적절한 반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 ① 아귀 귀신을 찾아 헤매는 무신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의 심정이었겠군.
- ② 하인은 임기응변(臨機應變)으로 무신에게 새끼줄로 광주리를 만들어 주었군.
- ③ 아귀 귀신이 사람 냄새가 난다고 했을 때 공주는 여러박빙(如履薄冰)의 심정이었겠군.



- ④ 아귀 귀신의 병환 쾌유 잔치를 여는 공주들은 대단히 주도면밀(周到綿密)함을 지닌 인물들이군.
- ⑤ 무신은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심정으로 아귀 귀신의 비늘을 배웠겠군.

18. <보기>를 참조하여 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아귀 귀신의 공주 납치(A) → 무신의 등장과 무신의 아귀 귀신 행방 추적(B) → 무신이 지하 세계에 이름(C) → 무신이 아귀 귀신의 집에 잠입함(D) → 무신이 아귀 귀신을 죽이고 공주를 구출함(E) → 무신이 공주와 결혼함(F)

- ① (A)에서 (B)로 진전된 계기는 임금이 구출자를 공주와 결혼시킨다는 포상을 걸었기 때문이다.
- ② (B)에서 (C)로 진전된 것은 신령이 무신에게 지하 세계로 가는 길을 꿈에서 알려 주었기 때문이다.
- ③ (C)에서 (D)로 진전된 것은 무신의 능력과 막내 공주의 지혜가 결합되었기 때문에 얻은 결과이다.
- ④ (D)에서 (E)로 진전된 결정적 계기는 공주들이 잔치를 열어 도적을 방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 ⑤ (E)에서 (F)로 진전된 것은 구멍에 갇힌 것을 노인이 무신에게 말을 주어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19. ㉠의 기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묶은 것은?

**보기**

- ㉠ 주인공의 불우한 과거사를 노출시킨다.
- ㉡ 작중 상황의 긴박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 ㉢ 주인공의 대범성과 비범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 ㉣ 지하 세계가 현실 세계와 층위가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20. '잔치'에서 '아귀 귀신'에 대한 공주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21. 주인공이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조력자가 때마침 등장하는 장면과 ㉠을 관련지어 설화의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지하국에 아귀가 살고 있었다. 그 아귀는 종종 세상에 나와 세상을 요란케 하고 예쁜 여자를 도적질해 가기도 하였다. 어느 때는 아귀가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납치해 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해 아귀를 잡아 오도록 묘책을 강구하였으나 대책을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얼마간 지나서 어떤 무사가 그 일을 맡겠다고 자청하였다.

“임금님, 저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저에게 아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 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 오겠습니다.”

왕은 이를 허락하고, 세 공주를 구해 오면 그중 막내 공주와 결혼시키겠다고 하였다.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아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그는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아귀의 소굴이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 없었다. 하루는 무사가 어느 산모퉁이에서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깜박 잠이 들었는데, 머리가 하얀 노인이 꿈에 나타나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아귀의 소굴은 저쪽 너머 산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커다란 바위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별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아귀의 세계인 것이다.”

무사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커다란 바위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부하들에게 명하여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하나 짚도록 했다. 그리고 부하들을 향해,

“누가 먼저 광주리를 타고 내려가서 아귀의 동정을 살피고 오겠는가?”

라고 물었으나 한 사람도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내려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만일 도중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줄을 흔들라. 그러면 줄을 끌어 올리겠다.”

라고 하였다. 한 부하는 무서워서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자마자 줄을 흔들었다. 또 어떤 부하는 거의 밑바닥까지 가서 줄을 흔들었다. 무사는 할 수 없이 자신이 내려가기로 했다. 그는 부하들과 달리 구

명의 끝까지 무난히 내려갔다.

구멍의 끝까지 내려가 보니 눈앞에 넓고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중에 제일 큰 집이 아귀의 집이었다. 그는 아귀의 집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고, 아귀의 집 우물곶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조금 있으니 한 아름다운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으러 오고 있었다. 그 여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공주 중의 한 사람이었다.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다. 공주는 물을 버리고 다시 길었다. 그는 다시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세 번 만에 공주는 머리를 저으면서, 나무 위를 쳐다보고 깜짝 놀라며 말하였다.

“당신은 이 세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아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 지금까지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이렇게 말하였다.

“아귀의 집은 사나운 문지기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귀의 집으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무사는 대답하기를,

“제가 젊었을 때 약간의 술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지금 수박으로 변해 있을 테니 이렇게 이렇게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열 발자국 정도 물러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세 번 공중 제비를 하더니 즉시 수박이 되었다. 공주는 그것을 치맛자락에 싸서 거침없이 집 안까지 들어가 찬장에 얹어 놓았다. 문지기는 공주의 치맛자락을 조사했지만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빈틈없는 아귀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찌 된 것이냐?”

라고 말하며 코를 킁킁거리더니 크게 노하며 공주들을 불러 세워 꾸짖었다.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연한 얼굴로,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마 몸이 불편하셔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시치미를 떴었다. 아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

공주들은 독한 술을 빚어 놓고 아귀의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공주들은 독한 술과 세 마리 돼지를 준비해 연회를 베풀었다.

“주인님의 병환이 나아졌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시지요.”

공주들이 전에 없이 애교를 부리며 술을 권하자, 아귀는 마음이 흐뭇하여 걸러 놓은 독한 술을 모두 마셨다. 공주들이 아귀를 무릎에 눕혀 머리의 이까지 잡아 주었기 때문에 아귀는 이제 공주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준다고 생각하며 아주 기뻐했다. 그러고는

“오늘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하신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아귀는 취한 상태에서 공주들의 칭찬을 듣자 의심하지 않고 대답해 주었다.

“나라고 죽지 않겠는가. 나의 겨드랑이 밑에 비늘이 두 개씩 있는데, 그것을 떼어 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지. 하지만 이것을 뭘 놓이 이 세상에 있을까? 하하하.”

아귀는 껄껄 웃다가 쓰러져 코를 골면서 잠이 들었다. 이때 한 공주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아귀가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도(粧刀)를 뽑아 들었다. 순간 칼이 '징장'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공주는 재빨리 아귀의 좌우 겨드랑이에서 넉 장의 비늘을 베어 냈다. 그러자 아귀의 머리가 몸에서 떨어져 위로 솟아 찬장에 붙었다가 다시 떨어지며 몸에 붙으려 했다. 하지만 다른 공주가 준비해 둔 재를 목이 떨어진

곳에 뿌렸더니 아귀의 머리는 끝내 몸에 붙지 않고 땅에 나동그라졌고, 결국 아귀는 죽었다.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전기적(傳奇的)인 요소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다.
- ③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민담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④ 평범한 능력을 지닌 주인공이 강자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고 있다.
- ⑤ 선악의 이분법적 대결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23. 다음 <보기>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런 곳에 들어왔습니까?”

한량은 그가 온 이유를 말하였다. 여자는 다시 놀라면서,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러나 대적은 무서운 장수이므로 죽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라 오십시오.”

하고 한량을 킁킁한 도장 속에 감추고 커다란 철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한량 앞에 놓으면서,

“당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들어 보십시오.”

하였다. 그는 겨우 그 철판을 들어 올렸다.

“그래서는 도저히 대적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여자는 도적의 집에 있는 동삼수(童蔘水)를 매일 몇 병씩 가져다 주었다. 그는 그 동삼수를 날마다 먹었다. 그래서 필경은 대철퇴(大鐵髓) 돌을 양손에 쥐고 자유로이 사용하게 되었다. 어떤 날 여자는 큰칼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대적이 쓰는 것입니다. 대적은 지금 잠자는 중입니다. 그놈은 한번 자기 시작하면 석달 열흘씩 자고, 도적질을 시작하여도 석달 열흘 동안 하며, 먹기는 석달 열흘 동안씩 먹습니다. 지금은 자기 시작 한 뒤로 꼭 열흘이 되었습니다. 이 칼로 그놈의 목을 베십시오.”

하였다. 한량은 좋아라고 여자를 따라 대적의 침실로 들어갔다. 대적은 무서운 눈을 뜬 채 자고 있었다. 한량은 도적의 목을 힘껏 쳤다. 도적의 목은 끊어진 채 튀어서 찬장에 붙었다가 도로 목에 붙고자 하였다. 여자는 예비하여 두었던 매운 재를 끊어진 목의 절단부에 뿌렸다. 그러니까 목은 다시 붙지 못하고 대적은 마침내 죽어 버렸다.

- ① 윗글과 <보기>는 모두 여인의 도움으로 대적(아귀)을 물리친다.
- ② 윗글과 <보기>는 모두 주인공이 대적(아귀)을 물리치고 있다.
- ③ 윗글과 <보기>는 모두 대적(아귀)을 물리치기 위해 '재'를 활용하고 있다.
- ④ 윗글과 달리 <보기>는 여인이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 ⑤ 윗글과 달리 <보기>는 주인공의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24.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지하국 대적 퇴치담 옛이야기의 환상성 요소들은 본질적으로 독자들의 즐거움과 쾌감을 자극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이다. 이 옛이야기들은 옛사람들의 행복과 가난, 폭력적 권력 집단에 아내를 빼앗기는 고난, 삶의 문제 해결방식 면에서 환상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가난하고 힘없는 남성들이 권력 집단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상황에서 민중들은 권력자들을 일그러진 괴물로 형상화하고, 환상적 해결방식을 통하여 그러한 현실을 폭로하고 해결함으로써 이뤄질 수 없는 꿈을 낭만적으로 그려낸 것으로 이해된다. 우리는 이러한 옛이야기에서 옛사람들의 삶의 양상 및 꿈을 이해하고, '환상'의 다양한 기법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독자들은 지하국 대적 퇴치담 유형의 다양한 옛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문학의 즐거움을 즐기고, 덧붙여 회복·도피·위안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 ① 독자들은 환상적 해결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대리만족을 느꼈겠군.
- ② 무사는 민중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볼 수 있고, 아귀는 부정적인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무사가 아귀로부터 세 공주를 구출한다는 내용은 권력자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권력자들 횡포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현실적 요소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세 공주가 아귀의 비늘을 베어 낸다는 환상적 방식을 통해 남성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적극적 여성상을 드러내고 있군,

1) ④ 민담은 흥미를 본위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간적·공간적 배경이 제시되지 않으며 비현실적인 배경과 사건으로 구성된다. 또한 민담의 주인공들은 대개 일상적인 인간으로,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도 이를 극복하고 운명을 개척한다. 이러한 민담의 특성에 부합하는 설명은 ④이다.

오답정리

① 한량은 고귀한 혈통을 타고났거나 본래 비범한 능력을 지니고 있던 인물이 아닌, 평범한 인물이다. 그는 본래 힘이 부족하여 동삼수를 먹으며 힘을 기르고, 여인의 도움을 받아 대적을 퇴치한다. ② 지상 세계에서 지하 세계로 공간적 배경이 바뀌었을 뿐, 하나의 서사 구조 속에 또 다른 내부 서사가 액자처럼 끼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③ 지상에 사는 존재는 인간이므로 유한한 존재이며, 지하엔 쉽게 죽지 않는 대적이 사는 불멸의 존재가 사는 세계이다. ⑤ 지하국의 대적 모티프가 우리 고전의 여러 작품에서 차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재했던 사실은 아니다.

2) ① 제시문의 아름다운 여인은 지하국의 대적에 의해 납치당했으나, <보기>의 '안드로메다'는 거대한 바닷뱀에게 제물로 바쳐지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딸을 잡아간 도적이 어디 있는지도 여인의 부모가 알 수 없었다는 데서, 이 글의 여인은 국가의 안녕을 위해 사악한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사악한 존재에게 납치당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오답정리

② 여성을 납치하거나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성이 인격적으로 대우받지 못했음을 암시한다. ③ 사악한 존재를 퇴치하는 한량과 페르세우스는 영웅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영웅의 등장은 사람들의 소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한량은 여인의 도움을 받아 도적을 퇴치하지만, 페르세우스는 스스로의 힘으로 괴물을 퇴치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⑤ 제시된 두 작품은 영웅적인 인물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인을 구하고 결혼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3) ① 한량은 자신의 힘이 약함을 알고 물러나서 동삼수를 먹고 힘을 기르며, 여인은 한량을 도와서 용감하게 도적과 싸우는 인물이므로 연약하고 섬세한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남자 주인공은 부드러우면서도 내면이 강한 성격으로, 여자 주인공은 적극적이고 대담한 인물로 그리는 것이 적절하다.

4) ③ 3인칭 서술자의 시각으로 된 이 작품을 '한량'이라는 등장 인물의 시각으로 바꾸어 야외 세트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렇다면 처음에 한량은 조그마한 구멍을 통해서 지하 세계를 내려다 보게 되며(㉠), 지하 세계에 내려와서는 버드나무 위에서 여자를 바라보게 된다(㉡), 그 후에 한량은 도적의 침실에서 자고 있는 도적을 바라보게 되며(㉢), 지하 세계를 떠나면서 지하에 있는 큰 구멍의 아래에서 지상을 올려다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순서로 카메라를 이동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오답정리

한량이 대적의 집 지붕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에는 카메라를 배치할 수 없다.

5) ⑤ 한량이 버들잎을 한 줌 훑어서 물동이 위에 뿌린 것은 한량이 여자와의 첫 만남에서 여자를 놀라지 않게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하는 행동이다. 이러한 행동이 세 번 반복되면서 이야기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더욱 재미있어진다.

오답정리

① 단순히 여자가 어떠한 반응을 취하는지를 알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② 한량은 여자를 구출하러 온 것인지 희롱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③ 한량이 물 깬 여자가 과연 자신이 찾는 여자인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었다고 여길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물동이에 지나치게 많은 물을 담았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6) ㉠ ㉡ ㉢ ㉣은 [마]와 [다]의 연관인데 [마]에서는 말 그대로 '통과'라는 말이 있고 시험을 치르는 장면이 있어 '통과의례'가 성립되나 [다]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7) ㉠ ㉡ ㉢ ㉣은 '사기'에 나오는 말로 고려 후기 만적의 난 때 원용되기도 하였다. 아이의 부모는 자신들과 같은 평민 집안에서 장사가 나면 그 신분적 제약으로 인해 왕후장상이 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신을 주체하지 못해 역적이 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하여 미리 후환을 없애고자 한 것이다. 이는 패배주의적 발상인데 평민이라도 얼마든지 장상의 반열에 오른 경우를 생각했다면 그리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8) ㉠ ㉡ '아무 날 아무 시 아무 곳'이라는 요소는 시공간적 배경을 중시하는 서사 경향,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장치 등으로 본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자연 재해의 측면으로 보는 것은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자연 재해가 유독 한 사람만을 겨냥할 수 없기 때문이다.

9) ㉠ ㉡ 사신이 무사를 도와주는 것같이 아무런 이유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면 드라마나 영화 중 상당수가 사라졌을 것이다. [라]에서 가져오고자 하는 모티프도 식상한 것이기는 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문제는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0) ㉠ ㉡ ㉢ ㉣은 두 행위의 결과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삼돌이의 협박은 결국 김판서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빼앗는 결과를 낳고 허물을 버린 행위는 딸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일 수 있다. 그러나 김판서와 딸이 구성상 동렬일 수 없다는 점에서 상관성이 가장 떨어진다. 삼돌이의 협박은 갑분이와 입분이의 설정에 따른 필연적인 것으로 설화 수용의 측면에서 본다면 추가적인 요소이다.

11) ⑤

12) ④

13) ⑤

14) ④

15) ㉠ ㉡ [각색의 효과 파악] <보기>에서는 막내 공주가 중심이 되어 도적의 약점을 알아내고, 도적의 목이 다시 붙으려 하자 급히 매운 재를 가져와 뿌리는 등 도적을 제거하는 데 공주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이며 공헌을 한다. 이 글에서도 공주가 아귀를 죽일 때 아귀의 검을 쓰라고 조언해 결정적인 기여를 하므로, 공주들이 기여하는 부분을 없앤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① <보기>에서는 도적이 집안에서 사람 냄새가 난다며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오나, 이 글에서는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의

심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보기>에서는 도적의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칼로 베어내자 도적의 머리가 떨어지나, 이 글에서는 김원이 직접 칼을 들어 아귀의 아홉 머리를 베고 있다. ③ <보기>에서는 공주들이 도적에게 술을 권하며 옆구리에 있는 비늘을 떼어버리면 도적이 죽는다는 약점을 알아내지만, 이 글에서는 그러한 과정이 삭제되어 있다. ⑤ <보기>에서는 무신의 공격을 받고 도적의 머리가 다시 목에 붙으려 하는데 그치지만, 이 글에서는 머리를 잃은 도적의 몸이 대들보를 부르뜨리며 한 식경 동안 난동을 피우고 있다.

16) 갈래 맥락 중심 작품 이해 답 ②

<보기>에서 여자가 괴물에게 납치당하고, 지하국에 괴물이 살고, 용사가 신령의 도움을 받아 지상으로 나오는 것 등은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 글에서도 지하국이 있고, 괴물이 등장하고, 원수가 산호 채찍으로 치니 아귀의 무리가 땅에 붙고 떨어지지 않는 등 비현실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오답피하기

- ① <보기>와 이 글 모두 주인공이 여자에게 도움을 받는다.
- ③ 이 글에서는 김원이 대명 대사마 대장군 천하 병마도 총 독 대원수라고 하여 주인공의 국적과 신분을 밝히고 있다.
- ④ <보기>와 이 글 모두 주인공이 부하들에게 배신을 당한다.
- ⑤ <보기>와 이 글 모두 지상과 지하 두 공간을 설정하고 있다.

17) [답] ② [해] ②는 '무신은 하인들에게 튼튼한 새끼를 꼬게 하고, 광주리 하나를 얻게 하였다.'와 배치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피하기] ③의 '여리박빙(如履薄冰)'은 '살얼음을 밟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무신이 변한 수박을 치마 밑에 숨겨서 문을 통과하자 귀신이 의심의 발언을 한 상황을 잘 나타낸 말이므로 적절하다. ④의 '주도면밀(周到綿密)'은 '주의가 두루 미처 자세하고 빈틈이 없다'는 뜻으로 공주가 귀신의 쾌유를 축하하는 잔치를 열고 독한 술에 취하게 한 후 귀신이 자신의 결정적 약점을 털어 놓게 하여 무신이 귀신을 죽일 수 있도록 도왔으므로 적절하다. ⑤ '건곤일척(乾坤一擲)'은 '주사위를 던져 승패를 건다'는 뜻으로, 운명을 걸고 단판결이로 승부를 겨루는 말이므로 무신이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나타낸 반응이다.

18) [답] ① [해] (A)에서 (B)로 진전된 계기로 구출자 무신의 등장은 '대대로 국록(國祿)을 받고 있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함에 있지 공주와의 결혼이라는 포상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피하기] ②는 '피곤한 몸을 잠시 쉬고 있는 동안에 깜박 잠이 들었다. ~ 나는 이 산의 산신령이다. 네가 찾는 아귀 귀신의 소굴이 산의 저 쪽 산중에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은 '무신이 열 걸음쯤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수박으로 변하였다. 공주는 그것을 치맛자락에 싸서 문을 지나 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는 '이제 병환이 나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와, 술에 취하게 하여 귀신의 약점을 발설하게 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는 '구멍을 빠져 나갈 방법이 없었다. 그 때 노인이 나타나 ~ 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땅 위로 올라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 [답] ⑤ [해] ㉠(광주리)은 현실 세계인 지상 세계에서 귀신의 세계인 지하 세계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매개물이므로 층위가 다르다는 ㉡는 적절하다. 또한 지하국은 하인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곳인데 바로 그곳으로 무신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므로 ㉢의 '작중 상황의 긴박감을 고조한다'는 진술도 적절하다. 하인들이 모두 무서워 지하로 내려가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 무신이 단번에 내려갔으므로 ㉣의

'주인공 대범성과 비범성을 드러내는 역할'도 적절하다.

20) [예시답안] 아침하는 말로 대상의 교만함을 자극한다. 대상의 장점을 부추겨 방심하도록 한다. [길잡이] "이제 병환이 나았으므로 즐거운 마음에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노시지요.", "저희에게는 대감님과 함께 사는 것 외에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감님같이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도 죽는 수가 있습니까?"에서, 공주가 대적에게 아침하는 말과, 대상의 장점을 부추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적의 교만함을 자극하고 방심하도록 하여 스스로 자신의 치명적 약점을 폭로하게 하는 말하기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1) [예시답안] 사건의 발생과 해결이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 전개되는 (사건 전개의 필연성이 부족한) 설화의 특징을 드러낸다. [길잡이] 설화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가 필연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고 우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조력자의 시의적절한 등장뿐만 아니라 우물 곁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곧바로 무신이 찾는 공주가 나타나는 장면도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2) ① [해] 상징적 소재를 통해 사건을 암시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 ② 산신령이 꿈에 나타나 도움을 주고 주인공이 수박으로 변신하는 등의 전기적 요소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③ 뒷글은 민담으로 흥미 위주의 이야기이다. ④ 주인공은 '어떤 무사' 평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다. ⑤ 지하국은 '악학(악인)'의 공간이고 지상은 '선인(무사)'의 공간으로 '선인(무사)'이 지하국 대적을 퇴치한다는 내용에서 권선징악의 주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23) ② [해] 뒷글에서는 세 공주가 대적(아귀)을 물리치고 있고, <보기>에서는 주인공이 대적(아귀)을 물리치고 있다. [오] ① 뒷글에서는 공주의 도움으로 대적(아귀)의 집에 들어오고, 세 공주가 아귀를 물리치고 있다. <보기>에서도 여인의 도움으로 힘을 키우고 대적(아귀)를 물리치게 된다. ③ 뒷글과 <보기>는 모두 아귀의 목이 다시 붙지 못하도록 '재'를 활용하여 막고 있다. ④ 뒷글과 달리 <보기>에서는 "당신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들어 보십시오."를 통해 여인이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뒷글에서는 주인공이 '수박'으로 변신하는 변신 모티프가 나타나는 반면에 <보기>에서는 주인공의 다른 대상을 변신하는 변신모티프가 나타나지 않는다.

24) ⑤ [해] 세 공주가 아귀의 비늘을 베어 내는 것은 권력자의 힘을 상징하는 대상을 제거하는 것으로 폭력성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적극적 여성상은 <보기>에서 그 의미를 유추해낼 수 없다. [오] ① <보기>에서 독자들은 지하국 대적 퇴치담 유형의 다양한 옛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 문학의 즐거움을 즐기고, 덧붙여 회복·도피·위안을 경험한다고 했으므로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남성들이 권력 집단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환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무사'는 가난하고 힘 없는 '민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아귀'는 부정적인 권력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무사가 '아귀'로부터 세 공주를 구하는 것은 권력자들의 폭력성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다. ④ 무사가 '산신령'의 도움을 받는 것, '수박'으로 변신하는 등의 비현실적 요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남성들이 권력 집단에게 빼앗긴 아내를 되찾아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출제요소

작품의 이야기 구조(인물 소개-출신, 이름→행적)와 교화적 목적을 숙지해둔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김천 작품해설

[핵심성리]

- \* 갈래 : 효행록.김천속모
- \* 성격 : 유교적.교훈적
- \* 배경 : ▶시대적/고려 때
- ▶공간적/고려 명주(지금의 강릉)와 몽고(원나라)
-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 주제 :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행
- \* 특징
- ①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삽화와 함께 실린 이야기이다.
- ② 국가의 무능이 백성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이면적으로 보여준
- ★ [작품의 궁극적 의도는 아님]
- ③ 시간적 공간적으로 순차적 진행으로 이루어진 작품
- \* 의의 : 유교의 기본인 충.효.열의 본보기를 통해 교훈을 얻고자 했다.

[주요인물관계도]

아버지(김종연) 어머니

- 호장 관직
- 강릉의 유지

어머니

- 현모양처,유식한 여인
- 호장 벼슬의 김자릉의 딸

김천의 아내

- 축선 딸, 고진사의 둘째 딸
- 현명하고 조신한 처자

김천=아명(해장)

- 용모가 뛰어나고 풍채가 좋음

덕린

- 김천의 동생
- 어머니와 함께 몽고군에 납치되어 감

해랑

- 객사 유씨 외동딸
- 해장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고, 어머니를 모시고 귀국할 수 있게 도와 줌
- 마지막에 덕린과 함께 고려로 도망 옴

■ 부차적 인물군

- ▶ 김순: 정선에 사는 김천의 친구, 어머니의 편지를 전해 줌
- ▶ 습상: 몽고에 장사하러 다니는 무역상. 김천의 어머니 편지를 가져옴
- ▶ 효연스님: 김천이 몽고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줌
- ▶ 효지: 효연스님의 형, 사신으로 몽고를 왕래

- ▶ 유씨: 몽고인, 객사를 운영 김천이 머물면서 도움을 받음
- ▶ 공명: 몽고에 사는 고려사람,충연의 소개로 김천에게 통역 도움을 줌
- ▶ 요좌: 몽고인, 김천어머니를 노비로 부리고 있음, 사리사욕이 강함.

[ 이해와 감상 ]

해장 즉 김천의 이야기는 <고려사> 열전에 기록되어 있다.기구한 운명의 김천(해장)가족이야기로 효도를 주제로 다룬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뒷면에는 고려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해서 백성들은 도외시하고 저희들은 평온한 삶을 사는 동안 무고하게 몽고에 끌려가 종살이하는 부모형제를 구해오기 위해 속량전을 마련해야 하는등 민초의 삶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았던 과거의 뼈아픈 역사를 엿볼수 있는 작품이다  
김천은 대몽항쟁기의 대표적인 효자로서 명성이 높았으며『고려사(高麗史)』효우(孝友) 열전에 입전되어 있다.

◆ 해설

이 작품은 '김천'의 효행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 '김천속모'와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포로로 잡혀 있는 어머니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노력하는 김천의 모습을 통해 '효'라는 유교적 덕목이 형상화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 요점정리

- (1) 갈래 : 고전소설(?)
- (2) 주제 : 어머니에 대한 효성
- (3) 특징
- \* 인물의 행적을 서사적으로 진행함
- \* '어떤 아'와 '김천'의 행적을 대비해 효행을 강조함.
- \* 임진왜란 이후 피폐해진 도덕의식을 바로잡고자 쓰여짐.
- \* 인물의 덕행을 찬양하고 유교적 사회 규범을 긍정함.

몽고군이 고려 땅을 짓 밟아온 지 무려 스무 해가 넘을 무렵이었다. 고려 조정은 백성들은 아랑곳없이 천혜의 요새 강화도로 천도하여 평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백성들은 몽고병들에게 슬한 시달림을 당하고 때로는 죽음을 당했다.

어머니가 몽고 병에게 끌려간 지 15년이 흘렀다. 어느 날 밤 해장은 해괴한 꿈을 꾸었다. 생전 보이지 않던 어머니가 나타나 자기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것이었다.

"해장아! 어미를 모르겠느냐?"

해장은 깜짝 놀라 잠이 깨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갔다. 어머니는 보이지 않고 보름달이 휘영청 추녀 끝에 걸려 있었다.

'휴우... 아무래도 이상하구나.'

㉠ 어머니께서 살아 계시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을 설치고 뒤척였다. 어머니의 부름 소리가 아직 귀에 쟁쟁했다. 아내가 부시시 눈을 뜨고 뒤척이는 남편에게 물었다.

"나쁜 꿈을 꾸었어요?"

"좋은 꿈이요, 허나 꿈은 꿈일 뿐이요."

"황금덩이라도 만져 봤나요?"

"쓸데없는 소리, 어머니를 보았소."

"어머님을요?"

아내도 숙연해졌다.

"살아계신 것 같소. 꿈이 그것을 예시해 준 것 같소."

"설마요. 15년 동안이나 소식이 끊긴 분이예요. 너무 깊이 생각지 말아요."

그 후 해장은 볼 일이 있어 명주 장에 나갔다. 볼 일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정선에 사는 친구 김순(金純)을 만났다.

"해장이 마침 잘 만났네. 그렇잖아도 자네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네."

"나를? 급한 일이라도 있었는가?"

"암, 급하다마다."

"무슨 일이야? 사람 속태우지 말고 말해보게."

"자네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어머니가 살아 계시네."

"이 사람 순공. 자네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는 걸 내가 몰라서 이러나?"

"이 사람아, 자네 어머니가 몽고 땅에 살아 계시단 말야."

"아니 뭐?"

해장은 며칠 전 선명하던 꿈이 생각나서 몹시 긴장되었다. 김순은 편지를 해장에게 주며 말했다.

"정선 쪽에서 명주로 들어오는 주막에서 점심을 먹을 때였네. 몽고에서 왔다는 습성(習成)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명주 땅 김천을 아는 사람이 있느냐고 외치는 것일세. 나는 귀가 번쩍 트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김천의 친구라고 했지. 그랬더니 동경(몽고의 서울)에 있는 자네 어머니의 편지를 갖고 왔다는 거야. 나는 그 편지를 빼앗다시피 하여 자네를 만나러 오는 길일세."

"고마우이 친구."

김천과 김순은 길가 풀밭에 앉아 편지를 읽었다.

'해장아, 어미는 살아 있으나 죽은 목숨과 같구나. 가족들이 보고 싶어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단다. 나는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북주라는 곳에서 장(長)씨 집의 노비로 있단다. 낮에는 김매고 밤에는 방아 찧고 하루도 쉴새 없이 일하지만 이 어미는 배가 고파 피골이 상접해 있단다. 그러나 어찌 생사조차 알 수 있단 말이나. 네 동생도 살아서 역시 남의 집 종노릇을 하고 있단다. 이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무슨 말머락이나. 전쟁에 진 백성의 비참한 실정을 글로 어찌 너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암담하구나. 너를 한 번만 보고 눈을 감으면 원이 없겠다. 맞을 뻔하다가 맞지 못한 내 머느리도 보고 싶구나. 그러나 ㉡ 꿈에서나 갈 수 있는 내 고국 내 고향 내 집이라. 바라서 무얼 하겠느냐...

'해장은 죽은 줄로 알고 있던 어머니의 편지를 대하고, 대성통곡을 터뜨렸다. 이 가혹한 운명을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지 설움만이 복받칠 따름이었다.

"이보게 해장이, 기운을 내게. 이제 어머님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하지 않겠나."

"떠나야지. 떠나지 말고..."

그러나 기막힐 노릇이었다. 가난뱅이로 전락하여 땡전 한 푼 없었던 것이다.

돈이 있어야 어머니와 동생을 속량(贖良)해 올 수 있었다. 그렇다고 앉아서 마냥 기다릴 수도 없었다. 해장은 부지런히 일 하여 돈을 모으고,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한 1년 모은 돈이 백 냥 정도 되었다. 해장은 우선 개경으로 올라갔다. 금나라로 가는 길을 알아보기 위해서 였다 몽고에 가는 월국장(여행권)은 천도한 강화도에 가서 내야했다. 몽고와 고려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여 월국장이 나오기는 힘들었다. 무역상 외에 일반 백성들은 하늘을 별따기 였다. 여기 저기 몽고에 갈 방법을 알아보고 일단 고향으로 돌아왔다.

-효자 김천-

속량(贖良): 빚, 사람이나 물건을 값을 쳐서 교환.

월국장: 지금의 비자발급

1. 위 글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역사적 배경을 통해 사건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② 인물들의 가치관 갈등이 대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③ 계층 간의 갈등이 사건 전개 중심이 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작품 속의 등장인물과 일치한다.
- ⑤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통해 시대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2. ㉠의 상황에 가장 잘 어울리는 한자성어는?

- ① 비몽사몽(非夢似夢)
- ② 전전반측(輾轉反側)
- ③ 좌불안석(坐不安席)
- ④ 여러박빙(如履薄冰)
- ⑤ 호접지몽(胡蝶之夢)

3. ㉡의 어머니가 불렀음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노라 삼각산야 다시 보자 한강수야  
고국산천을 떠나고자 하라만은  
시절이 하 수상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 ② 쭈(애나 님을 불러 잠 일울가 누엇더니  
식벽 달 지식도록 자규성(子規聲)을 어이허리  
두어라 단장춘심(斷腸春心)은 너나 너나 달으리.
- ③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이라도 천리로다  
우리는 각재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한

④  
꿈은 고향(故乡) 가건마는  
나는 어이 못가는고  
꿈아 너는 어느사이 고향만리 먼먼길을  
지척(咫尺)같이 다녀왔뇨 /

⑤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더뇨.  
산평이 알을 품고 뼈꾸기 제철에 울건만

4. <보기>를 참고하여 '독자'와 '작자'의 대화를 구성해 보았다. 타당하지 않은 내용은?

독자는 소설을 읽으면서 떠오른 의문을 갖고 가상적인 공간 속에서 작자와 끊임없이 대화하게 된다. 이 때 독자 스스로 설정한 작자가 만족스런 답을 했을 때에는 수긍하고 수용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불만을 품고 하게 된다.

- ① 독자 :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에 나타난 사건이 짜임새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우연성이 배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② 작자 :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점에 유의해서 사건 전개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우연성에 의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 ③ 독자 : 그렇군요. 우연성을 남발하지는 않은 것 같군요. 그건 그렇고 김천이라는 인물의 성격이 행동을 통해 잘 드러난 반면 김천의 아내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다룬 느낌이 있군요.
- ④ 작자 : 그렇게 보셨습니까? 김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또, 일반적으로 전쟁이라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남성들이 좀더 적극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 ⑤ 독자 : 그래도 평소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으며, 어떤 마음으로 절개를 지켜 왔는가 하는 점에 대해 암시되어 있어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참 보기 좋군요.

5. 꿈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새로운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 ② 부부가 사이가 소원해지는 계기가 된다.
- ③ 비현실적 공간을 통해 사건의 추이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시대와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⑤ 사건을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반전시키는 계기가 된다.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의 두릉동(杜陵洞)은 드룽담 또는 효자리라고도 부르는데, 이 마을에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사연이 전해온다. [고려사] 김천(金遷)은 명주 아전이며 어릴 때 이름은 해장이다(金遷, 溟州吏, 小字海莊). 고려시대 고종말년 몽고군이 명주 땅까지 침입하였다. 이 때 김천의 어머니와 동생 김덕린이 몽고군의 포로가 되었다. 당시 김천의 나이는 불과 15세였다. 그는 포로로 끌려간 어머니와 동생을 찾으며 밤낮없이 울고 지내다 포로가 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도중에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장례를 치루었다.

그 후 14년이 지났을 때 백호(百戶) 습성(習成)이란 사람이 원나라에서 돌아와 시장에서 "명주 사람 있소" 라고 외치며 3일이나 돌아다녔다. 마침 정선사람 김순(金純)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명주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습성은 김순에게 "김씨라는 여자가 동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원래 명주사람인데 해장이란 아들있소'(有女金氏吊京云, '我本溟州人, 有子海莊).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당신은 해장을 아는가?"하고 물었다. 김순은 김천은 내 친구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습성은 김순에게 편지를 해장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는 몽고에 포로로 끌려간 김천의 어머니가 김천에게 보낸 편지였다.

어머니의 편지를 본 김천은 통곡하였다. 김천은 식사를 할 때에도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는 속전(贖錢)을 내야했으나 가난한 김천에게는 재물이 없어 이웃사람에게 은을 꾸어 개경으로 올라왔다.

그는 조정에 모친을 찾으러 가겠다고 신청했으나 조정은 허가하지 않아 되돌아와야 했다.

충렬왕이 원나라로 갈 무렵에 김천은 또 다시 개경에 와서 청하였으나 조정의 결정은 지난번과 같았다. 김천은 오랫동안 개경에 머물면서 옷은 헤어지고 식량도 떨어져 우울하게 지내던 중 길에서 같은 고을 스님 효연(孝緣)을 만나 눈물을 흘리며 슬픈 사정을 하소연 하였다.

효연은 "내 형 천호(千戶) 효지가 이번에 동경에 가니 당신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요. 내가 주선하리다." 하고 형에게 김천을 소개하였다. 김천은 효지를 따라 동경에 들어가서 고려의 통역 별장 공명(孔明)과 함께복주 천노채로 가서 모친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곳은 원의 군졸 요좌(要左)의 집이었다. 한 노파가 나와서 맞이하는데 누더기 차림새가 형편없었고 얼굴에는 때가 덕지덕지 묻었다. 김천은 그 노파가 자기 어머니인줄 몰랐다. 공명이 "당신은 어떤 사람이나?"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나는 본시 고려 명주 땅 호장 김자릉의 딸인데 동생인 김용문은 이미 진사 급제하였고 나는 호장 김종연에게 출가하여 해장과 덕린 두 아들을 두었는데 덕린은 나를 따라 이곳에 와서 있는지 이미 19년이 되었소. 지금 서쪽 이웃에 사는 백호 천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소. 오늘 뜻밖에 다시 우리나라 사람을 보게 되었구려"

김천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자신이 해장임을 밝혔다. 그러자 어머니는 김천의 손을 쥐고 울면서 "네가 진정 내 아들 이냐? 나는 네가 죽을 줄만 알았구나." 라고 하였다. 요좌가 마침 집에 없어서 김천은 어머니를 속신하지 못하고 동경으로 가서 별장 수룡(守龍)의 집에 한 달이나 유숙하다가 수룡과 함께 요좌 집에 가서 속신(贖身)을 요구하였으나 요좌는 거절하였다. 김천이 애걸복걸 하여 은 55냥으로 겨우 속신하였다. 김천은 동생 덕린도 만났다. 그러나 가지고 온 돈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은 속신시킬 수 없었다. 김천은 어머니를 말에 태우고 돌아오기 시작했다. 동생 김덕린은 동경까지 배웅하러 와서 울었다.



이 때 중찬 김방경(金方慶)이 원나라로부터 고려로 돌아오는 길에 동경에 이르렀다. 동경에는 김천의 이야기가 고려인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었다.

김방경은 김천 모자를 불러보고 칭찬과 감탄을 하고 원나라 관부에 부탁하여 증명서를 만들어 주어 식사와 숙소 이용에 도움을 주었다. 명주 가까이 왔을 때 김천의 아버지 김중연이 이 소식을 듣고 진부역까지 마중 나와 부부가 서로 기뻐하였다. 김천이 술잔을 들어 올리고 통곡을 하니 좌중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김자흥은 나이 79세였는데 딸을 보고 어찌나 기쁘던지 땅에 엎어졌다. 그 후 6년이 지나 천로의 아들이 김덕린을 데리고 왔으므로 김천은 빛을 얻어 86년을 주고 아우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켰다. 김천은 부지런히 일을 하여 몇 해 안가서 빛도 다 갚고 아우 덕린과 함께 종신토록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다.

6.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독자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의도로 쓰였군.
  - ② 삼강의 덕목 중 부위자강과 관련이 있어.
  - ③ '결초보은(結草報恩)'이라는 한자성어가 생각나는군.
  - ④ 조선 사회가 효를 중시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유교적 이념을 계승하려는 지배층의 의도가 엿보이는군.

7. 이 글에 드러난 '김천'의 행실과 관련된 것을 세 가지 고르시오.
- ① 부위부강(夫爲婦綱)      ② 부자유친(父子有親)
  - ③ 반포보은(反哺報恩)      ④ 혼정신성(昏定晨省)
  - ⑤ 맥수지탄(麥秀之嘆)

8.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중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
  - ② 고려 시대의 유교적 사회 규범을 충실하게 담고 있다.
  - ③ 천민 계급에서 행실이 모범적인 인물을 택하여 그 덕행을 찬양하였다.
  - ④ 삼강의 모범이 되는 충신, 효자, 열녀의 덕행을 문자로만 기록하였다.
  - ⑤ 작품 창작의 사회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교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9.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대적 배경이 나타난다.
  - ②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였다.
  - ③ 새로운 윤리적 바탕을 확립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④ 전쟁 속에서 고통 받는 민중의 삶을 알 수 있다.
  - ⑤ 한문으로 적고 한글로 풀이하였으며 내용을 그림으로 그렸다.

10.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임진왜란 이후의 사회 상황 및 가치관을 보여준다.
  - ② 골계적(滑稽的), 서사적(敘事的), 교훈적(教訓的) 내용을 보인다.
  - ③ 17세기 국어 표기상의 특징을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 ④ 타락, 피폐해진 도덕심 회복과 고양이라는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다.
- ⑤ 삽화, 한문, 한글을 활용하여 다양한 계층이 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11. 이 글의 주제와 관계없는 한자성어는?
- ① 풍수지탄(風樹之嘆)      ② 혼정신성(昏定晨省)
  - ③ 반포지효(反哺之孝)      ④ 부자유친(父子有親)
  - ⑤ 거안제미(擧案齊眉)
12.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답 2개)
- ① 그림과 한문에 이어 한글 풀이를 덧붙임으로써 조선 초기 우리말의 모습과 표기 방식을 살필 수 있다.
  - ② 당대 국가가 추구한 성리학적 사회 윤리가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두루 미쳤다고 볼 수 있다.
  - ③ 당대 사회가 가치관이나 풍속, 생활성 등을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 ④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여 보존하기 위한 의도로 간행되었다.
  - ⑤ 유교적 덕목에 비추어 칭송할 만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보(李甫)는 용안현 사람이니, 그 아버지 태방(台芳)이 고치기 힘든 병[악질(惡疾)]을 얻어 거의 죽게 되니 구완하여 치료해도 효험이 없어 밤낮으로 울고 있는데, 꿈에 어떤 중이 일러 말하되 산 사람의 뼈를 먹으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했다. 이보가 즉시 놀라서 깨어 손가락을 베어 약을 만들어 드리니 아버지의 병이 즉시 나았다.

14. 위 글의 출전인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617년에 유근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속편이다.
  - ② 한문으로 적고 한글로 풀이했으며,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문 내용에 그림을 덧붙였다.
  - ③ 본받을 만한 행적이 있는 사람이라도 신분과 계층의 차별을 두어 기록하였다.
  - ④ 임란 후 피폐한 국민 도의를 회복하고 유교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편찬하였다.
  - ⑤ 신라, 고려, 조선의 충신, 효자, 열녀의 사적을 수록하고 그 덕행을 찬양하였다.

15. 위 글과 관련된 삼강의 덕목을 4음절의 한자어로 쓰고, 위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10자 이내로 쓰시오.

16. 위 글의 주제와 관련된 시조는?

- ① 아버님 날 나흐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두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실가.  
하늘같은 가 업슨 은덕을 어데 다허 감사오리.
- ② 동지(冬至)스달 지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어  
춘풍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른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퍼리라.
- ③ 한 몸 둘헤 나누어 부부를 삼기실샤.  
이신 제 함께 늙고 주그면 한데 간다.  
어디셔 망녕의 것이 눈 눈 흘기려 하난고.
- ④ 江湖(강호)에 녀름이 드니 草堂(초당)에 일이 업다  
有信(유신)한 江波(강파)난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몸이 서날해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⑤ 이런들 엇더하며 저런들 엇더하료  
초야우생(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더하료  
하물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을 곳쳐 무슴하리.

17. 다음 중 위 글의 내용과 가장 관련이 깊은 작품은 무엇인가?

- ①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느다  
유자(柚子) 안이라도 품엄죽도 헛다마는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로 설워 헛느이다  
-박인로-
- ② 뉘라셔 가마귀를 검고 흥(凶)타 하듯던고,  
반포보은(斑布報恩)이 그 아니 아름다운가,  
사람이 저 새만 못함을 못내 슬허하노라.  
-박효관-
- ③ 오백 년(五百年) 도읍지(都邑地)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산천(山川)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디 업다.  
어즈버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길재-
- ④ 방(房) 안에 헛는 燭(촉)불 늘과 離別(이별) 하엿관데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줄 모로는고  
더 燭(촉)불 날과 갖하야 속 타는줄 모로노라.  
-이개-
- ⑤ 뭇버들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의손대  
자시는 창 밖에 심어 두고 보쇼셔  
밤비에 새 님 곳 나거든 날인가도 너기쇼셔  
-흥랑-

- 1) ①
- 2) ④
- 3) ⑤
- 4) ③
- 5) ③
- 6) ③
- 7) ②, ③, ④
- 8) ③
- 9) ③
- 10) ②
- 11) ⑤
- 12) ②, ④
- 13) ⑤
- 14) ③
- 15) 부위자강,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한다.
- 16) ①
- 17) ①

출제요소

가전체 소설의 특징, 의인화를 통한 인물의 비판적 시각을 숙지한다. 난해한 어휘, 어구의 풀이를 숙지한다.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국선생전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이규보는 이 작품을 통해 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빛어지는 덕과 패가망신의 인간관계를 군신 사이의 관계로 옮겨놓고 그 성패를 비유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주인공 국성을 신하의 입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유생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신하로서 군왕을 보필하여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의도였다.

신하는 군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게 되면 자칫 방자하여 신하의 도리를 잃게 되어 국가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기 쉽고, 마침내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굳게 지켜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국선생은 비록 미천한 몸이지만 성실히 행동해서 관직에 등용되었고, 또 총애가 지나쳐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난 뒤에 후회할 줄 알았으며, 국난을 당해서는 백의 중군하였다.

이를 통해서, 이 작품은 사회적 교훈을 강조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곧 안으로 무신의 난과 밖으로 몽고군의 침입에 희생된 고려 의종, 고종 연간의 난국에 처하여 분수를 망각한 인간성의 결함과 비정(非情)을 풍자한 계세징인의 목적으로 씌어진 작품이다.

■ 핵심정리

- \* 연대 : 고려 중엽
- \* 작가 : 이규보
- \* 형식 : 가전체, 의인체 전기
- \* 성격 : 교훈적, 풍자적
- \* 특징 : 의인화 기법
- \* 구성 : 전기적(傳記的) 구성
- \* 주제 : 위국 충절의 교훈(계세징인), 위국 충절과 신하로서의 올바른 처신에 대한 권계
- \* 출전 : 동문선

■ 줄거리

주인공인 국성(魏聖-맑은 술)은 주천 고을 사람으로 아버지는 차이고, 어머니는 곡씨의 딸로서 어려서 서막의 사랑을 받아 그가 이름을 붙여주었다.

국성은 어려서부터 이미 깊은 국량이 있어 손님이 그의 아버지를 찾아왔다가 눈여겨 보고 이 아이의 심기가 만경의 물과 같아서 맑게 해도 더 맑지 않고, 뒤흔들어도 흐려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자라서는 유령, 도잠과 더불어 친구가 되었으며, 임금도 국성의 향기로운 이름을 듣고 총애하였다. 그리하여 임금과 날로 친근하여 거슬림이 없었고, 잔치에도 함부로 노닐었다. 그러자 그의 아들 삼형제 흑(酷-טיפ탄한 술맛의 형용), 포(계명주-차좁쌀로 빚은 술), 역(쓰고 진한 술)이 아버지의 총애를 믿고 방자히 굴다 모영(붓을 의인화한 것)의 탄핵을 받았다. 이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자살했고, 국성은 탈직되어 서인으로 떨어졌으나 뒤에 다시 기용되어 난리를 평정함에 공을 세웠다. 그뒤 스스로 분수를 알아 물러나 임금의 허락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 죽었다.

사신이 말하기를 '국씨는 대대로 농가 출신인데, 국성이 순후한 덕과 재주로 임금의 심복이 되어 나라 정사를 짐작하고, 임금의 마음을 윤택하게 함에 있어 거의 태평한 경지의 공을 이루었으니 장하도다!'고 하였다.

■ 본문 감상

국성(魏聖-맑은 술, 술을 의인화한 호칭)의 자(字)는 중지(中之:곤드레)니, 관향(시조가 난 땅)은 주천(酒泉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주나라에 있던 땅 이름)고을 사람이다.(이는 고대 문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으로서 이야기가 시작되기 앞서, 인물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요약적 제시이다. 이러한 전기적(傳記的) 형식이 고대 소설에서는 상투적으로 사용되었다.) 어려서 서막(徐邁 : 중국 진나라 사람, 술을 좋아하여 국법에서 금하는 밀주를 만들어 마셨다고 함)에게 사랑을 받아, 막(邁)이 이름과 자를 지어 주었다.(성을 서막이 지어주었다고 한 것은 태평광기(太平廣記)의 서막 설화 중 淸酒爲聖人 濁酒爲賢人'에서 연유하였으며 자 중지는 '국순전'의 '以其聖人之德 時復中之'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의 먼 조상은 본시 온(溫)이라는 고장의 사람으로 항상 힘써 농사를 지으면서 자급(自給)하면서 살고 있었는데(누룩은 따뜻한 온도에서 잘 뜨기 때문에, 온(따뜻할 온)이라는 고장에서 살았다는 말),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에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손의 일파가 정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증조(曾祖)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부 모(牟 : 보리의 의인화)는 살림을 주천(酒泉)으로 옮겨, 이때부터 주천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차(醜 술의 의인화)에 이르러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평원독우(平原督郵 : 郵(우)를 '憂로 바꾸면 '근심없이 하는 벼슬'이란 뜻이며, '청주 종사의'靑州를 '淸酒'로 바꾸면, '술마시는 것을 일삼아서 한다는 뜻이 된다. 평원도 격현에 있으므로, '평원독우란 격상(명치 위치)에 머물러 숨이 막히는 좋지 못한 술을 의미하며, 청주는 제군에 있으므로 '청주종사는 제하(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잘 넘어가는 술을 말한다.)의 직을 역임하였고, 사농경(司農卿 : 한나라 때 구경의 하나로 미곡과 전적을 관장하던 관직) 곡(穀)씨의 딸과 결혼하여 성(聖)을 낳았다.

⇒국성의 가계와 출생

성(聖)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여, 아버지의 손님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그를 사랑하였다(괴임을 받았다). 손님들이 말하기를 "이 아이의 도량(마음과 그릇)이 출렁출렁 넘실넘실 만경(萬頃)의 물결과 같아서, 가라 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뒤흔들어도 탁해지지(흐리지) 않으니 우리는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성(聖)과 함께 기뻐함이 좋네(즐기는 것이 낫겠소)."

성이 자라서, 중산에 사는 유영(위진 시대의 죽림칠현 중의 한 사람. '주덕송(술의 덕을 찬양)을 지음, 심양에 사는 도잠(도연명의 본명)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물루(몸을 얹매는, 세상의 온갖 괴로움)가 생긴다(술을 좋아하여 매일 마신다)." 라고 하며, 만날 때마다 해가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

해하였고, 기쁨을 잊고 문득 마음에 취(醉)하고야 돌아왔다.

⇒ 국성의 성품과 교유

국가에서 조구연(糟丘椽)을 시켰으나, 미처 나아가지 못하였고, 또 나라에서 청주 종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위에서 명하여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목송(目送 : 눈짓)하여 말하기를, "저 군이 주천(酒泉)의 국생(國生)인가. 짐(朕)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기를, "지금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낸다 하더니."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聖)이 이른지라, 임금이 또한 이로써 더욱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곧 주객 낭중(主客郎中)벼슬을 시키고, 이윽고 국자재주(國子祭酒)로 올려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되었다.

무릇 조회(朝會)의 잔치와 종조(宗朝)의 제사, 천식(薦食), 진작(進酌)의 예(禮)에 임금이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기국)이 듬직하다 하여 승진시켜 승정원 재상으로 있게 하고 (후설(喉舌: 목구멍과 혀)의 직에 두고), 우례(優禮 : 융숭한 대접)로 하여 매양 들어와 출입할 적에도 교자(轎子)를 탄 채로 전(殿 : 대궐)에 오르라 명하며(술이 상에 차려져 황제의 연희에 올려짐을 은유적으로 표현),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國先生)이라 일컬었다.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성(聖)이 들어와 보면 임금은 비로소 크게 웃으니 무릇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 국성에 대한 임금의 사랑과 특별 대우

(중략- 생략된 부분 줄거리)

국성은 미천한 존재로서 출세하나, 국정을 어지럽힌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이 일로 죄를 입어 그의 세 아들은 자살하고 성(聖)도 연좌되어 서인이 되기까지 한다. 성(聖)은 야인으로 있으면서도 국란이 일어나자 출정하여 희생 정신을 발휘하고 공을 세운다. 그리하여 벼슬을 받았으나, 상소하고 물러나와 제 본분을 지킨다.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늦게까지 지키는 절개)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나간다.(見機而作 - 견기이작 : 사태나 현상을 미리 짐작하여 파악한 뒤에 행동과 실천을 수행해 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사기열전의 형식을 본뜬)

▣ <국순전>과 <국선생전>의 차이점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임춘의 <국순전>과 마찬가지로 술(누룩)을 의인화의 대상으로 하였지만 그 주제는 다르다.

<국순전>은 도량과 인품을 갖추고 있는 국순이 방탕한 군주에게 등용되었다가 세상을 어지럽히고는 은퇴해서 곧 죽었다는 내용으로, 정

사를 돌보지 않는 군주까지 비판하면서 술로 인한 폐해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에 <국선생전>의 국성은 도량이 크고 성품이 어질며 충성이 지극한 긍정적 인물로 서술되었다. 국성이 '국선생'이라 불린 점이라든가, 만년까지 제 본분을 지키고 화평한 삶을 누린 것이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두 작품은 술의 내력, 성질, 효능 등을 사람의 개성, 기질, 욕구 등으로 의인화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거나, 사건 구조와 인물형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

	국순전	국선생전
차이점	요사하고 아부하는 정객들을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미천한 몸으로 성실히 행동했기 때문에 등용되었고 총애가 지나쳐 잘못을 저질렀지만 물러난 후 반성하고 근신할 줄 아는 인간의 모습을 그림
인물	문약과 방탕한 무리 ⇒ 부정적	위국충절의 대표적 인물 ⇒ 긍정적
공통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술을 의인화함</li> <li>* 제목에서부터 시작하여 관련 인물과 지명, 서술 방식 등이 유사함</li> <li>* &lt;국선생전&gt;은 이보다 앞서 나온 &lt;국순전&gt;의 영향을 받았음</li> </ul>	

러한 차이 가운데서 술의 효능과 가치를 훨씬 긍정적으로 표현한 쪽은 물론 이규보의 <국선생전>이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국성(國聖)의 자(字)는 중지(中之)이니, 주천(酒泉) 고을 사람이다. 어렸을 때 서막(徐邈)에게 사랑을 얻어 그의 이름과 자(字)는 모두 서막이 지어 주었다. 그의 조상은 애초에 ㉠ 온(溫)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는데,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에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손의 일파가 정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증조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부 모(牟)는 살림을 주천(酒泉)으로 옮겨 이때부터 주천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차(醜)에 이르러서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가 평원독우(平原督郵)의 직을 역임하였고, 사농경(司農卿) ㉡곡(穀)씨의 따님과 결혼하여 성(聖)을 낳았다.

(나) 성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여, 아버지의 친지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의 도량이 만 이량의 물과 같아서, 가라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흔들어 보더라도 탁(濁)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자네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함이 좋네.”

성이 자라서 ㉢중산(中山)에 사는 유영, 심양에 사는 도잠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비루하고 인색함이 싹튼다.”라고 하며, 만날 때마다 해가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설설해 하였다.

(다) 나라에서 성에게 조구연(槽丘椽)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자, 또 청주 종사(淸酒從事)로 불렀다. 공경(公卿)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하니 임금께서 조서(詔書)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 보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주천(酒泉)의 국생인가? 내가 그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라고 하셨다.

(라) 곧 주객 낭중(主客郎中) 벼슬을 시키고, 이윽고 국자 제주(國字祭酒)로 올려 예의사(禮儀使)를 겸하니, 무릇 조회(朝會)의 잔치와 종조(宗主)의 제사·천식(薦食)·진작(進酌)의 예(禮)에 임금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는지라, 위에서 기국이 등직하다 하여 올려서 후설(喉舌)의 직에 두고, ㉥우례(優禮·용숭함)로 대접하여 매양 들어와 빌 적에 교자(轎子)를 탄 채로 전(殿)에 오르라 명하며, 국선생(魏先生)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성(聖)이 들어와 보면 임금은 비로소 크게 웃으니, 무릇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마)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졌고 특히 임금과는 조금도 스스럼없이 가까워졌다. 자연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따라다니면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놀았다.

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혹(酷)과 폭( )과 역(醜)이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이다. 이들은 그 아버지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바) 중서령(中書令) 모영(毛穎)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했다. 모영은 곧 붓이다. 그 글은 이러했다.

“행신(幸臣)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히 벼슬 계급이 3품에 올라서,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아파합니다. 이자야 말로 국가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옵고, 실상 만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둑이입니다.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제 아버지가 폐하의 총애 받는 것을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횡행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성도 죄를 받아 서인(庶人)으로 폐해졌다. 한편 치이자(鴟鴞子)도 성과 친하게 지냈다 해서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중략>

(사) 사신(史臣)이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이었는데, 성이 유독 넉넉한 것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다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政事)에 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시절의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禍)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침내 천수(天壽)로 세상을 마쳤다. 『주역(周易)』에 ㉦‘기미(幾微)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聖)이야말로 이에 가깝다 하겠다.

1. 이 글과 같은 장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어떤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전기(傳記)의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 ② 창의성이 상당히 가미된 허구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소설의 출발로 보기도 한다.
- ③ 특정한 사물의 모양을 인간에 빗대어 소개하고 용도와 바른 활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우화적 수법을 이용하여 사물이나 경험을 통해 얻은 이치를 풀이하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 ⑤ 사물의 가계(家系)와 생애 및 개인적인 성품, 공과(功過) 등이 기록되어 실전(實傳)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불렸다.

2.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설화와 소설의 교량적 역할을 했다.
- ② 사물의 속성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 ③ 계세징인(戒世懲人)을 목적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도덕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④ 다양한 표현 기법과 치밀한 구성으로 예술성과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나다.
- ⑤ 한 인간의 내력을 기록하는 전기(傳記)의 형식을 빌려 인간사를 풍자하였다.

3. 대체로 이와 같은 글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되는 내용은?

- ① 인물의 외양(外樣)                      ② 인물의 가계(家系)
- ③ 인물의 성품(性品)                      ④ 인물의 행적(行蹟)
- ⑤ 인물에 대한 평론(評論)

4. <보기>는 이 작품에 대한 작자 자신의 사평(史評)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측할 때, 국성이 말년에 불렀음직한 시조로 적절한 것은?

**보기**

국씨는 본래 한미한 농가의 소생으로 가신하여 국사에 기여했으며, 제왕의 마음을 윤택하게 하여 태평성대를 이루는 데 공이 컸으나, 과분한 은총을 입고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혀 그 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쳤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원한도 없이 물러나 자성하였고, 만년에는 분수를 지킬 줄 알았으며 천수로 세상을 마쳤다. '기미로 보아 이루어 나간다. 즉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라는 주역의 기록과 부합되는 바가 있느냐?

- ① 공명을 즐겨 마라 영육이 반이로다  
부귀를 탐치 마라 위기를 뽏느니라  
우리는 일신이 한가커니 두려운 일 업세라
- ② 눈 마즈휘여진 턱을 뉘라셔 굽다던고  
구불 절(節)이면 눈 속에 프를소나  
아마도 세한 고절(歲寒孤節)은 너썸인가 흐노라
- ③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한흐노라  
주려 죽을진들 채미(採薇)도 흐는것가  
비록애 푸새엿 거신들 그 뉘 싸헤 낫드니
- ④ 간밤의부던 바람에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다 기우러 가노리라  
흐물며 못 다 핀 곳이야 닐러 무슴 흐리요.
- ⑤ 북천(北天)이 뽏다커늘 우장엄씨 길을 난이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춘비로다  
오늘은 춘비 맛짓시니 얼어 잘까 흐노라

5. 이 글에 나타난 주인공 '국성'의 성격을 바르게 말한 것은?

- ① 충직하다                      ② 완고하다                      ③ 영악하다
- ④ 너그럽다                      ⑤ 냉소적이다.

6. ㉠을 통해 글쓴이가 드러내고자 하는 국성의 인물됨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인간 세상을 혐오하고 자연에 귀의하는 인물
- ② 물불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물
- ③ 자신의 비위에 맞으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싫어하는 인물
- ④ 주변을 살피고 행동하여 다른 사람의 뜻을 거스리지 않는 인물
- ⑤ 사태나 현상을 미리 짐작하여 순리에 따라 바르게 처신하는 인물

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성은 슬하에 모두 세 아들을 두었다.
- ②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 ③ 성은 임금과 잔치 자리에서 함께 놀았다.
- ④ 성은 벼슬에서 떨어지고 평생을 고통 받았다.
- ⑤ 성의 아들들의 경솔한 처신으로 탄핵을 받았다.

8.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것은?

- ① 국성의 가계                      ② 국성의 품성
- ③ 국성의 행적                      ④ 국성의 출세
- ⑤ 국성의 몰락

9. 이 글의 궁극적인 집필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역사적 인물에 대해 예찬하고자 한다.
- ② 술의 해독에 대해 일깨움을 주고자 한다.
- ③ 잘못된 음주 문화의 폐해를 알리고자 한다.
- ④ 위국충절의 이상적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한다.
- ⑤ 인간 관계에서의 술의 역할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10. 이 글을 읽고 감상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영 : 인물들의 대화를 분석해서 그들이 지닌 교양이나 취미를 밝혀 보려고 해.
- ② 나영 : 술을 의인화한 이 작품이 궁극적으로 전달하려는 교훈적 의미를 살피려 해.
- ③ 다영 : 전(傳)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허구화 과정에 주목하여 작품을 분석하고자 해.
- ④ 자영 : 고려 말엽의 사회적 현실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해.
- ⑤ 하영 : 사건이나 인물을 대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통해 지은이의 창작 동기를 살피려 해.

11. <보기>의 내용으로 보아,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을 창작한 의도로 알맞은 것은?

**보기**

\* 도(道)라는 이름의 진리는 물(物)이라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검증해야 한다.  
 \* 물이 도의 기준이며, 현실이 중요하다.  
 \* 물이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할 따름이지, 조물주(造物主)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 이규보, <문조물(問造物)>

- ① 사물에 대한 인간의 실증적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 ② 사물에 앞서는 인간 존재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 ③ 사물을 만들어 낸 조물주의 존재를 강조하고자 한다.
- ④ 사물과 사람 간의 관계 설정의 어려움을 상기시키려 한다.
- ⑤ 사람과 사물은 그 본질적 속성에 있어 동등함을 지적하고 있다.

12. 작품을 소설로 개작하기 위한 토의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태훈 : 국성이 어린 시절 막에게 사랑 받은 이유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좀더 높이면 어떨까?
- ② 현주 : 국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구체적 사건이 없는 것 같아. 논리와 재치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넣어 국성의 비범함을 보여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 ③ 미란 : 갈등 양상이 없어 재미가 없어. 국성과 대립하는 새로운 인물을 설정해서 사건 전개에 박진감을 넣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④ 기찬 : 한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면서 우의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너무 진부해. 주인공은 실제 살았던 역사적 인물로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 ⑤ 동연 : 임금이 국성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너무 우연적이야. 위기에 처한 임금을 구해 주는 내용을 넣어 임금의 총애하게 되는 구체적 계기를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13. 다음 <보기>와 이 글의 내용을 살핀 후의 반응으로, 절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한 작품이다. 중국 위진 시대를 무대로 주인공 국순은 처사(處士)로 귀인 공자(貴人公子)와 항상 자리를 같이하여 주변을 타락시켰다. 진 후주(後主) 때 등용되어 급기야 세상을 어지럽히고 은퇴하여 이내 폭사하고 말았다.

- ① 둘 다 가전체 작품이군.
- ② 동일한 시대를 무대로 삼고 있어.
- ③ ‘국순전’은 술의 긍정적 측면을 살피고 있네.
- ④ ‘국순전’은 술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 ⑤ 두 작품은 결국 인간과 술의 관계를 문제 삼고 있구나.

14. 다음 중, 의인화된 대상이 잘못 연결된 것은?

- ① 국성 - 맑은 술
- ② 모(牟) - 보리
- ③ 차(醪) - 흰 술
- ④ 조구연(糟丘椽) - 독한 술
- ⑤ 모영(毛穎) - 붓

15. 서로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끼리 묶인 것은?

- ① 모 ↔ 차
- ② 유명 ↔ 도잠
- ③ 공거 ↔ 교자
- ④ 공경 ↔ 후설
- ⑤ 평원 독우 ↔ 청주 증사

16. (바)에서 ‘모영’이 상소를 통해 말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임금의 욕심을 자극하여 회유하고 있다.
- ② 국성에 대한 신뢰감을 내비치며 설득하고 있다.
- ③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며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④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 ⑤ 국성에 대한 애정을 보이거나 사회적 통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7. ㉠~㉥의 문맥적 의미로 바르지 못한 것은?

- ① ㉠ : 곡물로 만들어진 누룩은 따뜻한 온도에서 잘 뜨기 때문에 조상들이 따뜻한 고장에서 살았다는 뜻임.
- ② ㉡ : 누룩과 곡물로 술을 만들었다는 뜻임.
- ③ ㉢ : 성이 학문하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벗 삼았다는 뜻임.
- ④ ㉣ : 하루 종일 술을 마셨다는 뜻임.
- ⑤ ㉥ : 임금에게 술을 권했다는 뜻임.

18. (라)의 ‘국성의 아들’의 행위를 가리키는 적절한 속담을 쓰시오.



19. '좋은 술'과 '나쁜 술'을 각각 비유한 말은?

20. 이 작품의 영향을 받은 작품은?

21. ㉠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되는 두 가지 일에 대해 쓰시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국성(龜聖)의 자는 중지(中之)니 바로 주천(酒泉)에 사는 사람이다.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지란 곧드레만 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서막(徐邈)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를 지어 주기까지 했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흩어져 살기도 한다. 국성의 증조(曾祖)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 않다. ㉡조부 모(牟)가 주천이라는 곳으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아버 차(釵)는 벼슬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처음 하는 벼슬이었다. 차란 흰 술을 뜻한다. 차는 평원 독우(平原督郵)<sup>1)</sup>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곡씨(穀氏)의 딸과 결혼해서 성(聖)을 낳았다.

▶ 국성의 가계 소개

[나]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 마지 만경(萬頃)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성이 자라서 중산(中山)의 유령(劉伶)<sup>2)</sup>, 심양(瀋陽)의 도잠(陶潛)과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 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튼다.”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 국성의 도량과 교우 관계

[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糟丘椽)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 종사(青州從事)<sup>3)</sup>로 불러, 공경(公卿)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었다. / “지금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냅니다.” /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 국성의 정계 진출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라]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 낭중(主客郎中)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 제주(國子祭酒)로 옮겨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했다. /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증묘의 제사·천식(薦食)·진작(進酌)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承政院)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뵈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다. / 원래 성은 성질이 구수하고 아량이 있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과 친근해졌고, 특히 임금과는 조금도 스스럼없이 가까워졌다. 자연 임금의 사랑을 받게 되어 항상 따라 다니면서 잔치 자리에서 함께 놀았다.

▶ 국성의 대한 임금의 총애

[마] 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혹(酷)과 폭( 폭)과 역(醜)이다. 혹은 독한 술, 폭은 진한 술, 역은 쓴 술이다. 이들은 그 아버지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중서령(中書令) 모영(毛穎)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sup>4)</sup>했다.

▶ 국성의 세아들의 방자한 행동

[어휘 풀이] 1) 평원 독우(平原督郵) : 평원 독우의 郵를 憂로 바꾸면 '근심 없이 하는 벼슬'이란 뜻. 평원은 격현(隔縣)에 있으므로 '평원독우'란 '격상(隔上 : 명치 위)'에 머물러 숨히 막히게 하는 좋지 않은 술을 의미함 2) 유령(劉伶) : 위, 진 시대 죽림칠현의 한 사람. '주덕송(酒德頌)을 지은 애주가 3) 청주 종사(青州從事) : '청주 종사'의 青州를 淸酒로 바꾸면 '술 마시는 것을 일삼는다.'는 뜻이 되며, 青州는 제군(齊郡)에 있기 때문에 '청주 종사'는 제하(臍下 : 배꼽 아래)까지 시원하게 잘 넘어가는 좋은 술을 의미함. 옛날 환온에 주부란 사람이 있었는데, 술을 식별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하며, 그는 맛이 좋은 술은 '청주 종사'라하고, 맛이 좋지 못한 술은 '평원 독우'라 불렀다고 함 4) 탄핵 : 공직에 있는 사람의 부정이나 비행 따위를 조사해 그 책임을 추궁함

22. 이 글의 특징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직설적 표현
- ② 구어체 문장
- ③ 개성적 인물
- ④ 전기적(傳記的) 구성
- ⑤ 치밀한 심리 묘사

23. 다음 중, 이 글에 사용된 주된 표현 기법과 동일한 것은?

- ① 건곤(乾坤)이 폐식(閉塞)하여 빅설이 훗 빗친 제 사름은키니와 놀새도 굿쳐 있다. 쇼상 남반(瀟湘南畔)도 치오미 이러커든 옥누 고쳐(玉樓高處)야 더욱 날러 므삼 흐리. 양춘(陽春)을 부쳐 내여 님 거신 디 쏘이고져. 모침(茅簷) 비친 히를 옥누(玉樓)의 올리고져.
- ② 시아버니 호랑새요 / 시어머니 귀중새요 / 동세 하나 할림새요 / 시누 하나 뽕족새요. / 시아지비 뽕중새요 / 남편 하나 미련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새요 / 자식 하난 우는 새요 / 나 하나만 썩는 썰세.

- ③ 척(尺) 부인이 탄식하고 이르되, “매정한 것은 사람이요, 공 모르는 것은 여자로다. 의복 마를 제는 먼저 찾고 다 이루면 자기 공이라 하고, 게으른 종 잠 깨우는 막대는 나 곧 아니면 못 칠 줄로 알고 내 허리 부러짐도 모르니 어찌 야속하고 노엽지 않으리오.”
- ④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 | 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一到滄海)하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하니 쉬어 간들 엇더리.
- ⑤ 놀보 심사를 불작시면, 초상난 데 춤추기, 불붙는 데 부채질, 해산한 데 개닭잡기, 장의 가면 억대 흥정, 우는 아희 불기치기, 갓난아희 똥먹이기, 무죄한 놈 뺨치기, .....

24. ㉠ ~ ㉣을 사물의 속성과 연관시킬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 ① ㉠ : 누룩은 따뜻한 온도에서 익혀야 한다.
- ② ㉡ : 물이 맑은 지역에서 좋은 술이 나온다.
- ③ ㉢ : 누룩에 곡식을 섞어야 술이 만들어진다.
- ④ ㉣ : 임금이 조상께 제사를 드릴 때 술을 올린다.
- ⑤ ㉤ : 술을 마시면 임금의 기분이 좋아진다.

25. ㉤와 상대적 의미로 쓰인 말을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바] 모영은 곧 붓이다. 그 글은 이러했다.

“행신(倖臣)<sup>1)</sup>이 폐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천하 사람들은 모두 병통<sup>2)</sup>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성이 조그만 신임을 받고 조정에 쓰이고 있어 요행히 벼슬 계급이 3품에 올라서, 많은 도둑을 궁중으로 끌어들이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해치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분하게 여겨, 소리치고 반대하며 머리를 앓고 가슴아파합니다. 이 자야말로 국가의 병통을 바로잡는 충신이 아니옵고, 실상 만백성에게 해독을 주는 도둑이옵니다. 더구나 성의 자식 셋은 제 아비가 폐하께 총애 받는 것을 믿고, 제 마음대로 세상에 횡행<sup>3)</sup>하고 방자하게 굴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들에게 모두 사형을 내리셔서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으시옵소서.”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毒藥)을 마시고 자살했다. 성도 죄를 받아 서인(庶人)<sup>4)</sup>으로 폐해졌다. 한편 치이자(鴟夷子)<sup>5)</sup>도 성과 친하게 지냈다 해서 수레에서 떨어져 자살했다. <중략>

▶탄핵으로 서인이 된 국성과 자식들의 자살

[사]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제(齊) 마울과 격(鬲)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떴지어 일어났다. 제는 배꼽, 격은 가슴을 뜻한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책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 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또 모든 고성을 군사들과 같이 했다. 수성(愁城)<sup>6)</sup>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서 장락판(長樂坂)<sup>7)</sup>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湘東侯)에 봉했다.

▶도둑을 평정하여 명예를 회복한 국성

[아]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입니다. 어려서는 몸이 빈천해서 이곳저곳으로 남에게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여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더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얽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 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얽어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sup>8)</sup>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事)를 보내어 송계(松桂),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sup>9)</sup>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중략>

▶국성의 치사(致仕)와 죽음

[자] 사신(史臣)<sup>10)</sup>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sup>11)</sup>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sup>12)</sup>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見幾而作]” 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국성의 대한 사신의 평가

[어휘 풀이] 1) 행신(倖臣) : 간사한 신하 2) 병통 : 깊이 뿌리박힌 결점 3) 횡행(橫行) : 거리낌없이 멋대로 행동함 4) 서인(庶人) : 벼슬이 없는 서민 5) 치이자(鴟夷子) : 말가죽으로 만든 주머니. 술을 넣는 데 쓰이는 것 6) 수성(愁城) : 근심을 말함 7) 장락판(長樂坂) : ‘오래도록 즐거워하는 제방’ 이라는 뜻 8) 경각(頃刻) : 아주 짧은 동안 9) 천수(天壽) : 타고난 수명 10) 사신(史臣) :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 11) 심복(心腹) : 마음 놓고 믿을 수 있는 부하. 마음으로 복종하는 사람 12) 만절(晩節) : 늙은 시절. 만년(晩年)

26. <보기>의 내용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전체의 속성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가전체는 실제로 있었던 일에 근거를 둔 수많은 고사를 동원하고 있어 그것들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작품 이해의 필수 요건이다. 사물 자체의 속성과 잡다하게 동원한 고사 등의 작품 외적 세계를 계속 작품 안에 끌어들이면서, 그 모든 것을 전기체 형식에 꿰어 맞추어 인물을 등장시키고 사건과 갈등을 꾸며 내어 이야기를 구성한다. 가전체야말로 이처럼 지식과 표현의 절묘한 결합이라 할 수 있다.

- ① 개성과 보편성의 조화
- ② 교훈성과 오락성의 결합
- ③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 ④ 예술성과 대중성의 동시 추구
- ⑤ 서사적 요소와 교술적 요소의 결합

27. <보기>는 이 글을 쓴 작가의 사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 글에 대한 분석 내용 중, 작가의 사상과 부합되는 점이 아닌 것은?

보기

- 도(道)라는 이름의 진리는 물(物)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 물(物)이 도(道)의 기준이며, 현실이 중요하다.
- 물(物)이 스스로 생성되고 변화할 따름이지, 조물주(造物主)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 ① 사물에 대한 인간의 실증적 관심을 촉발하고 있다.
- ② 사물의 내력, 속성, 가치 등에 대한 인식을 중시한다.
- ③ 사물과 사람을 별개의 존재로 보지 않고 연결짓는다.
- ④ 사물의 쓰임새를 비유의 매체로 삼아 세인을 풍자, 계도한다.
- ⑤ 사물을 의인화하여 사물의 속성은 숨고 등장 인물의 개성이 부각된다.

28. [자]에 나타난 '사신(史臣)'의 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작가의 생각은?

- ① 술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람을 타락시킨다.
- ②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된다.
- ③ 음주로 장에 부담을 주었으면 반드시 술로 풀어야 한다.
- ④ 술은 개인에게는 필요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해악을 끼친다.
- ⑤ 얽힌 인간관계의 매듭을 풀어 주는 데는 술이 으뜸이다.

29. ㉠을 통해 알 수 있는 국성의 성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순리를 알고 처신함.
- ② 상황에 맞는 기지를 발휘함.
- ③ 눈치껏 적당히 일함.
- ④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음.
- ⑤ 승산이 있을 때만 덤빔.

30. 사물의 속성과 연관시켜 해석할 때, ㉡의 문맥적 의미를 설명하시오.

▣ 다음 작품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성(龜聖)의 자는 증지(中之)요, 관향(貫鄉)은 주천(酒泉<sup>1)</sup>)이다. 어렸을 때에 서막(徐邈)에게 사랑을 얻어, 그의 이름과 자(字)는 모두 서씨가 지어 주었다.

그의 조상은 애초에 온(溫)이라고 하는 고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었는데,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에 포로가 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므로, 그 자손의 일파가 정나라에서 살게 되었다. 그의 증조는 역사에 이름이 나타나지 않았고, 조부 모(牟)는 살림을 주천으로 옮겨, 이 때부터 주천에서 살게 되었다. 아버지 차(醜)에 이르러서 비로서 벼슬길에 나아가 평원 독우(平原督郵)의 직을 역임하였고, ㉠사농경(司農卿) 2) 곡씨(穀氏)의 따님과 결혼하여 성(聖)을 낳았다.

성은 어렸을 때부터 도량이 넓고 침착하여, 아버지의 친지들이 그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 아이의 도량이 만 이량의 물과 같아서, 가라앉히더라도 더 맑아지지 않으며, 흔들어 보더라도 탁(濁)해지지 않으니, 우리는 자네와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 기뻐함이 좋네.”

㉢성이 자라서, 중산(中山)에 사는 유명(劉愴), 심양(潯陽)에 사는 도잠(陶潛)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비루함과 인색함이 생긴다.”

라고 하며, 만날 때마다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해하였다.

나라에서 성에게 조구연(糟丘椽)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자, 또 청주 중사(靑州從事)로 불렀다. 공경(公卿)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하니 임금께서 조서(詔書)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 보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가 그의 명성을 들어 온 지 오래다.”

라고 하셨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아뢰기를,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낸다 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성(聖)이 이른지라 임금이 또한 이로써 더욱 기특이 여기었다.

곧 주객 낭중(主客郎中) 벼슬을 시키고, 이윽고 국자재주(國

子祭酒)로 올리어 예의사(禮儀使)를 겸하니, 무릇 조회(朝會)의 잔치와 증조(宗祖)의 제사·찬식(薦食)·진작(進酌)의 예(禮)에 임금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는지라, 위에서 기국이 둥직하다 하여 올려서 후설(喉舌)의 직에 두고, ◎우례(優禮)로 대접하여 매양 들어와 벌 적에 교자(轎子)를 탄 채로 전(殿)에 오르라 명하여, 국선생(魏先生)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성(聖)이 들어와 보면 임금은 비로소 크게 웃으니, 무릇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중략>

사신은(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이었었는데,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시절의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禍)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침내 천수(天壽)로 세상을 마쳤다. 주역(周易)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見機而作]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어휘 풀이] 1) 주천(酒泉) : 중국 주 나라에 있던 땅 이름. 이 곳에서 나는 물로 술을 빚으면 술 맛이 좋았다고 함.  
2) 사농경(司農卿) : 고려 시대 제사에 쓰이는 미곡과 전적을 맡아 보던 벼슬아치

3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이 중심을 이룬다.
- ② 술을 의인화하여 우화적인 기법을 사용했다.
- ③ 인물의 가계, 품성, 행적 등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 ④ 가전 작품이 지니는 전기적(傳奇的) 형식을 답습하고 있다.
- ⑤ 위국충절을 교화한 가전 문학으로 사회적 교화를 강조한다.

32.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위국충절의 교훈
- ② 방탕한 군주의 풍자
- ③ 신분 질서의 모순에 대한 비판
- ④ 술 제조법의 역사적인 변천 과정
- ⑤ 술의 효능과 가치에 대한 부정적 입장

33. 이 글에 나타난 주인공의 성격으로 옳은 것은?

- ① 간교하다
- ② 진취적이다
- ③ 보수적이다
- ④ 충직하다
- ⑤ 교활하다

34. 이 글에서 의인화된 사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 ① 작자의 가치관을 통해서
- ② 진술한 대상의 속성을 통해서
- ③ 서술자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 ④ 표현한 대상의 상징성을 통해서
- ⑤ 사실적으로 표현된 대상을 통해서

35. 가전 문학의 특징이 아닌 것은?

- ① 함축적 수사
- ② 풍자적 소재
- ③ 사물의 의인화
- ④ 사실적 소재
- ⑤ 우회적 수법 사용

36. 가전이 본격적인 소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 적당한 것은?

- ① 인물과 플롯이 전혀 없기 때문에
- ② 개인의 일생을 다루는 데 그쳤기 때문에
- ③ 역사적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 ④ 인물 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 ⑤ '도입 - 전개 - 평론'이라는 구성상의 전형성과 창의성 부족 때문에

37. 이 글과 같은 유형의 글에서 글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은 무엇인가?

- ① 각주(脚註)
- ② 행적(行蹟)
- ③ 품성(品性)
- ④ 공과(功過)
- ⑤ 평론(評論)

38. 이 글과 같은 대상인 '술'을 의인화한 임춘의 작품을 쓰시오.

39. ㉠~㉤에 대한 뜻풀이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 누룩과 곡물로써 술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 : 국성의 어질고 충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다.
  - ③ ㉢ : 국성이 서민들이 좋아하는 술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 ④ ㉣ : 술을 매일 마셔야 호방해진다.
  - ⑤ ㉤ :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국성의 인품이 뛰어나다는 것을 말해 준다.
40. 이와 같이 사물 및 동·식물을 의인화하여 내용·속성·가치를 표현한 갈래를 □□(이)라고 한다.
41. 이 작품에서 의인화된 대상은 □이다.
42. 작품의 주제는 '위국충절'이다. ( O, X )
43. 작자는 '국선생'을 풍자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그려 내고 있다. ( O, X )
44. 이 작품에 영향을 끼친, 같은 대상을 의인화한 임춘의 작품은 □□□이다.

- 1) ③.  
 2) ④.  
 가전체는 전거(典據)의 나열에 그치고, 서술적 형상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내적 세계가 전면일률적이라 예술성과 완성도가 떨어짐.  
 3) ⑤  
 4) ①.  
 만년에는 분수를 지킬 줄 알았다는 내용에서 부귀 영화를 멀리하고 조용히 여생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5) ①.  
 국성은 술을 의인화한 위국 충절의 대표적 인물이다.  
 6) ⑤.  
 문맥상 사태나 현상을 미리 짐작하여 순리에 따라 바르게 행동한다는 의미이다.  
 7) ④.  
 성은 뒤에 다시 등용되어 도둑 토벌에 큰 공을 세운다. 그리고 천수를 다 누리며 산다.  
 8) ⑤.  
 국성의 몰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9) ④  
 10) ①.  
 11) ①.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사물 파악을 경계하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가전 창작의 계기가 되었음을 추리할 수 있다.  
 12) ④.  
 소설의 본질은 허구성에 있으며, 소설의 진실성은 구성의 개연성을 통해서 구현된다.  
 13) ②.  
 가전체 작품으로 술을 제재로 삼은 점이 동일하나 시대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14) ④.  
 ④는 술지게미를 의인화한 것이다.  
 15) ⑤.  
 평원 독우는 질이 좋지 않은 술을, 청주 종사는 질이 좋은 술을 의미한다.  
 16) ④.  
 '모영'은 현재의 국정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국성의 죄를 다스릴 것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할 수 있다.  
 17) ③.  
 ㉞는 유명과 도잡이 술을 좋아했다는 의미이다.  
 18) 대신덱 송아지 백정 무서운 줄 모른다.  
 19) 청주 종사(淸州從事), 평원 독우(平原督郵).  
 20) 임춘(林椿)의 '국순전(麴醇傳)'  
 21) ①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게 함. ②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고 함.  
 (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2) [답] ④ [해] 이 글은 술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쓴 가전체로, 우의적 성격을 띤다. 인물의 치밀한 심리묘사는 드러나지 않는다.  
 23) [답] ③ [해] 이 글은 술(누룩)을 의인화하여 국성이라는 인물의 생애를 그리고 있다. ③ '규중 칠우 쟁론기' 책 부인은 바느질의 도구인 자를 의인화하여 일컬은 말이다. 책부인은 자기의 공을 몰라주고 또 자신을 막대기로 쓰고 있다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 자를 의인화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하여 마치 사람인 양 표현한 것이 가전체의 수법과 동일하다.  
 24) [답] ④ [해] 출입할 때 국선생이 교자(轎子 ; 가마)를 타고 대궐에 올랐다고 하는데, '교자'는 '교자상(음식상)'을 의미하기도 한다. 풀이하면 ㉞은 임금의 음식상에 술이 올라간다는 뜻이다.  
 25) [답] 평원 독우 [해] '청주종사(淸州從事)'는 좋은 술을, '평원독우(平原督郵)'는 나쁜 술을 의미한다.  
 26) [답] ⑤ [해] 가전체 문학이 교술적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교술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사물을 서술, 전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의 갈래를 말한다. 가전에는 인물이 등장하고 사건과 갈등이 존재하며, 허구화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런 점에서 가전은 서사적이다. <보기>에서 가전이 지식과 표현의 결합이라는 것은 바로 교술과 서사의 결합이라는 뜻이다.  
 27) [답] ⑤ [해] 사물을 의인화한 결과 사물의 속성이 숨고 인물의 개성이 부각된다는 분석은 작가의 사상과 거리가 멀다. <보기>에서 작가는 '물(物)'의 존재를 중시하고 모든 인식과 존재의 원리가 현실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사물의 속성이 숨고 사람의 개성이 노출된다는 것은 '물'의 존재를 경시하고 인간, 심(心), 성(性), 도(道)의 측면을 중시한 것이다  
 28) [답] ② [해] 국선생의 대한 이중적인 평가는 술이 지난 이중적인 속성을 말한다. 술은 잘 마시면 좋은 것이지만 잘못 마시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이 사신의 평가의 담겨있다고 하겠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 되지만 잘못 마시면 독이 된다는 말이 이러한 이중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하다.  
 29) [답] ① [해] ㉞은 국성의 장점을 칭찬하는 대목이다. 국성이 검새를 알아차리고 미리 조치를 취한다는 뜻이다. 즉, 순리를 알고 처신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30) [답] 술을 못 마시게 되자 사람들은 근심, 걱정을 털 수 없었다. [해] 성이 벼슬을 그만두었다는 것은 술이 없어졌다는 뜻이며, 제(齊)와 격(隔 : 명치)마을 사이에 도둑이 일어났다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 걱정 또는 괴로움이 일어났다는 의미이다.  
 31) [답] ① [해] 이 작품은 주인공 조상의 내력과 출생을 서술한 전반부와 인물에 대해 종합적이고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반부 형식을 띠고 있는데, 이는 가전 작품이 지니는 전기적(傳奇的) 형식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①은 현대 소설에 와서야 많이 나타난다.  
 32) [답] ① [해] 이 글은 당대 사회에 필요한 인물상, 즉 순리를 알고 제대로 처신하는 위국충절의 표상을 제시함으로써 군왕을 모시고 치국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유생의 삶의 전형성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33) [답] ④ [해] 이 작품은 술을 의인화하여 위국충절을 교화한 가전 문학이다. 즉, 이 작품은 위국충절의 대표적 인물을 등장시켜 사회적 교화를 강조하였다.  
 34) [답] ② [해] 이 작품은 술의 속성 중, 술의 긍정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전개시키고 있다.  
 35) [답] ④ [해] 가전은 인간사의 다양한 문제를 의인화라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수법으로 다루면서 비평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풍자성을 띠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그 대상은 허구화된 것으로 사실적인 것은 아니다.  
 36) [답] ⑤ [해] 가전 문학이 본격적인 소설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가전이 전거(典據)의 나열에 가깝고, 내적 세계가 독자성을 띠지 못하고 있고, '도입 - 전개 - 평론'이라는 구성상의 전형성 때문이다.  
 37) [답] ⑤ [해] 가전 소설의 맨 마지막에는 사마천의 『사기』의 <열전(列傳)>의 형식을 흉내낸 글로서 사신(史臣)의 평이 붙어 있다.  
 38) [답] 국순전 [해] <국순전>은 현전하는 가전 문학 작품의 효시로

술을 의인화하여 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한 작품이다. 그러나 <국선생전>과는 달리 묘사하고 아부하는 정객들을 꾸짖고 방탕한 군주를 풍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9) [답] ③ [해] ㉔의 유령은 위·진 시대 죽림칠현의 한 사람이며, 도잠은 동진의 시인 도연명의 본명이다. 이 두 사람이 국성과 벗이 되었다는 것을 엮두에 둘 때 국성은 귀족들이 좋아하는 술이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40) [답] 가전

41) [답] 술

42) [답] O

43) [답] X

44) [답] 국순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국성(魏聖)의 자는 중지(中之)니 바로 주천(酒泉)에 사는 사람이다.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지란 곧 드레만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서막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조부 모(牟)가 주천으로 이사왔으며 아버 차(醜)는 평원독우가 되어 사농경 곡씨(穀氏)의 딸과 결혼해서 성을 낳았다.

(나)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하여 주객낭중을 거쳐 국자재주가 되고 예의사를 겸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후설의 직에 두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차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이라 일컬었다.

(다) 성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이들은 아버가 임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믿고 방자하게 굴었다. 중서령 모영이 임금에게 글을 올려 탄핵했다. 이에 성의 아들 셋은 즉시 독약을 마시고 자결했다. 성도 죄를 받아 서인으로 폐해졌다.

(라)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었으나 제 고을과 격 마을 사이에 도둑들이 떼지어 일어나자 성을 다시 기용하여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도록 했다. 그후 여러 차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으나 임금은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마) 사신은 말한다.

곡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1. 위글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전기적(傳記的) 구성    ② 병렬적(並列的) 구성
- ③ 액자적(額子的) 구성    ④ 두괄식(頭括式) 구성
- ⑤ 역순행적(逆順行的) 구성

2. 글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가) 국성의 가계와 신분
- ② (나) 국성의 교만한 인품과 권력 남용
- ③ (다) 세 아들의 방자함과 국성의 폐서인
- ④ (라) 국성의 재기용과 죽음
- ⑤ (마) 국성의 생애에 대한 사관의 평가

3. (가)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성이란 이름으로 보아 누룩을 발효시켜 담은 맑은 술이다.
- ② 주천이란 지명은 그곳에 술이 솟는 샘이 있었던 까닭이다.
- ③ 자를 중지라 한 것은 술을 마시면 비틀거리기 때문이다.
- ④ 온땅으로 이사는 술이 따듯한 온도에서 익기 때문이다.
- ⑤ 어머니가 곡씨인 까닭은 곡식으로 술을 담기 때문이다.

4. 가전체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 ① 사물을 역사적 인물처럼 의인화하였다.
- ② 가계와 생애, 공과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 ③ 고려 중기 이후 설화 수집 과정에서 출현하였다.
- ④ 설화에서 소설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
- ⑤ 실존 인물들의 일화를 사물에 빗대어 이야기했다.

5. 가전체 작품이 지닌 특성이 소설의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설명하되, 설화와 소설의 과도기적 단계를 중심으로 두 가지 이상 가전체의 특성을 들어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성(魏聖)의 자는 중지(中之)이니, 주천(酒泉) 사람이다. 국성리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지란 곧드레만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서막(序幕)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를 지어 주기까지 했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흩어져 살기도 한다. 국성의 증조(曾祖)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 않다. 조부 모(牟)가 주천이라는 곳으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아버 차(醜)는 벼슬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처음하는 벼슬이었다. 차란 흰 술을 뜻한다. 차는 평원 독우(平原蘊郵)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곡씨(穀氏)의 딸과 결혼해서 성(聖)을 낳았다.

<중략된 부분의 줄거리> 국성은 벼슬을 받고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국성의 아들이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방자하게 굴다가 탄핵을 받아 세 아들은 독약을 먹고, 국성은 폐서인이 된다. 다행히 다시 왕의 부름을 받은 국성은 큰 공을 세우고 상동후에 봉해진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①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이옵니다. 어려서는 몸이 빈천해서 이곳저곳으로 남에게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②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



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여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 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더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젊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한 물이 그릇에 차면 엮어친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事)를 보내어 송계(松桂),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중략>

[A][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내려오면서 농가 사람들이었다.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푸짐한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 마침내 천수를 다하였다. <주역>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景幾體歌)”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 이규보, <국선생전>

6.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인공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 순서대로 서술하였다.
- ②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글이다.
- ③ 주인공의 심정이 상소문의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 ④ 사물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 ⑤ 주인공의 가계(家系)를 소개하고 있다.

7. 위 글의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연관된 것으로 바르게 짝지워진 것은?

<보기>

주인공을 신하의 입장으로 설정한 것은, 유생(儒生)의 삶이란 근본적으로 신하로서 군왕을 보필하여 치국(治國)의 이상을 바르게 실현하는 데 있음을 암시한다. 신하는 국왕으로부터 총애를 받다 보면 자칫 방자하여 신하의 도리를 잃기 쉽다. 그 결과 한때 유위유능(有爲有能)한 존재에서 국가나 민생에 해를 끼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침내 자신의 몰락까지 자초하게 된다.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굳게 지켜 나감으로써 어진 신하가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때를 보아 물러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8. 위 글의 문학사적 의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필 문학의 시초이다.
- ② 설화의 진실성을 본받고 있다.
- ③ 설화와 소설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다.
- ④ 시가 문학을 산문 문학으로 변환시켰다.
- ⑤ 소설의 특징을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다.

9. [A]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작가의 견해와 비평이 덧붙여져 전기문(傳記文)의 형식과 유사하다.
- ② 사신(史臣)의 진술이 있으므로 이 글은 역사서(歷史書)라고 볼 수 있다.
- ③ 인물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보여줌으로써 시사평론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 ④ 인물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소개하여 독자가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⑤ 지혜가 담긴 명언을 소개하여 독자들에게 지식과 정보 획득의 기회를 제공한다.

10. 위 글과 같은 문학 갈래의 이름을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략>

방은 성질이 욕심이 많고 비루(卑陋)하고 염치가 없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재물을 맡아서 처리하게 되었다. 그는 돈의 본전과 이자의 경중을 다는 법을 좋아하여, 나라를 편안하게 하는 것은 반드시 질그릇이나 쇠그릇을 만드는 생산 방법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백성으로 더불어 한 푼 한 리의 이익이라도 다투고, 한편 모든 물건의 값을 낮추어 곡식을 몹시 천한 존재로 만들고 단 재물을 중하게 만들어서, 백성들이 자기들의 본업인 농업을 버리고 사농공상(士農工商)의 맨 끝인 장사에 종사하게 하여 농사 짓는 것을 방해했다.

이것을 보고 간관(諫官)들이 상소를 하여 이것이 잘못이라고 간했다. 하지만 임금은 이 말을 듣지 않았다. 방은 또 권세 있고 귀한 사람을 몹시 재치 있게 잘 섬겼다. 그들의 집에 자주 드나들면서 자기도 권세를 부리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등에 업고 벼슬을 팔아, 승진시키고 갈아치우는 것마저도 모두 방의 손에 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한다 하는 공경(公卿)들까지도 모두들 절개를 굽혀 섬기게 되었다. 그는 창고에 곡식이 쌓이고 뇌물을 수없이 받아서 뇌물의 목록을 적은 문서와 증서가 산처럼 쌓여 그 수를 셀 수 없이 되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상대하는 데 잘나거나 못난 것을 관계하지 않는다. 아무리 시정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재물만 많이 가졌다면 모두 함께 사귀어 상통한다. 때로는 거리에 돌아다니는 나쁜 소년들과도 어울려 바둑도 두고 투전도 한다. 이렇게 남과 사귀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을 보고 당시 사람들은 말했다.

“공방의 한 마디 말이 황금 백 근만 못하지 않다.”

[나] <전략>

성이 자라서, 중산(中山)에 사는 유영(劉伶), 심양에 사는 도잠(陶潛)과 벗이 되었다. 이들은 서로 말하기를,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심중에 물루(物累)가 생긴다.”

라고 하며, 만날 때마다 저물도록 같이 놀고, 서로 헤어질 때는 항상 섭섭해하였다.

나라에서 성에게 조구연(槽丘椽)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자, 또 청주 종사(淸州從事)로 불렀다. 공경(公卿)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하니 임금께서 조서(詔書)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 보고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가 그의 명성을 들어온 지 오래다.”

라고 하셨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아리기를, 주기성(酒旗星)이 크게 빛을 낸다 하더니, 얼마 안되어 성(聖)이 이른지라 임금이 또한 이로써 더욱 기특이 여기었다.

곧 주객 낭중(主客郎中) 벼슬을 시키고, 이윽고 국자궐주(國子祭酒)로 올리어 예의사(禮儀司)를 겸하니, 무릇 조회(朝會)의 잔치와 종조(宗祖)의 제사·천식(薦食)·진작(進爵)의 예(禮)에 임금의 뜻에 맞지 않음이 없는지라, 위에서 기국이 듬직하다 하여 올려서 후설(喉舌)의 직에 두고, 우례(優禮)로 대접하여 매양 들어와 빌 적에 교자(轎子)를 탄 채로 전(殿)에 오르라 명하여, 국선생(鞠先生)이라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으며, 임금의 마음이 불쾌함이 있어도 성(聖)이 들어와 보면 임금은 비로소 크게 웃으니, 무릇 사랑받음이 모두 이와 같았다.

<중략>

사신(史臣)은 말한다.

국씨는 원래 대대로 농사짓는 집안이었는데, 성이 유독 넉넉한 덕이 있고, 맑은 재주가 있어서 당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가의 정사에까지 참여하고 임금의 마음을 깨우쳐 주어 태평스러운 시절의 공을 이루었으니 장한 일이다. 그러나 임금의 사랑이 극도에 달하자 마침내 국가의 기강을 어지럽히고 화(禍)가 그 아들에게까지 미쳤다. 하지만 이런 일은 실상 그에게는 유감이 될 것이 없다 하겠다. 그는 만절(晩節)이 넉넉한 것을 알고 자기 스스로 물러나서 마침내 천수(天壽)로 세상을 마쳤다. 주역(周易)에 ‘기미를 보아서 일을 해 나간다[見機而作].’고 한 말이 있는데, 성이야말로 거의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다]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치 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의 두 칸은 장마에 비가 샌 지가 오래 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까 저렇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섰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 다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재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손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재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버린 재목처럼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11. [나] 작품 속, ‘사신(史臣)’의 평가를 통해 드러난 작자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간관계를 맺는 데 술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 ② 사람은 술로 말미암아 판단이 흐려지므로 항상 멀리해야 한다.
- ③ 속세를 벗어나 유연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 ④ 순리에 따라 처신하고 행동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⑤ 일을 시도할 때에는 성공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핀 후에 해야 한다.

12. <보기>를 읽고 ㉠가 설명하는 문학 양식(갈래)을 3음절의 한 단어로 쓰고, [가]와 [나]의 작품명에 해당하는 ㉡와 ㉢를 각각 쓰시오.

<보기>

㉠이것은 사물을 의인화하여 경계심을 일깨워 줄 목적으로 지어진 고려 말의 문학 양식으로, 교술성과 허구적 서사성을 갖추고 설화와 소설 사이의 교량적 역할을 하였다.

이것의 대표작에는 돈을 의인화한 ( ㉡ ), 술을 의인화한 ( ㉢ ), 그리고 대나무를 의인화한 ‘죽부인전’, 종이를 의인화한 ‘저생전’, 지팡이를 의인화한 ‘정시자전’ 등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성(國聖)의 자는 중지(中之)니 바로 주천(酒泉)에 사는 사람이다. 국성이란 맑은 술을 말하는 것이요, 중지란 곧드레만드레를 뜻한다. 어릴 때에는 ㉠서막(徐邁)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심지어 서막이 그의 이름과 자를 지어주기까지 했다. 그의 먼 조상은 원래 온(溫)이라는 땅에서 살았다. 힘껏 농사를 지어서 넉넉하게 먹고 살았다. 정(鄭)나라가 주(周)나라를 칠 때 잡아갔기 때문에 그 자손들은 간혹 정나라에 흠어져 살기도 한다. 국성의 증조(曾祖)는 그 이름이 역사에 실려 있지 않다. 조부 ㉡모(耒)가 주천이라는 곳으로 이사 와서 살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도 여기서 살아 드디어 주천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의 아비 ㉢차는 벼슬을 했다. 그의 집에서는 처음하는 벼슬이었다. 차란 흰 술을 뜻한다. 차는 평원독우(平原督郵)가 되어, 사농경(司農卿) ㉣곡씨(穀氏)의 딸과 결혼해서 성(聖)을 낳았다.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야카데미 www.namuacademy.com



- 1) ①
- 2) ②
- 3) ②
- 4) ⑤
- 5) 가전체는 계세징인을 목적으로 사물을 의인화해서 전의 형식으로 지은 풍자 서사 문학으로 설화와 소설을 잇는 교량 구실을 했으며, 소설의 등장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6) [정답] ①
- 7) [정답] ⑤
- 8) [정답] ③
- 9) [정답] ①
- 10) [정답] 가전체
- 11) [정답] ④
- 12) [정답] ㉠ 가전체, ㉡ 공방전, ㉢ 국순전, 국선생전
- 13) [정답] ④
- 14) [정답] ④
- 15) [정답] ③
- 16) [정답] 두 작품 모두 술을 의인화하였다. <국순전>이 술의 역기능을 강조한 반면에, <국선생전>에서는 술의 순기능을 강조하였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성은 어려서부터 도량이 넓었다. 손님들이 그 아버지를 보러 왔다가 도 성을 유심히 보고 귀여워했다. 손님들은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과 도량이 몹시 크고 넓어서 출렁거리고 넘실거리 마치 만경(萬頃)의 물결과도 같소. 더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더 흐려지지 않소. 그러니 그대와 이야기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 낫겠소.”

[A]성은 자라서 중산(中山)의 유령, 심양( 陽)의 도잠과 친구가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말했다.

“단 하루라도 국성을 만나지 않으면 마음속에 비루하고 이상한 생각이 싹튼다.”

이들은 서로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들을 잊고 마음으로 취하고야 헤어지는 것이었다.]

국가에서 성에게 조구연을 시켰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또 청주중사로 불러, 공경들이 계속하여 그를 조정에 천거했다. 이에 임금은 조서를 내리고 공거(公車)를 보내어 불러서 보고 눈짓하며 말했다.

“저 사람이 바로 주천의 국생인가? 내 그대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다.”

이보다 앞서 태사(太史)가 임금께 아뢰었다.

“지금 주기성이 크게 빛을 냅니다.”

이렇게 아뢰고 나서 얼마 안 되어 성이 도착하니 임금은 태사의 말을 생각하고 더욱 성을 기특하게 여겼다. 임금은 즉시 성에게 주객(主客) 벼슬을 주고, 얼마 안 되어 국자채주(國子祭酒)로 옮겨 예의사(禮儀使)를 겸하게 했다.

이로부터 모든 조회(朝會)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 천식, 진작의 예( )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그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承政院)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魏先生)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뵈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중략)

성이 이미 벼슬을 그만두자 제(齊)• 고을과 격(隔)• 마을 사이에는 도둑들이 때 지어 일어났다. 이에 임금은 이 고을의 도둑들을 토벌하라는 명을 내렸다. 하지만 책임자가 쉽게 물색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다시 성을 기용해서 원수로 삼아 토벌하도록 했다. 성은 부하군사를 몹시 엄하게 통솔했고, 또 모든 고생을 군사들과 같이했다. 수성(愁城)에 물을 대어 한 번 싸움에 이를 함락시키고 나서 거기 장락판을 쌓고 회군하였다. 임금은 그 공로로 성을 상동후에 봉했다.

그 후 2년이 지났다. 성은 소를 올려 물러나기를 청했다.

“신은 본래 가난한 집 자식입니다. 어려서는 가난하고 천한 몸이라 이곳저곳으로 팔려 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폐하를 뵈게 되자, 폐하께서는 마음을 터놓으시고 신을 받아들여서 할 수 없는 몸을 건져 주시고 강호의 모든 사람들과 같이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오나 신은 일을 크게 하시는 데 더함이 없었고, 국가의 체면을 조금도 빛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제 몸을 삼가지 못한 탓으로 시골로 물러나 편안히 있었사운데, 비록 좁은 이슬은 거의 다 말랐사오나 그래도 요행히 남은 이슬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이 밝은 것을 기뻐하면서 다시금 찌꺼기와 티를 열어젖힐 수가 있었나이다. 또 한 물이 그릇에 차면 넘버진다는 것은 모든 물건의 올바른 이치입니다. 이제 신은 몸이 마르고 소변이 통하지 않는 병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명령을 내리시와 신으로

하여금 물러가 여생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이를 승낙하지 않고 중사(中使)를 보내어 송계, 창포 등의 약을 가지고 그 집에 가서 병을 돌봐 주게 했다. 성은 여러 번 글을 올려 이를 사양했다. 임금은 부득이 이를 허락하여 마침내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그는 천수(天壽)를 다하고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 이규보, 「국선생전」

• 제: 배꼽을 뜻함. • 격: 가슴을 뜻함.

1 윗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국성의 도량과 교우 관계
- ② 국성에 대한 임금의 총애
- ③ 국성이 나라에 세운 공적
- ④ 국성의 귀향 과정과 죽음
- ⑤ 입신양명을 위한 국성의 노력

2 다음은 윗글의 갈래상 특징을 조사한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1. 윗글은 어떤 갈래에 속하는가?

- ① ..... 고려 시대부터 창작된 가전체 작품에 포함된다.

질문2. 이러한 갈래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가?

- ② ..... 일반적으로 교훈적 성격이 강하다.

비판적·풍자적 성격이 드러나기도 한다.

질문3. 이러한 갈래는 어떠한 구성상의 특징을 가지는가?

- ③ ..... 제재가 되는 사물을 의인화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④ ..... 인물의 생애를 기록하는 전기(傳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⑤ ..... 핵심 사건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3 윗글을 읽고 깨달은 바를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국성의 모습을 보니, 본분에 맞게 살면서 자기 할 도리를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② 무능력한 국성이 우연한 기회에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결국 물러나는 모습을 통해, 능력의 중요성을 절감했어.

③ 임금의 뜻을 받들어 개혁을 실천하는 국성의 모습을 통해,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군.

④ 임금에게 버림받았을 때에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준비하는 국성을 통해, 괴로운 현실이나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꼈어.

⑤ 간신들의 끊임없는 모함 때문에 끝내 자신의 능력을 피워 내지 못한 국성을 보니,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간악한 사람들을 먼저 처벌해야 함을 알겠어.

4 [A]와 관련된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경지수(明鏡止水)
- ② 수어지교(水魚之交)
- ③ 죽마고우(竹馬故友)
- ④ 괄목상대(刮目相對)
- ⑤ 주마가편(走馬加鞭)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이다. 그 조상은 동서(東西) 사람이다. 90대조(祖)인 모(牟)가 후직(后稷)을 도와 못 백성들을 먹여 공이 있었다. 『시경』에, “내게 밀과 보리를 주다.”

한 것이 그것이다. 모(牟)가 처음 숨어 살며 벼슬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반드시 밭을 갈아야 먹으리라.”/ 하며 밭이랑에서 살았다. 임금이 그 자손이 있다는 말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安車)로 부를 때, 군(郡)과 현(縣)에 명하여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게 하고 신하를 시켜 친히 그 집에 나아가, 드디어 방아와 절구 사이에서 교분을 정하였다. 화광동진(和光同塵)\*하게 되니, 훈훈하게 찌는 기운이 점점 스며들어서 온자(醞藉)한\* 맛이 있어 기뻐 말하기를, “나를 이루어 주는 자는 벗이라 하더니, 과연 그 말이 옳다.”/ 하였다. 드디어 맑은 덕(德)으로써 알려 지니, 임금이 그 집에 정문(旌門)을 표하였다. 임금을 따라 원구(園丘)에 제사한 공으로 중산후(中山侯)에 봉해졌다. 식읍(食邑)은 일만 호(一萬戶)이고, 식실봉(食實封)은 오천 호(五千戶)이며, 성(姓)은 국(麴) 씨라 하였다. (중략)

순(醇)이 권세를 얻고 일을 맡게 되자, 여진 이와 사귀고 손님을 접함이며, 늙은이를 봉양하여 술, 고기를 즐지며, 귀신에게 고사하고 종묘(宗廟)에 제사함을 모두 순이 주장하였다. 임금께서 일찍 밤에 잔치할 때도 오직 그와 공인만이 모실 수 있었고, 아무리 근신(近臣)이라도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임금께서 곤드레만드레 취하여 정사를 폐하고, 순은 이에 제 입을 재갈 물려 말을 하지 못하므로 예법(禮法)의 선비들은 그를 미워함이 원수 같았으나, 임금께서 매양 그를 보호하였다.

순은 또 돈을 거둬들여 재산 모으기를 좋아하니, 세상 사람들이 그를 더럽다 하였다. 임금께서 물기를, “경은 무슨 버릇이 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옛날에 두예(杜預)라는 이는 「춘추좌씨전」을 즐겨 읽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王濟)라는 이는 말[馬]을, 신(臣)은 돈을 좋아하는 버릇이 있나이다.”/ 하니, 임금께서 크게 웃고 관심과 보살핌이 더욱 깊었다. 일찍이 임금님 앞에서 물음에 답할 때, 순이 본래 입에 냄새가 있으므로 임금께서 싫어하여 말하기를, “경이 나이 늙어 기운이 말라 나의 썸을 감당치 못하는가.”/ 라 하였다. 순이 드디어 관(冠)을 벗고 사죄하기를, “신이 받은 벼슬을 사양하지 않으면 마침내 망신(亡身)할 염려가 있사오니, 제발 신을 집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신은 족히 그 분수를 알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좌우(左右)에 명하여 부축하여 나왔더니, 집에 돌아와 갑자기 병들어 하루 저녁에 죽었다. 아들은 없고, 친척인 청(淸)이, 뒤에 당나라에 벼슬하여 벼슬이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고, 자손이 다시 중국에 번성하였다.

- 임춘, 「국순전(麴醇傳)」

\*화광동진: 자기의 뛰어난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세속을 따름.

\*온자한: 마음이 너그럽고 따스한.

5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전체(假傳體)란 사물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을 취한 글이다. 고려 시대에 주로 창작되었으나 조선 시대에도 이어졌고, 술이나 엽전, 지팡이 등 주로 사물들을 의인화하여 한 인물의 일대기를 서술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사물에 빗대어 인간의 도리를 확인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세상사와 삶의 태도에 대해 깨우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전은 초기에 풍자적이고 교훈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으나 차츰 허구적 요소가 가미되어 의인(擬人) 문학으로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 ① 술을 ‘국순’이라는 인물로 표현하고, 술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전(傳)의 형식을 빌려 주인공의 일대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평을 덧붙이는 형식을 띤다.
- ③ 외국을 배경으로 삼고 주인공을 풍자함으로써 은연중에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 ④ 구체적 사물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해석한다는 점에서 교술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 ⑤ 본분을 망각한 신하의 모습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함으로써 독자의 공감을 높이고 있다.

6 윗글과 [보기]를 함께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이로부터 모든 조회의 잔치나 종묘의 제사·천식(薦食)·진작(進酌)의 예 모두 임금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임금은 국성(麴聖)의 그릇이 믿음직하다 해서 승진시켜 승정원(承政院) 재상으로 있게 하고 융숭한 대접을 했다. 출입할 때에도 교자를 탄 채로 대궐에 오르도록 하고,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국선생(麴先生)이라 일컬었다. 혹 임금의 마음이 불쾌할 때라도 성이 들어와 뵈기만 하면 임금의 마음은 풀어져 웃곤 했다. 성이 사랑을 받는 것은 대체로 이와 같았다.

- 이규보, 「국선생전(麴先生傳)」중

- ① 두 작품 모두 사물에 대한 찬양의 태도를 취하고 있어.
- ② 두 작품 모두 민족의 고난을 허구적 상상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이 비슷해.
- ③ 두 작품 모두 작자의 독창성에 기반한 허구를 구축하여 소설 전 단계 문학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어.
- ④ 「국선생전」에 비해 「국순전」이 남녀노소가 공유할 수 있는 소재를 취하여 작품의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어.
- ⑤ 「국순전」에 비해 「국선생전」이 국가나 왕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삽입함으로써 작품의 현실적 영향력을 높이며 하고 있어.

누룩 선생은 어려서부터 이미 생각이 깊고 아량이 넓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왔던 손님이 그를 눈여겨보고 귀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의 마음 그릇은 넓디넓은 강물과 같아서 더할 나위 없이 맑고, 휘저어도 흐려지지 않는다네. 그대와 얘기하는 것보다는 맑은 술 누룩이와 함께 있는 게 훨씬 즐겁네그려.”

그는 장성해서는 애주가로 이름난 유영(劉伶) 및 도연명(陶淵明)과 벗이 되었다. 이 두 친구는 일찍이 “하루라도 이 친구를 만나지 못하면 품위 없고 더러운 마음이 싹튼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 서로 만나면 언제나 며칠 동안 함께 있으며 피곤한 줄도 모르고 마음 깊이 취하여 돌아가곤 했다. / 한편 고을에서는 누룩 선생을 ‘술지게미 언덕’을 관리하는 아전으로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았는데, 또 ‘배꼽고을’의 종사(1)로 부름을 받았다. 높은 벼슬아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누룩 선생을 추천하니 임금은 공거(公車)(2)에서 대기하게 했다. 얼마 있지 않아 임금은 누룩 선생을 불렀다가 돌려보냈는데, 한참이나 그가 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 “저 사람이 바로 술이 샘솟는 고을의 누룩 선생이로구나. 짐이 그의 향기로운 이름을 들은 지 오래였노라.” / 이 일이 있기 전에 태사(太史)(3)가 별자리를 관측하고는 주기성(酒旗星)(4)이 매우 환하게 빛난다는 보고를 올렸었는데, 과

연 얼마 있지 않아 누룩 선생이 오게 되니 임금은 더욱더 신기하게 여긴 것이다. 그리하여 곧 주객낭중(主客郎中)(5)에 임명하였다가, 이윽고 국자궐주(國子祭酒)(6)로 승진시키고 예의사(禮義使)(7)를 겸직하게 하였다. 이에 누룩 선생은 조정의 모든 연회나 종묘(宗廟)의 모든 제사에서 술을 올리는 예(禮)를 담당하여 항상 임금의 마음에 들도록 일을 잘하였다. 그리하여 임금은 그를 쓸 만한 인재라 여기고 후설(喉舌)(8)의 일을 맡기고 후한 예로 대접하여, 언제나 임금을 뵈러 들어올 적에 가마에서 내리지 않아도 되게 할 정도였으며, 누룩 선생이라 하였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다. / 임금은 마음이 언짢았다가도 누룩 선생이 들어와 보면 비로소 크게 웃었으니 이처럼 임금의 사랑을 받은 것이었다. 성품이 온순하여 날마다 가까이 지내면서도 조금도 임금의 마음에 거슬리는 일이 없었으니 더욱더 사랑을 받게 되어 잔치가 있을 때마다 거침없이 임금을 수행하곤 했다. (중략)

그 일 년 뒤에 누룩 선생은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려 벼슬에서 물러나기를 간청하였다.

Al“저는 본디 미천한 집 자식으로 어려서 가난하여 남에게 이리저리 팔려 다니다가 우연히 임금님께서 마음을 비우고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게 되었습니다. 물에 빠진 처지의 저를 건져 주시고 하해(河海)와 같은 은혜로 포용해 주셨지만, 저는 그 넓은 은혜에 누만 끼치고 나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몸을 삼가지 못하여 고향에 물러나 있을 적에 비록 젊은 이슬은 거의 다하였지만 요행히 남은 물방울이 있어 감히 해와 달의 밝음을 기뻐하여 다시 술독에 갇힌 초파리의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릇이 가득 차면 뒤집어지는 것이 만물의 변함없는 이치입니다. 이제 저는 소갈병에 걸려 목숨이 물거품과 같사오니, 한 번 말씀을 내리시어 저로 하여금 물러나 여생을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임금은 허락하지 않고 내시를 보내어 소나무와 계수나무, 창포(菖蒲) 등의 약재를 전해 주고 병을 구완하게 하였다. 그렇지만 누룩 선생이 여러 번 상소를 올려 굳이 사직하니 임금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하여, 그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가 노년을 보내다가 수명을 마쳤다.

누룩 선생의 아우 약주(藥酒)는 봉급을 이천 석(石)이나 받는 벼슬을 지낸 바 있다. 한편 누룩 선생의 다른 아들들인 색깔 술, 두 번 거른 술, 동동주, 과일주 등은 복숭아 꽃물을 마시고 신선술을 배웠으며, 집안 조카들인 주(술의 이름)와 탐(술의 이름인 듯함), 곰팡이술은 평씨(萍氏)(9) 가문에 입적되었다. / 이 글을 쓰고 있는 사관은 누룩 선생에 대해 이렇게 평가한다.

“누룩 씨는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다. 누룩 선생 맑은 술은 순수한 덕성과 맑은 재주로 임금의 심복이 되어 국정을 돕고 임금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여 거의 태평을 이루었으니 그 공이 성대하다. 한편으로 너무나 큰 총애를 받아 나라의 기강을 어지럽혔으니 그 자손들이 화를 입었다 해도 유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년에는 만족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수명을 마칠 수 있었다. “주역”에 ‘일의 기미를 보아 떠난다.’라고 하였는데, 누룩 선생은 이 말을 거의 이루었다 하겠다.”

(어휘 풀이)

(1) ‘배꼽고을’의 종사: 술이 배꼽까지 시원하게 잘 넘어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 종사는 자사에 딸린 벼슬아치로 문서 업무를 맡음.

(2) 공거(公車): 상소를 받는 관청의 이름.

(3) 태사(太史): 천문과 시간을 담당한 관리.

(4) 주기성: 술을 담당할 별.

(5) 주객낭중: 손님 접대를 맡은 벼슬.

(6) 국자궐주: 국자감에서 교육과 제사를 맡은 벼슬.

(7) 예의사: 제사와 외교 등을 담당할 벼슬.

(8) 후설: 목구멍과 혀라는 뜻인데, 언론을 담당하는 승지 벼슬을 가리키는 말이다.

(9) 평씨: 고대 주나라의 관제에서 강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일을 맡은 벼슬의 일종. 평씨는 한편으로 물의 범람을 막는 제사 등에서 술을 관리하는 일과, 백성들이 술을 과음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일도 맡았다.

7 이 글에서 글쓴이의 서술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변모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 ② 대상이 지닌 덕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대상에 대한 비난에 대해 근거를 들어 옹호하고 있다.
- ④ 대상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위험을 경계하고 있다.
- ⑤ 대상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8 A에서 ‘누룩 선생’의 말하기 방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추를 통해 만물의 이치를 드러낸다.
- ② 자신을 낮추는 대신 임금이 지닌 덕을 강조한다.
- ③ 자신이 원하는 바를 들어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
- ④ 임금과 다른 대상을 대조하여 임금의 처지를 드러낸다.
- ⑤ 자신의 현재 상태를 다른 대상에 빗대어 호소력을 높인다.

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이 글의 특성을 각각 한 문장으로 서술 하시오.

(보기)

‘가전’은 ㉠한 인물의 내력이나 삶의 과정을 다루는 한문 양식인 ‘전(傳)’의 성격과 ㉡비인격적 대상에 인간적인 품격을 부여하는 ‘우의적’ 표현 방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가전은 의인화된 사물을 ‘전’의 형식 속에 투입하여 ㉢세상에 대한 가르침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고안된 형식이라 할 수 있다.

1 ⑤ 2 ⑤ 3 ① 4 ② 5 ③ 6 ③ 7 ② 8 ④ 9 (예시 답안) ㉗ 누룩 선생의 어린 시절부터 장성한 후의 삶, 그리고 죽음까지 다루었다. ㉘ 누룩을 사람으로 의인화하였다. ㉙ 신하로서의 진정한 도리에 대해 말하고 있다.

1 작중 상황의 추리 **정답** ⑤

국성의 이름이 알려지자 국가에서 조구연을 시키지만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공경들이 그를 조정에 천거하면서 벼슬자리를 얻게 된다. 국성은 입신양명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관직을 얻게 되었으므로 ⑤는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다.

이 글은 일대기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국성의 도량과 교우관계(①) → 국성이 정계에 진출하게 된 과정 → 임금의 총애를 받는 상황(②) → 국성이 나라에 세운 공적(③) → 국성의 귀향과 죽음(④)' 등이 순행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2 역사적 갈래의 특성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 ⑤

「국선생전」은 가전체 작품으로 '술(누룩)'을 의인화하여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작품이다. 우의를 통해 일반적인 사건이나 상황을 드러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특정한 역사적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작품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사실성보다는 상징적 의미를 통해 교훈성을 드러내는 작품이다.

① 「국선생전」은 임춘의 「국순전」의 영향을 받아 창작된 가전체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전체 작품은 고려 시대에 등장한다. 임춘의 「국순전」이 술의 부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면, 이규보의 「국선생전」은 술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다.

② 가전체 작품은 교훈적 성격이 강해 교술 장르로 구분되기도 한다. ③, ④ 「국선생전」은 제재가 되는 술을 의인화하여 일대기적 형식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대부분의 가전(假傳)이 이러한 서사구조를 따른다.

3 주제의 내면화 **정답** ①

작가는 「국선생전」의 '국성'을 통해 임금을 모시고 신하의 도리를 다하는 바람직한 인간상을 그려 내고 있다. 아울러 국성과 같이 본분에 맞게 살면서 자신이 할 도리를 다하는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② 국성이 그 이름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벼슬을 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성의 무능력함이 작품 전체에서 강조되는 것은 아니다. 국성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있으므로 무능한 인물로 볼 수 없다.

③ 국성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거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제시되지 않았다.

④ 국성이 임금에게 버림받았을 때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작품이 아니다.

⑤ 간신들의 모함이 작품 전면에 강조되지 않고 있으며, 국성이 도둑을 토벌하는 장면으로 볼 때 나라를 위해 제 능력을 발휘했다고 보아야 한다.

4 관용적 표현의 이해 **정답** ②

[A] 부분에서 '국성'은 '유령', '도잠'을 만나 한시도 떨어질 수 없는 교우 관계를 맺는다. 만나기만 하면 며칠 동안 모든 일을 잊고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떼려야 뗄 수 없는 친구 관계를 물과 물고기의 만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남에 빚대어 '수어지교(水魚之交)'라 칭한다.

① 명경지수(明鏡止水): 거울같이 맑은 물, 맑은 심성을 빚댄 표현이다.

③ 죽마고우(竹馬故友): 대나무 말을 타고 놀던 벗이라는 의미로, 어렸을 적의 친구를 뜻한다. 유령과 도잠은 국성이 다 자라서 사귀 친구이므로, 죽마고우라 할 수 없다.

④ 괄목상대(刮目相對): 눈을 씻고 상대를 다시 본다는 뜻으로 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늘었음을 뜻한다.

⑤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이다.

5 역사적 갈래의 특성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가전체 문학은 대상을 의인화하고 현실의 모순을 풍자하는 특성을 띠고 있으나, 외국을 배경으로 삼아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순전」은 '술'을 의인화하여 술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작품이다.

② 의인화된 인물의 일대기를 제시하는 것은 「국순전」과 같은 가전체 문학의 전형적인 특성이다. 이러한 전(傳)의 형식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성장하거나 변모하는 대상의 모든 면을 알게 되는 것 같은 효과를 주며, 그렇기 때문에 한 인물에 대한 평가도 가능해진다고 할 수 있다.

④ 교술 장르의 특징은 구체적인 사물을 제시하고 그 사물을 통한 깨달음을 깨우쳐 알려 준다는 데 있다. 가전체 문학은 인물의 일대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서사적 허구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그와 함께 술, 엽전, 지팡이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통한 깨우침을 독자에게 전한다는 면에서 교술 문학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

⑤ 「국순전」은 술이라는 대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모두 보여 주고 있으며, 특히 권력을 남용하고 돈을 밝히는 그릇된 신하의 모습으로 술을 의인화하여 술의 폐해에 대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6 한국 문학사의 전개 양상 이해

**정답이 정답인 이유**

두 작품은 모두 가전체 문학으로서 아직 본격적인 허구적 서사물인 소설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관습적인 전(傳)의 형식에 작가의 개성적인 독창성을 더한 허구이다. 이는 조선 시대에 본격적으로 창작되는 소설의 전 단계를 예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국순전」은 술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다루고 있고, 「국선생전」에서는 술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두 작품 모두 '찬양'과는 거리가 있다.

② 두 작품은 모두 고려 시대의 작품이고, '술'이라는 소재에 대한 허구적 형상화를 통해 인간사를 담고자 하였지만, 특정 시기의 민족의 고난을 작품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두 작품 모두 '술'이라는 소재를 취하였으므로, 남녀노소가 공유할 수 있는 소재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순전」이 더 그러하다고도 볼 수 없다.

⑤ 「국선생전」만이 아니라 두 작품 모두 왕과 신하와의 관계를 통해 술을 신하에 비유하고 있으며, 「국선생전」이 「국순전」에 비해 국가나



왕권과 관련된 이야기로 현실적 영향력을 높이려 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7 서술 태도의 이해 (답) ②

이 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룩 선생에 대해 긍정적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생각이 깊고 아량이 넓었다는 점, 장성해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 점, 죽을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임금을 진심으로 섬긴 점 등 누룩 선생의 본받을 만한 덕목을 서술하고 있다.

8 말하기 방식 이해 (답) ④

A에서 누룩 선생은 자신을 기본적으로 물에 빠진 처지에 빗대어 상대방에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임금을 다른 대상과 대조하여 임금의 처지를 드러내는 내용의 말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 피하기

① 만물의 변함없는 이치를 그릇이 차면 뒤집어지는 것에서 유추하고 있다. ② 임금을 하해와 같은 은혜를 지닌 존재로 치켜세우는 반면 자신은 임금의 은혜에 누만 끼쳤다면 낮추어 임금의 덕을 강조하고 있다. ③ 전반적으로 벼슬에서 물러나게 해달라는 의사를 다양한 방법으로 요청하고 있다. ⑤ 자신의 상태를 '소갈병에 걸려 목숨이 물거품'과 같다고 하여, 물거품에 빗대고 있다.

9 장르적 특성 이해

이 글은 누룩 선생을 의인화하여 그의 어린 시절, 장성한 후의 삶, 죽음까지 다루면서 성장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또 누룩 선생이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도 방자하게 굴지 않고 진심으로 임금을 섬긴 것을 통해 신하로서의 올바른 도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다.

출제요소

명혼 소설의 특징,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한문)

2018학년도 수능특강 고전산문 반복사제포기 작품해설

■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양계(陽界)와 음계(陰界)의 인물의 만남, 이별, 양계의 인물이 속세를 버림'이라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 주인공 양생은 비록 현실이 아닌 음계의 인물과 만나 사랑을 나누었지만 그것을 한갓 장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알지 않고 진실한 것으로 생각했다. 음계의 여인이 사흘 동안의 재가 끝난 후 공중에 나타나, 자신이 양생의 은덕으로 태국의 남자로 태어났음을 말하고, 양생에게 정업을 닦아 속세의 누를 벗어날 것을 부탁하지만, 양생이 장가도 들지 않고 속세를 떠났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이 작품은 설화적 소재에 자신의 창의성을 가하고 상당 수준의 소설적 형식을 갖추으로써 소설로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니고 있다.

■ 핵심 정리

- \* 작가 : 김시습
- \* 연대 : 세조 때
- \* 갈래 : 한문소설, 단편소설, 전기소설, 염정(艷情) 소설
- \* 배경

구성	구성을 통한 작가의 사상
죽은 사람인 하씨 여인은 명문 거족의 규수이며, 산 사람인 양생은 보잘 것 없는 집안 출신의 서생임	남녀간의 애정이 생사를 초월할 수도 있다는 <b>작가의 애정 지상주의</b>
하씨 여인은 이미 전쟁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상태이지만, 현실적인 인간과 다름없이 양생과 애정을 주고받음	불행한 주인공들의 등장과 그들의 의지를 방해하는 요소로 전란 * 양생-자연적 불행(조실부모) * 여인-사회적 불행(전란) ⇒ <b>작가의 사회관</b>
저승과 이승의 남녀 주인공의 애정 생활도 명수가 다해 중단. * 여인의 왕생-남자로 다시 태어남 * 양생의 입산- 하씨 여인과 이별한 후에 속세를 떠남	남녀 주인공의 애정 생활에 대한 명수(命數)의 인정은 운명에는 순종 ⇒ <b>작가의 운명론적 인생관 (인간 운명에 대한 비극적 인식)</b>

시간 - 고려 말(1380년) 최무선 장군의 화공(火攻)에 패배한 왜구들이 호남에 흩어져 노략질을 일삼을

공간 - 전라도 남원 만복사

- \* 구성 : 이승전결의 4단구성
- \* 시점 : 전지적 작가시점
- \* 문체 : 문어체, 산문체, (부분적으로) 운문체
- \* 인물
  - 가. 양생 -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인물. 생사를 초월한 사랑도 마다하지 않음.
- 1) 죽은 여인 - 사랑을 막는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여 진정한 사랑의 승리를 이룩하고자 하는 정열적 여인.
- \* 구성 : 발단(부처님과의 저포놀이)-전개(여인과의인연)-위기(여인의

성체)-절정(여인과의 사랑 및 여인의 사라짐)-결말(양생의 은)

- \* 제재 : 죽은 남녀 간의 사랑
- \* 주제 : **시공을 초월한 사랑**
- \* 의의 : 1. 최초의 한문소설  
2. 현실주의적 지향의 소설이다.  
3. 몽유록계 소설의 효시, 전기 소설의 백미

★ 양생과 여인(하씨)의 만남과 이별의 과정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 양생과 여인의 만복사 불전에서 만남
- 술과 시를 주고받음
- 여인의 거처에서 3일간 지냄
- 다음날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헤어짐
- ※ 은그릇의 기능 → 여인이 이승에서 쓰던 것으로 이것을 양생에게 준 것은
  - ① 양생과 여인의 관계를 부모에게 밝히는 매개물
  - ② 양생과의 관계에 대해 부모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여인의 의도가 개입
  - ③ 양생과 여인의 부모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 ⇒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는 소도구
- 절에서 다시 만나 제삿밥을 함께 먹음
- 여인이 영원한 이별을 고했함
- 양생이 전답을 모두 팔아 재를 지내 줌
- 여인이 공중에서 고마움의 인사를 전함
- 양생이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살다 죽음
- ⇒ 만남과 이별의 과정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 그림
- ⇒ 여인과 이별 후 세상을 등지고 지리산에 들어가 혼자 살다가 죽은 절대적인 사랑
- ⇒ 이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야 하는 여인을 통해 운명의 힘에 대한 경외감

★ 작품 구성과 작가의 사상

★ 삼입시의 역할(압축적이고 비유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서정 장르의 감흥)

- ① 등장인물의 심리 ② 등장인물의 처지 ③ 사건 전개의 매개 역할(부처의 반응)
- ④ 작품의 분위기 창출

★ 여인은 어떻게 죽었는가

⇒ "난리를 겪어도 정절을 지켰으나 왜구를 만나 목숨을 잃었다." 난리라는 세계의 횡포와 맞서서 정절을 지키기 위해 죽어간 것이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정절을 버리지 않겠다는 신념에서 나온 행동이다. [ 의중명경 (義重命輕) ]

★ 여인은 왜 귀신이 되었는가

⇒ 여인은 도적의 칼날에 목숨을 잃은 것이 한이 되어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다. 김시습은 [귀신설]에서 사람이 "비명에 죽었을 경우

그 사람의 기가 남아 있어 오래 되어서야 사라진다"고 하였다.

★ **여인은 왜 귀신이 되어 사랑을 나누었는가.**

⇒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이 인연은 정당한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별해야 한다. 양생도 여자를 만나 '삼세의 인연을 맺어' 사랑을 성취하지만 죽은 여자를 만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 이별해야만 하는 것이다.

★ **양생은 여자가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 사랑을 나누는 여인이 죽은 여자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인과 맺은 서로의 약속을 지키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다. 만약 여인이 죽었다는 사실을 현실로 인정한다면 굳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지 않아도 된다.

다른 여인을 만나 살 수 있을 것이다. 양생이 여인이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현실에서 이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다. 즉 현실에서 정절이나 의리를 지키는 것은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패배할 줄 알면서도 맞서는 것이다.

▣ **줄거리**

전라도 남원에 사는 노총각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의 불당을 찾아가서 부처님께 저포놀이를 청했다. 그가 지면 부처님에게 불공을 드릴 것이요, 부처님이 지면 그에게 아름다운 배필을 증매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기였다. 서생은 두 번 저포를 던졌다. 그 결과 서생이 이겼다. 서생은 불좌 밑에 숨어서 배필이 될 여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 때 문득 아름다운 아가씨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도 부처님 앞에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하소연 하면서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원하였다. 이를 본 서생이 그 여인 앞으로 뛰어나가 회포를 말하니 두 사람은 정이 통해져 하룻밤을 함께 지내게 되었다. 그런데 실은 이 여인은 인간이 아니라 왜구의 난리통에 죽은 처녀의 환신(幻身)이었다. 이튿날 여인은 서생에게 자기가 사는 동네로 가기를 권했다. 서생은 거기서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사흘 뒤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 때 여인이 서생에게 신표로서 은주발 한 개를 선사하였는데 그것은 그 여인의 무덤에 매장한 부장품이었다. 다음 날-이 날은 여인의 대상(大喪)인 동시에 쯤날이었다. - 그들은 보련사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재가 끝난 뒤 여인은 인연이 끝내 그 여인을 잊지 못하여 장가도 들지 않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면서 평생을 마쳤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접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樗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빗어 내렸고 화장을 얹어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된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시달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족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며,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녀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1. 윗글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양생은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서러워한다.
- ②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놀이를 내기를 제의한다.
- ③ 여인의 부모는 딸의 행동에 대해 못마땅해 한다.
- ④ 양생은 절을 찾은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한다.
- ⑤ 양생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2.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보기>

이 소설은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이 기괴하고 신기한 일을 내용으로 하는 소설을 ( ) 소설이라고 한다.

- ① 영웅(英雄)      ② 역사(歷史)      ③ 성장(成長)  
 ④ 풍자(諷刺)      ⑤ 전기(傳寄)

3. ㉠과 ㉡의 내용을 읽고 양생과 여인의 공통된 소원을 서술 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襦褌)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 머리를 곱게 땅아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된가 ㉢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 지난 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되,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낮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4. 양생이 ㉡를 읽고 ‘여인’에 대해 짐작했을 만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이 왜구로부터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하였군.  
 ② 여인이 외딴 곳의 임시거처에서 3년을 지냈군.  
 ③ 여인은 배필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군.  
 ④ 여인이 살던 마을에 몇 해 동안 왜구의 침입이 있었군.  
 ⑤ 여인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규방에 몰래 숨어 있었군.

5. 윗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사건에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고 있다.  
 ② ㉡ : 여인의 아름다운 외양을 묘사하고 있다.  
 ③ ㉢ :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설정하여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④ ㉣ : 여인의 운명론적 세계관이 잘 드러나 있다.  
 ⑤ ㉤ : 서술자가 인물에 대하여 편집자적 논평을 하고 있다.

6. 밑글의 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양생의 무례한 질문에 불쾌해하고 있다.
  - ② 여인은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다.
  - ③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속담이 어울리는 상황이다.
  - ④ 여인은 양생의 의심을 품을까 방어적 자세를 취하고 있다.
  - ⑤ 여인은 양생과의 인연이 무산될 뻔한 위기를 잘 모면하고 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㉓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맘이면 배나무 아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㉔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㉕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㉖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㉗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樗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㉘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㉙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

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땀아 내렸고 화장을 얹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㉚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㉛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였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萬福寺樗蒲記)'

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품의 배경에 향토적 지명이 나타난다.
- ② 밑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이다.
- ③ 비현실적인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④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 ⑤ 작품 속 서술자가 인물의 심리를 제시한다.

8. ㉑~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여 사실감을 높인다.
- ② ㉒ : 주인공 양생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 ③ ㉓ : 비극적 결말을 암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 ④ ㉔ : 구체적 내용은 좋은 배필을 얻는 것이다.
- ⑤ ㉜ : 독자는 여인이 혼령임을 짐작하게 된다.

9. ㉔에 들어갈 축원문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왜구 침입으로 가족들이 흩어졌으니 가족들이 다시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 ② 부모님은 제가 이미 죽어 풀밭에 묻힌 것을 알지 못하니 저의 처지를 부모님께 알려 주십시오.
  - ③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했으니 저를 가엽게 여겨 극락정도로 이끌어 주십시오.
  - ④ 부부의 인연은 하늘이 정한다니, 제 인연이 되는 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 ⑤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니 속히 왜구를 물리쳐 주옵소서.

10. ㉓와 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전소설의 특징은?

- ① 재자가인형 인물이 제시된다.
- ② 전기성(傳驕性)이 나타난다.
- ③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 된다.
- ④ 순행적 구성을 보이고 있다.
- ⑤ 편집자적 논평이 있다.

11. 윗글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㉑와 같은 삽입시의 기능 중 두 가지를 서술하십시오.

(나) 윗글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슬슬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㉑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㉒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㉓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檣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㉔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땀아 내렸고 화장을 얹게 했는데, ㉕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뻐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된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며,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낮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 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와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나) 신축년 홍건적이 서울을 침략하여 임금이 복주로 피난하였다. 홍건적은 가옥을 불태우고 사람과 가축을 닦치는 대로 죽였다. 이생 부부와 친척들 또한 위험을 피할 길이 없어 동서로 달아나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다.

이생은 기죽을 이끌고 깊은 산에 들어가 숨으려 했다. 이때 홍건적 하나가 나타나 칼을 뽑아 들고 쫓아왔다. 이생은 있는 힘껏 달려 겨우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 씨는 결국 홍건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홍건적이 최 씨를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나를 잡아먹어라! 죽어서 승냥이의 밥이 될지언정 내 여찌 개돼지의 아내가 될 수 있겠느냐?”

홍건적이 노하여 최 씨를 죽이고 난도질하였다.

이생은 황야에 몸을 숨겨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홍건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이미 모두 불타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

이생은 발길을 돌려 최 씨의 집으로 갔다. 황량한 집에 쥐가 짹짹거리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이생은 슬픔을 가눌 수 없어 작은 정자께 올라가 눈물을 훔치며 길게 한 숨을 쉬었다.

날이 저물도록 이생은 덩그러니 홀로 앉아 있었다. 멍하니 예전에 최 씨와 함께 즐겁게 보낸 시간들을 회상하노라니 한바탕 꿈을 꾸 듯싶었다.

어느덧 2경이 되었다. 달빛이 희미하게 뻗어 나와 들보를

비추었다. 문득 행랑 아래쪽에서 차츰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멀리서부터 발소리가 점점 다가왔다. 최 씨였다. 이생은 최 씨가 이미 죽은 줄 알면서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까닭에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이렇게 물었다.

“어디로 피해서 목숨을 건졌소?”

<중략>

“이제 다시 만났으니 지난날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잊지 않으셨다면 다시 행복하게 실아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이생은 기쁘고도 마음이 몽클해져 “진정 내가 바라던 바요.” 라고 말했다.

1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이다.
- ② 꿈과 현실의 환몽구조로 되어 있다.
- ③ 전기적인 요소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서사 구조로 삼고 있다.

13. (가)에서 시를 삽입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장면의 전환을 유도한다.
- ② 사건을 요약하여 서술한다.
- ③ 이야기 전개에 복선 구실을 한다.
- ④ 독자에게 구체적 장면을 제시한다.
- ⑤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14. (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양생이 좋은 배필을 얻고 싶어 하는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이다.
- ② ㉡: 양생에 배필을 만나게 되는 구체적 배경을 제공하여 이후 처녀와의 만남에 개연성을 부여해 준다.
- ③ ㉢: 양생과 여인을 이어주는 매개체로, 여인과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해 준다.
- ④ ㉠: 서술자의 시점에 등장인물인 양생의 시점이 투영되어 있다.
- ⑤ ㉢: 양생과 여인이 인연을 맺는, 기이한 분위기를 더해 주는 비현실의 공간이다.

15. (가), (나)에 대한 공통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구성보다는 역사적 사실에 비중을 두고 있다.
- ② 실제 지명을 택해 배경의 구체성을 높이고 있다.
- ③ 현실 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사실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
- ④ 현실적인 인물을 등장시켜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말해준다.
- ⑤ 사실적인 묘사가 뛰어나며, 주인공이 모두 입체적인 인물이다.



16. 다음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 두 작품의 공통된 주제를 쓰시오.

<보기>

위 두 작품의 주된 갈등은 개인과 외부 세계와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외부 세계는 둘의 사랑을 좌절시키는 세계의 횡포(제도, 사회, 죽음, 전쟁)이며 이러한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서 주인공들은 치열하게 저항하고 있다. 작가는 이런 엄청난 힘에 의해 인간의 욕망이 성취될 수 없을 때 문학적 상상력(명혼설화, 인귀교환 설화에서 초현실적 만남의 화소 가져옴)을 동원하여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 맞섰다고 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擣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지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중략>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되,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거뉘는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 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중략>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시중드는 여종이 여인의 명에 따라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다. 사경 가까운 시각이었다. 퍼 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무늬 장식도 없었으나,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하였다. 양생은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는 '필시 귀한 댁 처자가 담장을 넘어 나온 것이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건네더니 시중드는 여종더러 노래를 한 곡 불러 보라하고는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옛날 곡조를 잘 부른답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양생이 흔쾌히 허락하자 여인은 노래 한 곡조를 지어 여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불꺼진 등잔

야트막한 은 병풍.

공연히 눈물 훔치나니

사랑할 사람 누구런가.

[A] 기빠라 오늘 밤 붉기운 돌아.

따뜻함이 찾아왔으니

내 무덤에 맺힌 천고의 원한 풀어 주오.

'금루곡(金縷曲)' 부르며 은 술잔 기울이네.

지난날 아쉬워 한을 품은 여인이

외로운 집에 잠들었다네.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옛날 봉래도(蓬萊島)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오늘 소상강(瀟湘江)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天幸)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시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는 한편 놀라워하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애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지지요."

<하략>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萬福寺擣蒲記)」

1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과 여인은 모두 부처님께 배필을 구하고 있다.
- ② 여인은 부처님께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하소연하는 글을 바쳤다.
- ③ 양생은 여종이 부른 노래를 듣고 여인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되었다.
- ④ 양생은 저포 놀이라는 우연적 사건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려 하고 있다.
- ⑤ 양생은 여인의 고운 모습과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 귀한 댁 처자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18.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인물이 처한 상황을 암시한다.  
 ㄴ.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ㄷ. 인물의 속마음을 서술자가 직접 제시한다.  
 ㄹ. 소설 속 장면을 서정적인 분위기로 만든다.  
 ㅁ.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하는 복선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ㄷ, ㄹ, ㅁ

19.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전기 소설(傳奇小說)은 기이한 사건을 전하는 소설이라는 뜻이다. 전기 소설은 비현실적인 사건을 다루지만, 현실의 사건을 반영하기도 하며 실제 인간의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소재 자체는 비현실적이거나 남녀 간의 애정문제, 사회적 상황 등 인생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양생과 여인의 이별을 통해 초인간적인 힘에 의존하여 운명을 바꾸려고 한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② 양생과 여인의 사랑은 부당한 세계의 횡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담고 있다.  
 ③ 작가는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정조를 지킨 여인을 통해 세조의 왕위 찬탈을 비판하고 있다.  
 ④ 실제의 역사적 상황을 작품의 배경으로 사용하여 소설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느껴진다.  
 ⑤ 양생이 죽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는 것은 비현실적인 사건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역이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 달 밝은 이 밤 그  
 낭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  
 윳는데 /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 등불  
 로 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  
 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 (중략) -----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 지난 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  
 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  
 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  
 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  
 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  
 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되,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  
 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  
 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  
 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  
 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  
 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낮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겨울밤마  
 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  
 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  
 쟈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  
 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  
 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 (중략) -----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즐거움은 어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중드는 여종은 아름답고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물(器物)은 깨끗하되 화려한 무늬 장식이 없었다. 인간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20.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을 통해, 여인은 죽은 영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을 통해, 여인이 운명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을 통해, 여인의 소망은 배필을 만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④ ㉣을 통해, 양생은 깊은 불교적 신앙심을 지닌 사람과 만난 것에 대해 기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을 통해, 여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함을 알 수 있다.

2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전소설의 전기성(傳奇性)이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요소를 말한다. 전기성은 중국 소설의 영향을 받았으나 나름의 독창성을 가미하여 한국적인 전기 소설을 탄생시키게 되었는데, 특히 김시습이 전기 소설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 ① 문득 공중에서 부처님의 말소리가 들린 것은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이 소설의 전기성은 죽은 여인과의 사랑이라는 소재에서도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양생이 등불로 점을 친 것은 죽은 여인이 환생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한 데서 비롯된 행동이겠군.
- ④ 이 소설에 드러난 전기적 요소는 작품 전반에 걸쳐 신비스럽고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군.
- ⑤ 이 소설의 결말은 주인공이 신이한 능력을 발휘하여 결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영웅 군담 소설과 차이를 보이고 있군.

22.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 김시습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외가에서 자랐으며 불도(佛道)에 심취하여 금오산에 칩거하였다. 또한 단종을 제거하고 부당하게 왕위에 오른 세조를 증오한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그는 평생 관직을 멀리하였으며 철저한 방외인(方外人)으로서 불교와 문학에 몰두하였다.

- ① 이 소설의 윤회사상은 작가의 종교적 신념과도 부합하는 사상이겠군.
- ② 고아로 살아온 양생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양생은 작가의 모습이 어느 정도 투영된 인물이겠군.
- ③ 이 소설의 여인이 죽음을 불사하며 정조를 지키려 한 것은 세조정권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김시습이 불교를 통해 불행한 삶을 극복한 것처럼 양생도 열반의 경지를 통해 행복에 도달한 것이군.
- ⑤ 이 소설의 주인공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고 볼 수 있겠군.

23. <보기>를 참고할 때, 윗글의 작가가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한 두 가지 전략을 서술하시오. (단, 문장의 형태로 서술할 것.)

<보기>

소설은 가짜의 세계를 구축하는 허구의 문학이다. 그러나 작가는 독자로 하여금 소설 속의 세계가 그럴 듯한 세계로 느껴지도록 사실성을 부여한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 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 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복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樗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치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나)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

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깎아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략 줄거리

여인이 부처님께 바친 글에는 ‘자신은 왜구가 침략했을 때 규방에서 정절을 지키다가 외진 풀밭에서 지낸 지 3년이 지났으며, 부처님께서 인연을 점지해주실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人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 <중략>

시중드는 여종이 여인의 명에 따라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다. 사경 가까운 시각이었다. ㉠퍼 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무늬 장식도 없었으나,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듯 하였다. 양생은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는, ‘필시 귀한 댁 처자가 담장을 넘어 나온 것이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야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시지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 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

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양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 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양생이 이렇게 물었다.

“어찌 이런 곳에 사시오?”

여인은 “혼자 사는 여자가 사는 곳이 본래 이렇습니다.”라며, 또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 <중략>

두 사람이 마침내 개녕동(開寧洞)에 도착했다. 숲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그 속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여인이 양생을 이끌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어젯밤 펼쳤던 것과 같은 자리와 장막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양생은 이곳에서 사흘을 머물렀는데, 그 즐거움은 어느 사람이 누리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시중드는 여종은 아름답되 영악하지 않았고, 여러 기물(器物)은 깨끗하되 화려한 무늬 장식이 없었다. 인간 세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여인의 정답고 정성스러운 모습에 더 이상 의심을 갖지 않게 되었다.

####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2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은 저포놀이를 통해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한다.
- ②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단편소설이고 변역체 문장이다.
- ③ 작가의 불교적 사상관과 운명론적 가치관이 곳곳에 나타나 있다.
- ④ 사실적 배경과 구체적 지명 등을 사용하여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⑤ 작품 중간에 시를 삽입하여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서사성을 강화하고 있다.

25. (가)와 삽입시의 양생(A)과 <보기>의 화자(B)가 나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금 굴레 조각 안장 타신 임은 어디 가셨나.  
 정다운 앵무새는 창가에서 속삭인다.  
 풀섬에서 날던 나비는 뜨락으로 사라지더니  
 난간 밖 아지랑이 긴 꽃밭에서 춤을 춘다.  
 뉘 집 연못가 정자에서 피리소리 구성진가.  
 밝은 달은 아름다운 금 술잔에 떠 있는데  
 시름 많은 사람만 홀로 잠 못 이루어  
 새벽에 일어나면 눈물 자국 흥건하리라.

- 허난설헌, '사시사(四時詞)'

- ① A : 저는 너무나 외로운 마음에 점을 쳐서라도 우연히 인연을 만났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 ② B : 제 외로운 마음을 더욱 부각시켜 주던 앵무새 같은 대상이 당신에겐 비취새나 원앙새였군요.
- ③ A : 당신도 저처럼 피리 소리를 들으며 외로움이 더욱 배가 되었군요.
- ④ B :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짝이 나타날거라 기대하며 오늘은 편히 잠을 청해 봅시다.
- ⑤ A : 저는 짝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근심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26. 여인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나타내는 소재나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                      ② ㉡                      ③ ㉢
- ④ ㉣                      ⑤ ㉤

27. <보기>를 읽고 밑줄 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을 글 (가)에서 찾아 쓰시오. (단, <보기>의 예시는 제외할 것.)

<보기>

당시의 소설문학은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를 많이 지니고 있다. 위 소설에서도 부처님에게 내기를 거는 것이나 여종이 자취없이 사라진다는 모습 등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남원(南原)에 양생(養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이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 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중략부분 줄거리] 만복사에서 연등회가 열리던 날, 양생은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하게 된다. 자신이 이기자 미녀를 아내로 맞이하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빈다. 잠시 후 한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와 부처 앞에 절하고 품에 적힌 종이를 꺼내 탁자 앞에 바친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뢰옵니다.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며,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늙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매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였다.

<중략>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애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지지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 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양생은 이렇게 대답했다.

“술에 취해 만복사에 누워 있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침이 되었다. 여인이 이끄는 대로 풀숲에까지 따라와 보니, 이슬이 흥건한 것이 사람들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

<중략>

양생 역시 농담조로 다음과 같이 읊조리며 놀려 대는 듯한 웃음을 지어 보였다.

④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니  
저 기수(淇水)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魯)나라 길 평탄하여  
문강(文姜)이 날 듯이 달려가네.

두 사람이 마침내 개녕동(開寧洞)에 도착했다. 숲이 들판을 뒤덮었고, 가시나무가 하늘에 닿을 듯 높이 솟아 있었다. 그 속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크기는 작지만 매우 화려했다.

[후략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온 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삼

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28.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비취새'와 ㉢의 '문강'은 같은 처지이다.
- ② ㉡보다 ㉢이 문학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에서의 소망이 이루어진 후 즐거운 마음을 ㉢로 표현하고 있다.
- ④ ㉡와 ㉢ 모두 유명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고 있다.
- ⑤ ㉡에서는 우연을 중시하는 운명관이, ㉢에서는 필연을 중시하는 운명관이 나타난다.

29. ㉠~㉢의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비현실적 요소로 양생의 시에 하늘이 화답하는 내용이다.
- ② ㉡ :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섞여 있는 진술이다.
- ③ ㉢ : 양생의 의심에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며 위기 상황을 넘기고 있다.
- ④ ㉡ : 현실과 초현실의 세계가 구분되지 않고 함께 존재하고 있다.
- ⑤ ㉢ : 불교적 색채와 더불어 양생의 사상이 드러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A]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짝 잃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둑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짐을 치다 시름겨워 창에 기대네.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중략)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땀아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박할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아무 고을 아무 땅에 사는 아무개가 아리웁니다.

지난날 변방의 방어에 실패한 탓에 왜구(倭寇)가 침략하였습니다. 창과 칼이 난무하고 위급을 알리는 봉화가 몇 해나 이어지더니 가옥이 불타고 인민들이 노략질 당하였습니다. 이리저리로 달아나 숨는 사이에 친척이며 하인들은 모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연약한 여자인지라 멀리 달아나지 못하고 규방에 들어앉아 있었으되, ㉡ 정절을 지키며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하지 않은 채 무도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여자가 절개 지키는 일을 옳게 여기셔서 외진 땅 외진 곳의 풀밭에 임시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시어, 제가 그곳에 머문 지도 이미 3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에 뜬 달을 보고 봄에 핀 꽃을 보며 헛되이 세월 보냄을 가슴 아파하고, 떠가는 구름처럼 흐르는 시냇물처럼 무료한 하루하루를 보낼 따름입니다. 텅 빈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기구한 제 운명에 한숨짓고, 좋은 밤을 홀로 지새우며 오색찬란한 난새 혼자서 추는 춤에 마음 아파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제 낮은 녹아 없어지고, 여름밤 겨울 밤마다 애간장이 찢어집니다. 바라옵나니 부처님이시여, 제 처지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 ㉢ 제 앞날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 없겠으나, 기구한 운명일망정 인연이 있다면 하루빨리 기쁨을 얻게 하시어 제 간절한 기도를 저버리지 말아 주소서.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후략)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 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여자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는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다시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萬福寺耑蒲記)’

3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소설의 사실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
- ② ㉡은 전기(傳奇)적 요소로 여인의 이인(異人)적 풍모가 드러난다.
- ③ ㉢은 세조정권에 저항하려 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④ ㉣은 여인이 삶과 죽음을 연속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은 의문에 대한 ‘방어’의 대화 형식을 취하여 긴장감을 유발한다.

31.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유사한 것은?

- ① 이화(梨花)에 월백(月白)하고 은한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 | 야 아라마는 다정(多情)도 병인 낭하여 줌 못드러 흐노라  
- 이조년
- ② 흐 손에 막닥 잡고 쏘 흐 손에 가시 쥐고  
늪길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白髮) 막닥로 치려터니  
백발(白髮)이 제 문쳐 알고 즈럼길노 오더라  
- 우탁
- ③ 반중(盤中) 조홍(早紅)감이 고아도 보이나다.  
유자(柚子) 구 안이라도 품엄죽도 하다마난,  
품어 가 반기리 업슬새 글노 설워 하나이다  
- 박인로
- ④ 지당(池塘)에 비 뿌리고 양류(楊柳)에 내 끼인제  
사공(沙工)은 어디가고 빈 배만 매였는고  
석양(夕陽)에 짝 잃은 갈매기만 오락가락 하더라.  
- 조현
- ⑤ 강산(江山) 좋은 경(景)을 힘센이 다들 양이면  
내 힘과 내 분(分)으로 어이하여 얻을소나  
진실로 금(禁)할 이 없을 식 나도 두고 노니노라  
- 김천택

32. <보기>에서 ㉤의 역할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 ㉠ 사건 전개에 필연성을 부여한다.
- ㉡ 현실계와 비현실계를 이어준다.
- ㉢ 여인의 내면심리를 변화시킨다.
- ㉣ 양생과 여인의 갈등을 해소시킨다.
- ㉤ 여인의 부모에게 여인과 양생의 관계를 알려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⑤ ㉢, ㉣, ㉤

33. 윗글을 토대로 학생들이 모둠별 토의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토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양생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 생애를 중점으로 토의해야겠어.
  - ② 당대의 사회 현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사건인 민란에 대해 토의해야겠어.
  - ③ 전기(傳奇)성을 이해하기 위해 「금오신화」 속 전기적인 요소를 찾아 토의해야겠어.
  - ④ 작품 전체에 대한 감상도를 높이기 위해 삽입시의 활용 이유에 대해 토의해야겠어.
  - ⑤ 작품 속 작가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위해 불교적 색채가 드러나는 부분을 찾아 토의해야겠어.



1) [정답] ③

2) [정답] ⑤

3) [정답] 좋은 배필을 얻는 것이다.

4) [정답] ①

[해설] 여인이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보살펴 달라고 부처님 앞에 올린 글로, 여인이 정절을 지켰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자결했다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5) [정답] ⑤

[해설]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은 편집자적 논평이 아니라 여인과 말을 섞으면서 느낀 양생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독자로 하여금 여인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 준다.

6) [정답] ①

[해설] 자신이 사람임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의적 회피에 해당한다. '도둑이 제 발 저린다.'라는 속담과 연결될 수 있다.

7) [정답] ⑤

[해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8) [정답] ③

[해설] '연등회'는 석가모니의 탄생일에 등불을 켜고 복을 비는 의식으로, 양생과 여인이 만나게 되는 배경일 뿐이다.

9) [정답] ④

[해설] 여인이 외로운 자신의 처지를 보살펴 달라는 글을 부처님 앞에 올린 것이다. 양생이 부처에게 빈 소원과 비슷하여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10) [정답] ②

[해설]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리고 부처와 저포 내기를 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로, 고전소설의 전기적인 특징이 잘 드러난 부분이다.

11) [정답] (1) 인물의 감정을 드러낸다, 직접 말하지 않은 상황을 암시한다. (2) 생사를 초월한 사랑

[해설] 소설에 삽입된 한시는 소설 속의 장면을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분위기로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12) [정답] ②

13) [정답] ⑤

14) [정답] ③

15) [정답] ②

16) [정답] 생사를 초월한 사랑

17) [정답] ③

[해설] 양생은 사경 가까운 시각에 술상의 비범함에 여인을 의심하게 되지만, 여인의 고운 모습과 여유로운 태도에 의심을 거두게 된다.

18)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은 곳곳에 삽입시를 활용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삽입시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는 부분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등장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서술하기 보다 삽입시를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심리를 묘사한다. 또한 작품의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서사 문학이라는 단조로움을 극복하게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소설에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19) [정답] ①

[해설] 인간의 욕망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 아니라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 소설의 주인공은 죽음으로 대표되는 초월을 감행한다.

20) [정답] ④

[해설] 자신이 원하던 여인, 인연을 만난 것을 기뻐하고 있다.

21) [정답] ③

[해설] 양생은 죽은 여인의 환생을 처음부터 기대한 것이 아니다. 인연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점을 친 것이다. ⑤ 이 소설은 영웅 소설과 달리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22) [정답] ④

[해설] 작가 김시습이 삶을 극복하지도 못하였고, 양생도 행복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 소설은 여타 고전소설과 달리 결말이 비극적이다.

23) [정답] 실제 지명을 사용한다. 왜구 침략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해설] 전라도 남원과 같은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실제의 역사적 상황(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작품의 배경을 설정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24) [정답] ⑤

[해설] 삽입시는 사건 전개 방향을 제시하고 인물의 심리와 주제를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데에 효과적이다. 서사적 전개 속에서 서정적 감흥을 유발하고 낭만적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서사성이 아닌 서정성이 강화된다.

25) [정답] ④

[해설] <보기>에서 '홀로 잠 못 이루어'를 보아 편히 잠을 청한다는 말이 잘못되었다.

26) [정답] ①

[해설]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전기소설적 요소이다. ㉠은 전기적 요소라고 볼 수 없다.

27) [정답]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해설] 공중에서 부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부처님에게 내기를 거는 것, 죽은 사람과 만나 교제하는 것 등은 현실에서는 불가능

능한 전기적인 사건들이다. '금오신화'의 다른 작품들처럼 이 작품도 전기소설로서 중심 플롯의 전개는 초자연적, 초인간적 신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28) [정답] ③

29) [정답] ⑤

30) [정답] ④

[해설] @은 여인의 운명론적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또한 여인이 양생과 인연을 맺고도 헤어지는 것은 삶과 죽음은 분리된 것이라는 가치관이 들어있는 것이다.

31) [정답] ④

[해설] [A]는 양생이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시로 읊은 것이다.

32) [정답] ③

[해설] '신표'는 뒷날에 보고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 서로 주고 받는 물건이다. 여인은 은그릇을 양생에게 줌으로써 자신이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

33) [정답] ②

[해설] 이 소설에서 민란은 드러나지 않는다. 전라도 남원과 같은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실제의 역사적 상황(왜구의 침입)으로부터 작품의 배경을 설정한 것은 어느 정도 사실성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일찍 부모를 잃고 장가를 들지 못한 채 외로이 살아가던 양생은 어느 날 만복사 불당에서 부처님과 저포 놀이를 하여 이긴 후, 부처님께 좋은 배필을 점지해 달라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퇴락하여 승려들은 한쪽 구석진 골방으로 옮겨가 있었고,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으며, 행랑이 끝난 곳에 좁다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여인에게 그곳으로 들어가자고 눈짓을 하였다. 여인도 별로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는 양생의 뒤를 따라 들어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바야흐로 밤은 깊어 가고 달이 동산에 떠올라 그림자가 창을 비추는데, 갑자기 창밖으로부터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여인이 문을 열고 내다보니, 여인의 수발을 드는 시녀(侍女)였다. 여인은 반가워서 물었다.

“애야, 어떻게 여기를 찾아왔느냐?”

아이가 말했다.

“예, 평소에는 문밖에도 나가시지 않던 아가씨가 가신 곳이 없어 허둥지둥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말했다.

“응, 오늘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구나. 높으신 하느님과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점지해 주신 덕에 고운 입을 맞이하여 백년해로의 기약을 맺게 되었다. 미처 알리지 못한 것은 예도에 어그러지나 꽃다운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평생의 기쁨이니, 의아하게 생각지 말고 빨리 돌아가 주연을 갖추어 오너라.”

시녀가 지시를 받고 물러간 지 얼마 안 되어 돌아와 뜰에서 잔치를 베풀니, 밤은 벌써 사경(四更)\*이 가까웠다. 양생이 가만히 살펴보니 탁상에 놓인 기명(器皿)은 희맑고 무늬가 없으며 술잔에서는 이상한 향기가 풍기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솜씨가 아니었다. 그는 속으로 괴이하게 여겼으나,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얼굴과 몸가짐이 매우 암전하여 ‘이는 아마도 어느 귀족 집 아가씨가 한때의 정서를 걸잡지 못하여 황혼의 기약을 찾아온 것이겠지.’라고 생각하고는 마음을 진정하였다.

<중략>

“당신을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한스럽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어찌 천행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신다면 비록 미약한 몸이오나 당신과 함께 백년고락을 누리 볼까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이날 이후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겠나이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한편으론 놀랐고, 다른 한편으론 고맙게 생각되어 대답했다.

“당신의 진지한 마음에 어찌 공명하지 않겠소?”

그러고는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으므로 그는 유심히 동정을 살폈다. 마침 서쪽 산봉우리에 달이 걸쳐있고, 먼 마을에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절에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에 날이 새려고 하였다. 여인이 시녀에게 지시하였다.

“애야, 주연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시녀가 곧 어디론가 사라지자,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꽃다운 인연을 이미 이루었으니 저는 당신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갈까 합니다.”

양생은 쾌히 승낙하고는 여인의 손을 잡고 앞을 향하여 걸었다. 둘이 저자 복판을 지날 때에는 벌써 울타리 밑에서 개가 짖고 사람들이

길에 나타났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물을 뿐이었다.

“충각, 새벽에 혼자서 어딜 다녀오시오?”

“예, 어젯밤에 만복사에 갔다가 취하여 누웠다가 친구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고 양생이 여인의 뒤를 따라 깊은 숲을 헤치고 가는데, 이슬이 길을 흠뻑 덮어 갈 길이 아득하였다. 양생은 의아하게 생각되어 물었다.

“당신이 거처하는 곳이 어찌하여 이렇게 쓸쓸하오?”

“예, 노처녀의 살림살이가 으레 그렇죠.”

하고는 문득 옛 시 한 장(章)을 외워 농담을 붙였다.

이슬 젖은 길  
아침저녁으로 다니고 싶건만  
옷자락 적실까 나설 수 없네.

양생도 옛 시 한 장을 읊어 화답하였다.

Ⓐ

여우가 짝을 찾아 어슬렁거리니  
저 기수의 돌다리에 짝이 있도다.  
노나라 길 확 트여  
문강(文姜)이 쓴살같이 달려가네.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함께 개녕동(開寧洞)으로 향하였다.

어느 한 곳에 이르니 다복썩이 들을 덮고 참천(參天)\*한 고목 속에 정쇄(精灑)\*한 수간 초당이 나타났다. 양생은 여인이 이끄는 대로 따라 들어갔다.

방 안에는 침구와 휘장이 잘 정리되어 있고, 밥상을 올리는데 모든 음식이 어젯밤 만복사의 차림과 차이가 없었다. 양생은 떡이나 기쁜 마음으로 이틀 동안을 유유히 보냈다. 시녀는 얼굴이 매우 아름답고 조금도 교활한 면이 없었다.

좌우에 진열되어 있는 그릇들은 깨끗하고 품위가 있어 그는 간혹 의아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여인의 은근한 정에 마음이 끌려 다시금 그런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은 양생에게 말했다.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곳의 사흘은 인간의 3년과 같습니다. 가연을 맺은 지가 잠깐인 듯하오나 오래되었사오니, 너무 서운하긴 하나 당신은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셔서 옛날의 살림을 돌보심이 어떻겠습니까?”

“여보시오, 이별이라니 갑작스레 그게 웬 말이요?”

“오늘 못다 이룬 소원은 내세에 다시 만나 다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예절도 인간과 다름이 없사오니 저의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만나 보고 떠나심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대화가 끝나자 친척과 이웃 동무들을 초대하였다.

\* 사경: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넷째 부분.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

\* 기명: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참천: 하늘을 찌를 듯이 공중으로 높이 솟아서 늘어섬.

\* 정쇄: 매우 맑고 깨끗함.

1. <보기>를 바탕으로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2.

<보기>

『금오신화』의 소설적인 특성은 첫째,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재자가 인적(子佳人的) 인물이라는 점, 둘째, 문장 표현이 한문 문언문(文言)으로 사물을 극히 미화시켜 표현한 점, 셋째, 일상적·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린 점 등인데, 이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일반적인 성격이며 이런 점에서 중국소설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이 있었음을 보게 된다. 나아가서 이들 작품 세계는 인간성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제도(制度)·인습(因襲)·전쟁·인간의 운명 등과 강력히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이 작품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 ① 양생은 전쟁 때문에 죽게 된 여인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게 된다.
- ② 양생에게 갑작스레 이별을 고하는 여인의 말은 이 글의 문장 표현이 한문 문언문이기 때문이다.
- ③ 현실계의 존재인 양생과 비현실계의 존재인 여인은 모두 재자가인형 인물로 뛰어난 외모를 지닌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 ④ 양생에게 보이는 여인의 모습을 저자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에서 당시 사람들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⑤ 일상과는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두 주인공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내용이 작품에 드러나 있다.

3. <보기>는 뒷글의 전체 줄거리이다. 이를 근거로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4.

<보기>

한국 최초의 한문소설집인 《금오신화(金鰲新話)》에 수록된 5편 중 하나이다. 남원의 떠돌이 노총각 양생(梁生)이 만복사(萬福寺)에서 부처와 저포(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유희) 놀이를 하여 이기자 소원이었던 배필을 맞았다. 그러나 알고 본즉 그녀는 어느 귀인(貴人)의 죽은 딸이 현신한 영혼이었다. 여자는 저승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며 사라지고, 양생은 홀로 귀가한다. 이후 양생은 여자를 그리워하며 지리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아가다가 소식이 끊겼다는 줄거리이다.

- ① 여인이 양생과 함께 간 '개녕동'이라는 공간은 현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여인이 옛 시를 읊은 것에 대해 양생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시를 답시로 선택한 것이군.
- ③ 양생과 여인이 읊은 옛 시는 여인이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라서 가능한 내용이었군.
- ④ 양생이 화답한 시의 내용에 주목해 볼 때, 양생은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또한 여인이 시를 외운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양생이 여인의 옛 시에 화답하며 의도적으로 「시경」에 있는 구절을 인용했다고 본다면, 양생은 이미 여인이 현실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겠군.

5.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보기>

- ㄱ.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해당되는 작품이다.
- ㄴ. 서술자의 일방적인 해설로만 사건이 진행된다.
- ㄷ. 명혼소설은 인귀교환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 ㄹ. 등장인물의 성격변화를 통해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만복사는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 구적진 땅에서 살고 있었다. 법당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그 끝에는 ㉠ 좁은 판자방 하나가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불러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함 없이 따라갔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다.

이윽고 밤이 깊어지자 달이 동산에 떠올라 달그림자가 창살에 비쳤다. 문득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묻기를,  
“누구냐? 시녀가 왔느냐?”

시녀가 말하기를,  
“예, 접니다. ㉡ 요즘 아가씨께서는 중문 밖을 나가지 않으셨고 뜰 안에서도 좀처럼 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엿저녁에는 우연히 나가시더니 어찌 이 먼 곳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다. 이에 여인이 말하기를,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아닌가 보다. 하늘이 도우시고 부처님이 돌보셔서 한 분 고운 님을 만나 백년해로하기로 했느니라. 부모님께 알리지 않은 것은 비록 명교의 법전에는 어긋나지만, 서로 즐거이 맞이하게 되니 이 또한 평생의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 너는 집에 가서 앓을 자리와 술, 과일을 가져오너라.”

시녀는 그 분부에 따라 돌아갔다. 이윽고 뜰에는 술자리가 베풀어졌는데, 밤은 이미 사경(四更)에 가까웠다.

시녀는 앓을 자리와 술상을 품위 있게 펼쳐 놓았는데, 기구들이 모두 말쑥하며 무늬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술에서는 진한 향기가 풍겨 나왔는데 정녕 인간 세상의 것은 아니었다.

양생은 의심이 나고 괴이하게 생각하는 바도 있었다.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 웃음이 맑고 고우며 몸가짐과 용모가 압전했으므로, 틀림없이 귀한 집 처녀가 몰래 나온 것이려니 생각하고는 더 의심치 않았다.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불러 술을 권하도록 하고는, 양생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옛 가곡을 그대로만 부릅니다. 제가 새로운 가사를 하나 지어서 술을 권해 드려도 될까요?”

양생은 기뻐하며 대답했다.  
“예.”

여인은 만강홍 곡조에 맞추어 가사를 지어 시녀에게 부르게 했다.

(중략)

잔치가 끝나자 작별하게 되었다. 여인이 은주발 하나를 내어 양생에게 주며 말했다.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께서 제게 음식을 내려 주십니다. 만약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길가에서 기다리고 계시다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http://www.namuacademy.com)

가 함께 절로 가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주십시오.”  
“좋소.”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시킨 대로 주발을 쥐고 서서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과연 어떤 귀족 집안에서 딸의 대상(大祥)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이끌고 보련사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길가에서 한 선생이 주발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본 종이 주인에게 말했다.

“아가씨 장례 때 함께 묻었던 물건을 어떤 사람이 훔쳐서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저 선생이 가지고 있는 주발을 보십시오.”

주인은 말을 몰아 양생에게 다가가 그 연유를 물었다. 양생은 그 전날 여인과 약속한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다. 여인의 부모는 놀라고 의아하게 생각하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왜구들의 난리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해서 개령사 옆에다 임시로 묻어 두고, 장사를 미루어 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날이라 재(齋)를 올려 명복이나 빌어 줄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약속을 지키려거든 내 딸을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오게. 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보련사로 떠나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며 왔다. 그 여인이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하고 오직 양생만이 볼 수 있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진지 드시죠.”

양생은 여인의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다. 부모가 시험 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수저 놀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지만,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해 마지않더니, 양생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 밤중에 그들의 이야기 소리가 낭랑히 들렸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 하면 갑자기 중지되곤 했다.

-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4. 위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시녀와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③ 시녀는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④ 종은 은주발을 보고 자신의 판단을 주인에게 전했다.
- ⑤ 부모는 양생의 말을 듣고 딸의 과거사를 떠올렸다.

5.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여인이 타의에 의해 들어간 공간이다.
- ③ ㉠은 제의성이, ㉡은 신성성이 지배하는 공간이다.
- ④ ㉠은 인연을 맺는, ㉡은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이다.
- ⑤ ㉠은 현실 속에, ㉡은 비현실 속에 설정된 공간이다.

6.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죽은 이와 의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 현실에서 소외된 양생은 절박한 외로움 때문에 현실 너머에 있는 여인과 만나서 사랑을 할 수 있었다.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양생의 사랑은 현재의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주변 인물들이 양생과 여인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장면을 제시하여, 둘의 사랑이 시청자들에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가서게 하면 좋겠어.
- ② 외로웠던 양생이 여인의 정체를 알고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부각하여, 시청자들이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③ 여인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7.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점]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남원(南原)에 양생(梁生)이란 사람이 있었다. ㉠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만복사(萬福寺) 동쪽에서 혼자 살았다. 방 밖에는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바야흐로 봄을 맞아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것이 마치 옥나무에 은이 매달린 듯하였다. 양생은 달이 뜬 밤이면 배나무 아래를 서성이며 낭랑한 소리로 이런 시를 읊조렸다.

쓸쓸히 한 그루 나무의 배꽃을 짝해  
달 밝은 이 밤 그냥 보내다니 가련도 하지.  
청춘에 홀로 외로이 창가에 누웠는데  
어디서 들려오나 고운 님 피리 소리.

㉑

시를 다 읊고 나자 문득 공중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네가 좋은 배필을 얻고 싶구나. 그렇다면 근심할 것 없느니라.”  
양생은 이 말을 듣고 내심 기뻐하였다.

이튿날은 3월 24일이었다. ㉒ 이날 만복사에서 연등회(燃燈會)를 열어 북을 비는 것이 이 고을의 풍속이었다. 남녀가 운집하여 저마다 소원을 빌더니, 날이 저물자 염불 소리가 그치며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다. 그러자 양생은 소매에서 저포(樗蒲)를 꺼내 불상 앞에 던지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오늘 부처님과 저포 놀이로 내기를 해 보렵니다. 제가 진다면 법회(法會)를 베풀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진다면 미녀를 점치해 주시어 제 소원을 이루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는 저포 놀이를 시작하였다. 결과는 양생의 승리였다. 그러자 양생은 불상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했다.

“승부가 이미 결정되었으니,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불상 앞에 놓인 탁자 밑에 숨어 부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켜 줄지 기다려 보았다.

이윽고 아리따운 여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나이는 열다섯이나 열여섯쯤 되어 보였다. 머리를 곱게 빗어 내렸고 화장을 얇게 했는데, ㉓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 여인은 기름이 든 병을 들고 들어와 등잔에 기름을 부어 넣고 향로에 향을 꽂은 뒤 부처님 앞에 세 번 절하고 꿇어앉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운명이 어찌면 이리도 기막랄까!”

그러더니 품속에서 뭔가 글이 적힌 종이를 꺼내어 탁자 앞에 바쳤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㉒

여인은 소원이 담긴 종이를 던지고 목메어 슬피 울었다. 양생이 좁은 틈 사이로 여인의 자태를 보고는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뛰쳐나가 이렇게 말했다.

“좀 전에 부처님께 글을 바친 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양생이 종이에 쓴 글을 읽고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한 채 이렇게 말했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혼자서 이곳에 오셨소?”

여인이 대답했다.

“저 또한 사람입니다. 무슨 의심하실 것이 있는지요? 그대가 좋은 배필을 얻을 수 있다면 그뿐, 제 이름을 물으실 것까지야 있을까요. 이처럼 성급하시다니요.”

㉔ 당시 만복사는 쇠락한 상태여서 이곳의 승려들은 한쪽 모퉁이 방에 거주하고 있었다. 대웅전(大雄殿) 앞에는 행랑만이 쓸쓸히 남아 있었고, 행랑 맨 끝에 나무판자를 붙여 만든 좁은 방이 하나 있었다. 양생이 여인을 부추겨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가자고 하자 여인도 그다지 어려운 기색이 아니었다. ㉕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불교적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 있다.
- ② 작품의 배경에 향토적 지명이 나타난다.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③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로 평가받고 있다.
- ④ 비현실적인 기이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⑤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고전 소설이다.

9 ㉑~㉕ 중, 서술자의 시점에 등장인물의 시점이 투영되어 있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㉑, ㉒    ② ㉑, ㉓    ③ ㉒, ㉔    ④ ㉓, ㉕    ⑤ ㉔, ㉕

10 이 글에서 시를 삽입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이야기 전개의 복선을 제시하기 위해
- ② 독자에게 구체적 장면을 제시하기 위해
- ③ 등장인물의 학식이 높음을 드러내기 위해
- ④ 인물의 내면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 ⑤ 한시에 익숙한 독자층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1 이 글의 내용으로 보아 ㉑에 들어갈 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외로운 비취새 짝 없이 날고  
짙은 원앙새 맑은 강에 몸을 씻네.  
내 인연 어딴을까 바독알로 맞춰 보고  
등불로 점을 치다 시름 겨워 창에 기대네.
- ② 집 둘레와 섬돌가에 온통 국화 심었더니  
창문 열면 곳곳마다 국화꽃 만발했네.  
꽃더미 언덕 이뤄 황금색이 넘쳐나니  
돈만 아는 부귀가라 남들이 욕하려나.
- ③ 비 그친 강둑에는 풀빛 더 푸르고  
임 보내는 남포엔 구슬픈 노래  
대동강 물이 다 마를 때 있으라.  
해마다 이별 눈물 더해지는데.
- ④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달 비친 창문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꿈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문 앞의 돌길에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 ⑤ 봄 비 가늘어 방울 없더니  
밤 되자 빗소리 귀에 들리네.  
눈 녹아 시냇물 불어날 테고  
파랏파랏 풀삭도 돌아날 거야.

12 이 글의 흐름으로 보아 ㉒에 들어갈 축원문의 중심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부부 인연은 하늘이 정한다니, 제 인연이 되는 임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 ② 왜구의 침입으로 가족들이 모두 흩어졌으니 가족들을 다시 만나도록 해 주십시오.
- ③ 전쟁으로 인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으니 한시 바빠 왜구가 물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 ④ 절개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버려야 했으니 저를 가엽게 여겨 극락정토로 이끌어 주십시오.
- ⑤ 부모님은 제가 이미 죽어 풀밭에 묻힌 것을 알지 못하니 저의 처지를 부모님께 알려 주십시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밤중이 되자 동산에 달이 떠오르며 창으로 그림자가 들이치는데  
홀연 발소리가 들렸다. 여인이 말했다.

“누구나? 몸종 아이가 왔느냐?”

시중드는 여종이 말했다.

“예, 아씨. ㉑ 지금껏 아씨께서는 중문(中門) 밖을 나선 적이 없으셨고  
걸어야 몇 걸음을 가지 않으셨는데, 어젯밤 문득 나가시더니 어

쩌다가 이 지경에 이르셨어요?”  
 여인이 말했다.  
 “오늘 일은 우연이 아니란다. 하늘이 돕고 부처님이 도우셔서 이처럼 좋은 임을 만나 백년해로를 하게 되었구나.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혼인하는 건 비록 예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훌륭한 분과 잔치를 벌여 노니는 것 또한 평생토록 일어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 아니겠니. 집에 가서 자리를 가져오고, 술상을 봐 오너라.”  
 시중드는 여종이 여인의 명에 따라 갔다 와서는 뜰에 자리를 깔았다. 사경 가까운 시각이었다. 퍼 놓은 술상은 수수하니 아무런 무늬장식도 없었으나, 술에서 나는 향기는 진정 인간 세계의 것이 아닌 듯하였다. 양생은 비록 의심스러운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담소하는 맑고 고운 모습이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고는,  
 ‘필시 귀한 덕 처자가 담장을 넘어 나온 것이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의심하지 않게 되었다.  
 여인이 양생에게 술잔을 건네더니 시중드는 여종더러 노래를 한 곡 불러 보라고 하고는 양생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아이가 옛날 곡조를 잘 부른답니다.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양생이 흔쾌히 허락하자 여인은 노래 한 곡조를 지어 여종에게 노래하게 하였다. (중략)  
 노래가 끝나자 여인이 슬픈 얼굴로 말했다.  
 “㉠ 옛날 봉래도(蓬萊島)에서 이루지 못한 만남을 오늘 소상강(瀟湘江)에서 이루게 되었으니, 천행(天幸)이 아니겠습니까? 낭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죽도록 곁에서 모시겠어요. 하지만 제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시겠다면 영영 이별입니다.”  
 양생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는 한편 놀라워하며 말했다.  
 “내 어찌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겠소?”  
 그러나 여인의 태도가 범상치 않아 보이는 까닭에 양생은 여인의 행동을 자세히 살폈다.  
 이때 달이 서산에 걸리며 인적 드문 마을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 절에서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하며 새벽빛이 밝아 왔다.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  
 “얘야, 자리를 거둬 돌아가려무나.”  
 여종이 “예.” 하고 대답하자마자 자취 없이 사라졌다. 여인이 말했다.  
 “인연이 이미 정해졌으니 제 손을 잡고 함께 가지지요”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마을을 지나갔다. 울타리에서 개들이 짖어 댔고, 길에는 사람들이 다니고 있었다. 그런데 지나가던 이들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가는 것을 알지 못한 채 다만 이렇게만 묻는 것이었다.  
 “이렇게 일찍 어딜 가시나?”  
 [뒷부분 줄거리]  
 사흘을 같이 보낸 뒤, 여인은 양생에게 신표로 은그릇 하나를 주고 보련사로 가는 길목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한다. 다음날 여인이 시킨 대로 보련사 길목에 서 있던 양생은 죽은 딸의 대상(大祥)을 치러러 가던 여인의 부모를 만나 자신이 왜구의 난리 때 죽은 그 집 딸과 인연을 맺었음을 알게 된다. 양생은 여인을 다시 만나 여인의 부모가 차려 놓은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뒤 여인과 이별한다. 여인을 잊지 못한 양생은 재산을 모두 팔아 재를 지냈는데, 어느 날 밤 여인의 혼령이 다시 나타나 자신은 다른 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났으니 양생도 불도를 닦아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한다. 그 뒤 양생은 여인을 그리워하며 지리산에 들어가 약초를 캐며 혼자 살았다고 한다.

13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기주도형 수능 국어영역 참고서, 삼담

- 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전기적(傳奇的) 요소가 드러나는 장면이 있다.
- ③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다.
- ④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서사 구조로 삼고 있다.
- ⑤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14 이 글을 읽고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가의 삶과 사상을 추리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절의를 지키는 여인의 모습에서 현실과 비타협적인 작가의 태도를 찾아볼 수 있어.
- ② 신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애정의 실현을 꿈꾸는 작가의 욕망을 확인할 수 있어.
- ③ 사랑을 좌절시키는 세계(제도, 사회 현실 등)의 횡포에 맞서 저항하려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④ 불우한 처지를 비판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어.
- ⑤ 여인이 사건 전개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으로 보아 작가의 남녀평등 사상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15 이 글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인은 여종과의 대화에서 자기 행위의 명분을 제시했다.
- ② 양생은 여인의 언행을 보고 그녀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 ③ 여종은 노래를 불러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 ④ 여인은 ‘은그릇’을 통해 양생과 자신의 인연을 가족들에게 증명하려 했다.
- ⑤ 여인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16 ㉠의 상황을 가장 잘 나타낸 한자 성어는?

-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 ② 가인박명(佳人薄命)
-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17 ㉡의 상황에서 여인이 불렀을 직한 노래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해마다 오는 제비는 봄바람에 춤을 추건만  
내 마음 애가 끊어져 모든 일이 헛되어라.  
부럽구나. 저 연꽃은 꼭지나마 나란히 하여  
밤 깊어지면 한 연못에서 함께 목욕하는구나.
- ② 등불엔 빛이 없고 밤은 또한 지나긴데  
북두성 기울고 달도 반쯤 비껴있구나.  
슬슬한 나의 침소 뉘라서 찾아오리.  
푸른 적삼 구겨지고 귀밑머리 헝클어졌네.
- ③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눈물진 이 몸을 위로할 이 누구던가?  
즐겁구나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쌍이고 쌍인 한을 후련히 가져주네.
- ④ 푸른 산 섬돌 위에 높이 솟은 다락 하나  
연리지(連理枝)에 열린 꽃은 해마다 붉건마는  
어이타 인생 백 년 저 꽃과 같지 않아  
한 많은 이 청춘은 눈물만 고이느뇨.
- ⑤ 매실이 떨어지기 전 오신다던 약속이 어긋났구나.  
봄바람이 건듯 부니 사랑은 지나갔네.  
베갯머리 눈물 자국 얼마나 적셨던가.  
무심한 산비가 내려 배꽃만이 떨어지네.

18. '만복사저포기'는 김시습이 지은 한문 단편 소설집 ( )에 실려 있는 5편 중 하나로 죽은 여자와의 사랑을 그린 명혼 소설(冥婚小說)이다.
19. 이 소설의 내용 중에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 )과 같은 실제의 지명을 사용하였고, 왜구(倭寇)의 노략질과 같은 역사적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20. 이 소설에는 비현실적이거나 환상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그러한 요소에 해당하는 것을 두 가지 이상 쓰시오.
21. 이 소설에서 중요 대목마다 등장하는 시(詩)는 주인공들의 ( )를 함축적으로 제시한다.
22. 주인공 양생이 저포 놀이를 통해 부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바를 무엇인가?
23. 여인이 부처님께 글을 바쳐 기원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24. 이 소설에서는 여인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용모와 자태가 곱디고운 것이 마치 하늘의 선녀나 바다의 여신과도 같아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라고 하였다. 고전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이러한 유형의 인물을 가리켜 흔히 ( ) 인물이라고 한다.
25. 양생이 여인의 손을 잡고 함께 거리를 지나는데도 사람들이 여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6. 이 소설은 부당한 현실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을 담고 있다. 주인공들은 잠시나마 현실에서 벗어나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으며 결국 다시 헤어지게 된다. 그것은 양생과 달리 여인이 ( )이기 때문이다.



1) ⑤ [해] 이 글은 금오신화에 해당되는 작품으로 금오신화의 일반적인 특징을 통해 적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상적·현실적인 것과 거리가 먼 신비로운 내용을 그린 점 등인데, 이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의 일반적인 성격이며 이 글의 특징이기도 하다. [오] ① 인간성을 긍정하고 현실 속에서 제도(制度)·인습(因襲)·전쟁·인간의 운명 등과 강력히 대결하려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금오신화의 특징이다. 그러나 양생이 여인을 위해 전쟁과 투쟁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② 이 글이 한문 문언문인 것과 사건의 줄거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③ 이 소설의 인물은 대부분 재자가인형 인물이지만 양생 또한 그렇다는 것은 이 글을 통해서서는 확인할 수 없다. ④ 이 글에서 여인을 보는 현실계의 존재는 오직 양생이다. 비현실계 존재와의 소통이 현실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양생은 여인과 사랑을 나누었으므로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귀신을 보는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④ [해] 여인은 양생의 배필이 된다. 그들이 주고 받은 시의 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여인이 농담을 붙여 외운 시에 답하는 양생 역시나 여인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후 함께 웃으며 '개녕동'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 ① 여인이 양생에게 가지고 한 '개녕동'이라는 곳은 이미 죽은 여인으로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② 여인이 옛 시를 읊은 것에 대한 양생의 화답은 적절하다. 따라서 양생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은 알맞지 않다. ③ 양생과 여인이 읊은 옛 시는 「시경」의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여인이 현실의 인물이 아니라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두 사람이 모두 학문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기에 가능한 상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⑤ 양생과 여인은 서로 마음이 통하여 이 시를 주고 받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생이 이 부분에서 여인이 현실적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④ [해] 나. 이 작품은 서술자의 일방적인 해설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주고 받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양생과 여인의 말을 통해 그들이 벌이는 사건의 양상을 짐작하게 하므로 이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르.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성격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양생과 여인 모두 인물의 성격변화가 드러나지 않는 평면적인 인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성을 드러낸다고도 보기 어렵다 [오] 나. 이 작품은 만복사저포기로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이 외에도 이생규장전,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 등의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다. 이 작품은 인간과 귀신이 만나 사랑을 나누는 명혼소설로 명혼소설은 인귀교환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오신화의 특징이기도 하다.

4) ③ (중략) 바로 앞부분에서 여인은 시녀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여 술을 권하도록 하였다. 시녀가 옛 가곡을 부르자 여인이 새로운 가사를 지어 술을 권해도 되겠냐고 물은 뒤, 만강홍 곡조에 맞춰 가사를 짓고 시녀에게 부르게 한다. 여인이 어떤 내용의 가사를 지었는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인이 시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지, 시녀가 양생에 대한 자신의 마음의 드러내기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다.

[오답피하기] ① 여인의 두 번째 말 '오늘 일은 아마도 우연이 ~ 기이한 인연일 것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중간 부분인 '하지만 여인의 말씨와~의심치 않았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시녀의 말 '아가씨 장례 때~ 가지고 있습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중략) 아래 부분에 드러나는 부모의 말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그리고 조금도 놀라지 말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④ ㉠(좁은 판자방)은 양생이 여인과 인연을 맺고 3일간의 즐거움을 나누는 공간이다. ㉡(하얀 휘장 안)은 양생과 여인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여인의 존재에 대해 의아해하는 그의 부모에게 귀신의 존재를 확인시키는 공간이다. 따라서 ㉠은 인연을 맺는 공간, ㉡

은 여인의 존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부모에게 여인과의 인연을 인정받는 공간으로 파악한 ④가 적절하다.

[오답피하기] ① 위 글에서 ㉠, ㉡ 모두 양생이 여인을 위해 마련한 장소인 것은 아니다. ② 위 글에서 ㉠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없으며, ㉡은 여인 스스로 들어간 공간이다. ③ 위 글에서 ㉠은 현실적 공간으로 양생과 여인이 현실적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다. ㉡은 현실적 공간에서 기이함(전기적 요소)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⑤ 위 글에서 ㉠, ㉡ 모두 현실적 공간의 일부일 뿐이다.

6) ②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를 먼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보기>에 드러난 기획 의도의 핵심은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이 작품에 드러난 양생의 만남을 통해 진정한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인의 가벼운 만남과 대비되는 양생의 만남이 부각되어 드러난 답지의 의견이 기획 의도를 적절히 이해한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②는 양생이 여인과의 만남이라는 인연을 부각시킨다는 내용과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는 내용이 의견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적절한 의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 여인이 귀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인의 가족과 식사를 하는 장면에서 여인을 변함 없이 사랑하는 양생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① 양생의 만남을 일상적이면서 자연스러운 만남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드러난 의결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먼 의견이다. ③ 죽은 여인의 환생이라는 기이한 상황(전기적 요소)을 부각시키려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④ 양생과 여인의 만남을 현대인의 기호에 맞춰구성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만남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와는 거리가 멀다. ⑤ 양생과 여인의 사랑을 강조하자는 기획 의도가 드러난 의견일 뿐, 이 둘의 사랑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는 확인할 수 없다.

7) ①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끊은 채 자신이 기거하는 곳에서 틀어박혀 지낸 상황을 보여 주는 말이다. 따라서 ① '두문불출(杜門不出): 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한다'는 말이 이 상황을 적절히 보여 주는 말이다. 정답

[오답피하기] ② 가인 박명(佳人薄命): 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다는 말.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한 조각의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아니하는 마음을 이르는 말. ④ 망양지탄(亡羊之歎) 갈림길이 매우 많아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진리도 얻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유사어는 다기망양(多歧亡羊)이다. ⑤ 독야청청(獨也靑靑) 남들이 모두 절개를 꺾는 상황 속에서도 홀로 절개를 굳세게 지키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8) ⑤ 이 글은 '생사(生死)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 소설이며, 고전 소설에 흔히 등장하는 권선징악적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

9) ⑤ ㉡의 "바라보고 있자니 위엄이 느껴졌다."라는 서술이나, ㉢의 "영락없는 사람의 모습이였다."라는 서술에는 등장인물인 양생의 시점이 투영되어 있다.

10) ④ 이 글에서는 서정시들을 삽입하여 주인공들의 내면세계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1) ① ㉠에는 혼자 사는 양생이 배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밤에 자신의 인연이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하며 애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정서와 배경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 ①이다.(실제로 ①은 이 작품의 이 부분에 들어 있는 시이다.)

12) ① 부처님께 축원문을 올린 이후의 이야기 전개 양상을 보면, 양생과 여인이 만나 서로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여인은 축원문에서 자신의 배필을 찾게 해 달라고 축원했 무료 학습자료 공유사이트, 나무아카데미 www.namuacademy.com

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 13) ⑤ 글 속의 여인과 양생은 사랑을 절대시하는 유사한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 14) ⑤ 여인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맞지만, 작가의 남녀평등 사상이 실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15) ③ 여인이 “제가 노랫말을 하나 지어 부르게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여 자신이 노랫말을 지어 그것을 여중에게 노래하도록 하고 있다. 그 노랫말에는 당연히 (여중이 아닌)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것이다.
- 16) ① ‘아씨께서는 중문(中門) 밖을 나선 적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적절한 한자 성어는 두문불출(杜門不出)이다.
- 17) ③ 봉래도(蓬萊島)는 신선이 산다는 봉래산(蓬萊山)을 의미한다. 소상강(瀟湘江)은 소수(瀟水)와 상수(湘水)를 가리킨다. 모두 중국 후난성에 있는 강 이름이다. 여기서의 양나라 유운(柳惲)의 시 ‘강남곡(江南曲)’에 나오는 “동정호(洞庭湖)에서 온 나그네 / 소상강에서 님을 만났다고”라는 구절에서 착안하여 ‘임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에서 여인은 오랫동안 외로이 지내다가 양생을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것을 천행으로 여기고 있으므로, 임을 만나 그동안 쌓인 한을 풀었다는 내용의 ③과 같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 18) “금오신화”
- 19) 남원
- 20) 살아 있는 사람과 귀신의 사랑, 부처님과의 내기, 공중에서 신의 목소리가 들려옴 등
- 21) 내면 심리
- 22)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함.
- 23) 좋은 배필을 얻고자 함.
- 24) 재자가인(才子佳人)형
- 25) 여인이 이미 죽은 사람의 혼령이었으므로
- 26) 이미 죽은 사람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튿날 양생은 여인이 이르든 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서 여인의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더니 과연 어떤 명문가에서 딸의 대상을 치르기 위해 수레와 말을 길게 앞세우고 보련사를 향하여 가고 있었다.

그때 한 마부가 양생이 은잔을 손에 들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주인에게 여쭙었다.

“나리! 우리 아가씨 장례 때 무덤에 함께 묻었던 은잔을 어떤 사람이 훔쳤나 봅시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나?” / 주인 양반이 물었다.

“예, 저기 서 있는 선생이 가진 것을 보십시오.”

마부가 말했다.

주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양생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은잔을 갖게 된 경위를 물었다.

양생은 여인과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였다.

주인은 너무나 놀라워 한참을 멍하니 서 있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내 슬하에 오직 여식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구의 난리에 그만 죽고 말았네. 미처 정식으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개녕사 곁에 묻어 두고는 기회를 보아 오다가 지금에서 하게 되었네. 오늘이 벌써 대상 인지라 부모된 도리로 보련사에서 재나 베풀어 볼까 해서 가는 길일세. 자네가 정말 내 여식과의 약속을 지키려거든 여식을 기다려서 함께 오게.”

말을 마치자 주인은 보련사로 떠났다.

양생은 여인을 기다렸다. 과연 약속했던 시간이 되자 여인은 시녀를 데리고 나타났다. 서로 반가워하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절로 향하였다.

여인은 절 문에 들어서자 먼저 법당에 올라 부처님께 예를 드리고는 곧 흰 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인의 친척들과 승려들은 아무도 여인을 보지 못했고, 다만 양생이 보고 그 뒤를 따를 뿐이었다.

“저녁 진지나 함께 잡수시지요.”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그러죠.” / 양생이 대답했다.

양생이 여인의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하였다. 그들은 양생의 말이 믿기지 않아 휘장 속을 엿보았는데 딸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다만 **수저 소리**만 달그락거릴 뿐이었다.

여인의 부모는 크게 놀라며 휘장 속에 신방을 차려서 양생에게 딸과 동침할 것을 권하였다. 밤중이 되자 말소리가 맑고 고요하게 흘러나왔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였다.

여인이 양생에게 말했다.

[A]“이제는 당신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행동이 법도에 벗어난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시서(詩書)를 읽었으므로 예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시경”에서 말한 건상과 상서 두 장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복숙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한번 일어난 정회를 견잡지 못하여 박명을 탄식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삼세의 인연을 만나게 되었으므로 백 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어길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빠 저승길을 떠나야 합니다. 운우는 양대에서 개고 오작은 은하에 흠어지매 이제 하

직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사오니, 헤어짐에 임하여 아득한 정회를 무어라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말을 마치고 여인은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사람들은 여인의 영혼을 전송하였다. 비록 혼은 보이지 않았으나 슬픈 소리만은 은은히 들려왔다.

[B]저승길이 바쁜 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마는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음소서.

애달파라 어머니여! 슬프도다 아버지여!

고운 임 여의는 내 신세를 어이할고.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히리다

소리는 점점 가늘어지더니 나중에는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 여인의 부모는 그제야 양생의 말이 모두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양생도 여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님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그러자 더욱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울었다. 여인의 부모가 양생에게 말했다.

“그 은잔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또한 내 여식의 몫으로 되어 있던 밭 두어 이랑과 노비를 자네에게 넘겨줄 것이니 내 여식을 잊지 말아 주게.”

이튿날 양생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여인과 함께 지냈던 **개녕동**을 찾으니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양생은 음식을 차려 놓고 슬피 울면서 **지전**을 불사르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른 뒤, 조문을 지어 읽었다.

-김시습, 「만복사저포기」

\* 대상: 죽은 지 두 돌 만에 지내는 제사.

\* 건상: 음탕한 여인이 남자를 유혹하는 시.

\* 상서: 예의가 없는 것을 풍자한 시.

\* 양대: 중국 사천성에 있는 땅 이름. 선녀가 초나라 양왕을 모셨다가 떠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양대에 있겠다고 하였다 함.

1.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인은 부모가 보련사에 올 것을 알고 있었다.
- ② 마부는 여인과 부모의 만남을 미리 계획해 두었다.
- ③ 마부는 양생이 갖고 있는 은잔이 가짜라고 생각하였다.
- ④ 부모는 양생의 요구에 따라 양생에게 토지와 노비를 주었다.
- ⑤ 양생은 여인이 이미 죽었다는 부모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였다.

2.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 모두에 이별에 대한 운명적인 수용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B]와 달리 과거에 대한 회고가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B]와 달리 여인의 이루지 못한 소망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 ④ [B]에는 [A]와 달리 남은 이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 ⑤ [B]에는 [A]와 달리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이 나타나 있다.

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교섭 작용을 보여 주고 있는데, 그 양상은 인물들의 관계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비현실계와의 교섭을 통해 인물은 현실에서 좌절된 욕망의 충족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계까지 확장될 수 없으며 오히려 두 세계의 엄연한 간극을 절감하게 한다.

- ① 여인이 양생에게 준 '은잔'은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교섭하게 되는 매개물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여인, 양생, 부모가 만나는 '보련사'는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교섭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양생에게만 여인이 보이고, 부모에게는 '수저 소리'만 들리는 것은 인물에 따라 교섭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양생이 여인과 함께 살았던 '개녕동'에 무덤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은 두 세계의 엄연한 간극을 보여 주는군.
- ⑤ 양생이 '지전'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비현실계에서 충족된 욕망을 현실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군.

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확인: 부모가 보련사에 올 것을 알고

‘양생은 여인이 이르는 대로 은잔을 가지고 보련사로 가는 길가에 서 여인의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다.’에서 여인이 부모가 보련사로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확인: 마부, 미리 계획

마부는 보련사로 가던 길에 예기치 않게 양생을 만나고 있으므로 미리 계획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확인: 양생이 갖고 있는 은잔이 가짜

마부는 양생이 여인의 무덤에 있던 은잔을 훔쳤다고 생각했으므로 은잔이 가짜라고 본 것은 아니다.

④ 확인: 양생의 요구

부모는 양생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그에게 은잔, 토지, 노비를 주었다.

⑤ 확인: 부모의 말이 거짓

양생은 부모의 말을 듣고도 여인을 자연스럽게 대하고 있으며 여인과의 이별을 받아들인다. 양생은 부모의 말에 개의치 않았던 것이 지 부모의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2. 인물의 심리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

(㉠)와 (㉡)에 모두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이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1: (㉠), 이별에 대한 운명적인 수용

(㉠)에서 ‘애달프게도 숙명적인 이별을 어길 수가 없사옵기에 한시 바빠 저승길을 떠나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확인 2: (㉡), 이별에 대한 운명적인 수용

‘저승길이 바쁜 고로 괴로운 이별하건마는’에서 이별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확인 1: (㉠), 과거에 대한 회고

‘너무 오랫동안 들판 다복쑥 속에 묻혀서 버림받은 몸이 되고 보니 한번 일어난 정회를 견잡지 못하여 박명을 탄식하였습니다.’ 등에 과거에 대한 회고가 나타나 있다.

확인 2: (㉡), 과거에 대한 회고

이별에 처한 현재의 슬픈 마음이 나타나 있으며 과거에 대한 회고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확인 1: (㉠), 이루지 못한 소망

‘백 년의 높은 절개를 바쳐 술을 빚고 옷을 기워 평생 지어미의 길을 닦으려 하였습니다.’라고 하여 이루지 못한 소망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확인 2: (㉡), 이루지 못한 소망

이루지 못한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확인 1: (㉠), 남은 이에 대한 당부

남은 이에 대한 당부는 나타나 있지 않다.

확인 2: (㉡), 남은 이에 대한 당부

‘바라건대 임이시여 저버리진 마옵소서.’에 양생에 대한 당부가 나타나 있다.

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확인: ‘장례’, 비현실계에서 충족된 욕망을 현실계로 확장

양생이 여인의 무덤에서 지전을 불사르고 장례를 치르는 것은 여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비현실계에서 충족된 욕망(여인과의 사랑)을 현실계로 확장하려는 시도로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확인: ‘은잔’,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매개물

여인의 무덤 안에 있던 은잔을 통해 비현실계에 속하는 여인, 현실계의 인물인 부모, 두 세계를 오가는 양생이 교섭하는 계기가 마련된다.

② 확인: ‘보련사’, 현실계와 비현실계가 교섭하는 공간

여인, 부모, 양생은 보련사에서 만난다. 보련사는 망자를 위해 현실계(이승)의 사람들이 재를 올리는 공간이면서, 비현실계(저승)로 여인을 완전히 떠나보내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련사는 현실계와 비현실계의 교섭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확인: 인물에 따라 교섭의 양상에 차이가 있음

양생에게만 여인이 보이고, 부모에게는 ‘수저 소리’만 들리며, ‘사람들이 가만히 엿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면 소리가 갑자기 끊어지곤’ 하는 것에서 인물에 따라 비현실계와의 교섭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확인: 무덤, 두 세계의 엄연한 간극

‘이튿날 양생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여인과 함께 지냈던 개녕동을 찾으니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에서 개녕동은 양생이 여인과 함께 지냈던 곳을 알 수 있다. 이곳은 무덤만이 남아 있어 여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모두 비현실계에서 일어났던 일임을 말해주며, 더 이상 그 인연이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